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과 기증자료 분석보고서

제 출 자

책임연구원 : 이신재

공동연구원 :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한 자료(227건)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향후 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이 보고서에서 ‘월남’은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이전 한국과 수교하였던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을 말한다. 당시 국내에서는 ‘월남’, ‘자유월남’ 또는 ‘남베트남’ 등으로 불렸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동을 막는 차원에서 ‘월남’(越南)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3.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정식 명칭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라 ‘주월한국 태권도교관단’, ‘주월 태권도교관단’, ‘주월교관단’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4. 이 보고서의 장, 절, 항의 구성 및 표, 그림, 사진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장, 절 항 : 제1장, 1, 1)
 - 표, 그림 : <표-1>, <그림-1> 일련번호 순
 - 사진 : <사진 1>, <사진 2> 일련번호 순
5.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 책자 : 저자, 『책자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예) 홍길동, 『태권도』 (서울: 00출판사, 2020).
 - 논문, 학술지 기사 : 저자, “논문명,” 『학술지』 제00호(연도), 00쪽.
(예) 홍길동, “태권도 연구,” 『태권도연구지』 제1호(2020), 15쪽.
 - 신문기사 : 『00일보』, 발행년, 월, 일.
 - 인터넷 자료 : 자료명, 인터넷 사이트 주소(검색일).
 - 1차 사료 : 소장처, 사료명(발행일).
6.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베트남어 인명 및 지명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지침을 준용하여 현지어 발음에 가깝게 기술하였고, 용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명칭을 ()안에 병기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붕따우(Vung Tau, 붕타우), 냐짱(Nha Trang, 나트랑), 꾸년(Quy Nhon, 퀴논),
떤선넛(Tan Sohn Nhut, 탄손누트), 뚜이호아(Tuy Hoa, 투이호아) 등
7. 부록에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주요 활동 연표와 교관 명부를 수록하였다.

목 차

제1장 서론	5
1. 연구의 목적과 의미	6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9
3. ‘월남전’ 명칭 사용 관련	11
4.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13
제2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	15
1. 한국군 태권도의 월남 진출 배경	16
2. 태권도교관단의 본격적인 월남전 파병	26
3. 태권도교관단의 월남 현지 활동	30
4. 태권도의 월남 안착을 위한 노력	40
5. 크메르 군대에 대한 지원	46
6.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평가	48
제3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 현황	53
1. 기증자료의 현황과 특징	54
2.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현황	55
제4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평가	83
1. 기증자료의 문화재적 가치	84
2. 주요 자료 평가	95

제5장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 추진방안	111
1. 국내 문화재 종류와 등록 절차	112
2. 기증 태권도 자료 문화재 등록 추진방안	119
제6장 결론	125
1. 주요 연구 결과	126
2. 향후 태권도교관단 연구의 과제	128
부 록	131
참고문헌	139

□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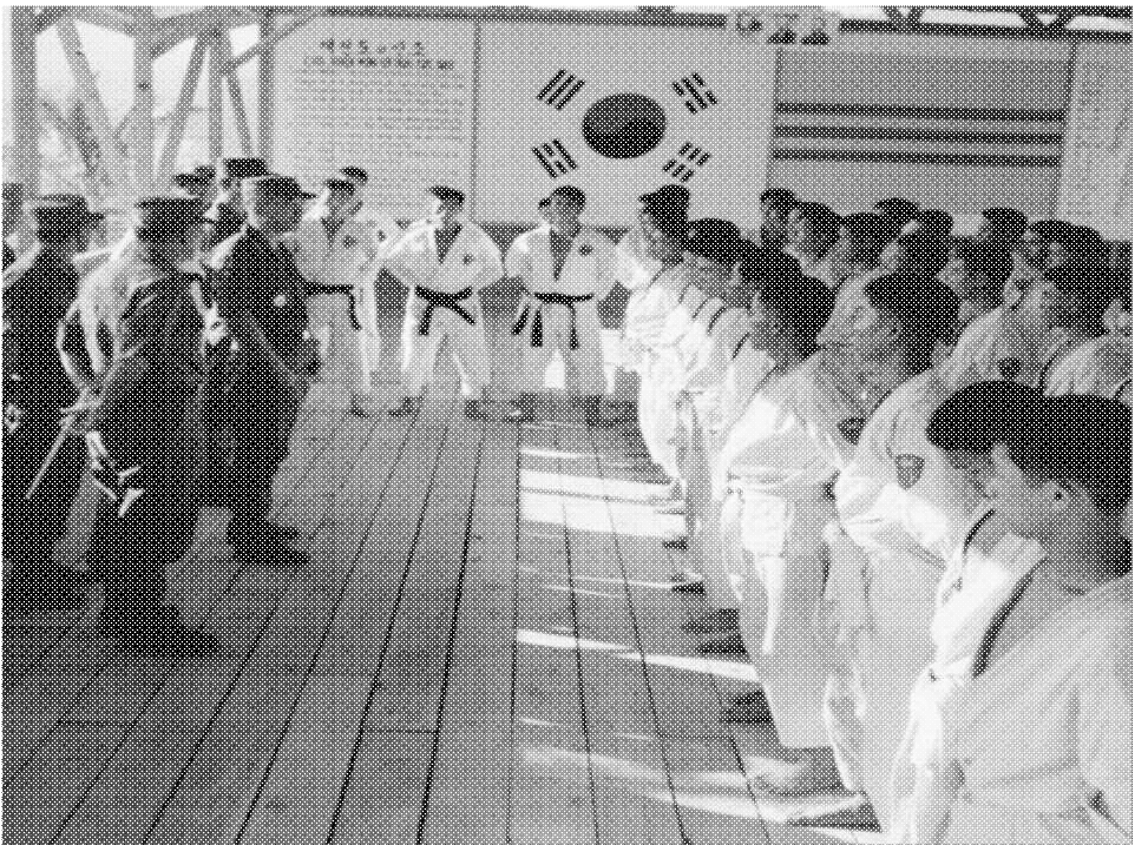
<표-1> 1964년 7월 기준 군내 태수도 유단자 현황	25
<표-2> 1차 태권도교관단 명단	27
<표-3> 1차 태권도교관단 배치지역	30
<표-4> 주월 태권도교관단 교관 현황	33
<표-5> 일반부대 태권도교육대 교관 현황	34
<표-6> 역대 태권도교관단 단장 현황	34
<표-7> 태권도교관단 지역 편성 및 태권도장 운용 현황	38
<표-8> 주월 태권도교관단 교육 인원	39
<표-9> 초대 월남 태권도 협회 임원진 현황	42
<표-10> 크메르군 태권도 훈련지원 현황	46
<표-11> 태권도교관단이 수련생들로부터 획득한 첩보 현황	50
<표-12>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현황	54
<표-13>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팸플릿과 주요 사진	100

□ 그림 목차

<그림-1> 주월 한국군사령부와 태권도교관단 지휘 관계	31
<그림-2>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편성 현황	32
<그림-3>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 분포도	36
<그림-4>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조직도	41
<그림-5>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114
<그림-6>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지정 절차 정리	118

제1 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미

이 연구는 1960~70년대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을 살펴보고, 이들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의 문화재 등록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전쟁 중이던 월남에 파병되었던 한국 군인 태권도교관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이들은 월남 현지에서 월남 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월남 주둔 미군에게 한국의 태권도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임무 이외에도 현지에서 생활하던 한국 교민들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한국군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의 파병 규모는 장교 400명, 사병 328명 등 총 72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¹⁾ 이들은 연인원 32만여 명의 한국군이 파병되었던 월남전에서 1964년 가장 먼저 파병되어 1973년 가장 마지막까지 주둔하였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들이다. 이 기간동안 태권도교관단은 229,913명에게 태권도를 수련시켜 2,916명의 유단자를 배출했으며, 총 351회의 태권도 시범을 통해 13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수준 높은 태권도 기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²⁾

이뿐만 아니라 주둔기간 동안 월남 태권도협회와 주월 한국태권도협회를 설립하고,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월남에 태권도를 안착시키는 임무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태권도교관단의 활약은 주월한국군 민사작전(民事作戰)의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은 월남전 전쟁사와 한국 태권도 현대사에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태권도의 해외 진출사에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이 그 출발선에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국내에서는 태권도협회가 조직되어 체계화되어 가는 시기였다. 1950년대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단의 방문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태권도 교관이 장기

1)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1079쪽. 한편 주월 태권도교관 출신 모 임인 전무회에서는 647명의 태권도 교관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서울: 도서출판 제일, 1996), 92~95쪽.

2)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1079~1080쪽.

간 파견되어 주둔국의 군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교육하고, 300여 회가 넘는 시범을 선보인 것은 당시로는 주월 태권도교관단이 처음이자 유일하였다.

2023년 현재 태권도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수련하고, 품·단증 보급국가는 202개국이며, 유품·유단자의 숫자도 약 1,100만 명이고,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규모가 약 7만 8천 명에 이르는 명실상부 ‘세계인의 태권도’가 되었다.³⁾ 오늘날 태권도가 전 세계에 보급되고, 이른바 ‘태권도의 영토’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는 과정에는 대한태권도협회(KTA),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등 관련 단체와 해외에서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을 비롯한 많은 태권도인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태권도 세계화의 첫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역할과 활동은 태권도 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이 틀림없다.

둘째, 현대전에 한국군의 무도(武道)가 처음 참여한 사례라는 점이다. 월남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다. 당시 가장 먼저 파병된 부대 또한 태권도교관단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파병 이전에 한국군 태권도 교관이 월남 현지에서 활동한 바도 있었다. 이 점은 한국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가 현대전쟁에 참여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월남전은 6·25전쟁 이후 10여 년 만에 또다시 일어난 전쟁으로 남·북베트남 간의 내전을 넘어 국제전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북위 17도선의 남쪽인 남베트남이 주된 전장이었고, 6·25전쟁과 달리 전선의 변화가 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른바 베트콩(Vietcong)의 게릴라 전술로 대표되는 비정규전뿐만 아니라 미국의 첨단 무기와 막대한 군비가 투입된 현대전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전쟁에 한국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가 파병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선을 끌 만한 역사적 사실이다. 더불어 이것은 한국형 대외 군사원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셋째,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에 의해 전파된 한국의 태권도가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월남은 1975년 4월 공산화되면서 국가 자체가 사라지고,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현재의 베트남)이라는 통일된 국가가 탄생하였다. 1992년 한국·베트남이 새롭게 외교 관계를 체결하기 전까지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전쟁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들과 사제관계로 맺어진 월남의 인적 네트워크와 현지에 뿌리내린 태권도는 국가 차원의 단교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연결 고리가 이어

3) 주요 통계자료는 국기원 홈페이지(<https://www.kukkiwon.or.kr>)를 참조 바람.

지고 있었다. 이것은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의 활동과 역할을 국가의 외교 관계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의 초대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이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어 있고,⁴⁾ 총을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태권도 교관으로 파병되어 월남의 한국 교민들을 보호하다 전사한 최범섭 중령(추서 계급)이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월한국군 태권도와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에 관한 연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⁵⁾

이처럼 태권도 현대사에서 태권도 해외 진출의 출발점, 현대전쟁에 참여한 전통 무도로서 태권도, 한국의 첫 대외 군사원조,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태권도교관단과 베트남 수련생들과의 인연, 월남전에서 태권도의 놀라운 활약 등은 우리가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태권도에 대한 양적, 질적 측면의 많은 연구성과 속에서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1만여 건에 가까운 태권도 관련 자료 중에서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에 대한 학술논문(기고문 포함)은 단 2건에 불과하다.⁶⁾ 한국군대의 태권도에 관한 논문에서 일부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의 역사를 살펴보는 연구까지 포함해도 10여 편을 넘기 힘들다.⁷⁾

월남전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에 관한 연구의 의미가 충분함에도 이처럼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료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1973년 1월 체결된 파리평화협정으로 주월한국군이 월남에서 철군한 지 2023년으로 만 50년이 지났지만, 연구자들의

4)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에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을 헌액(獻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 헌액된 인물 중에서 군대 태권도와 관계되는 인물로는 채명신 이외에도 최흥희, 남태희가 있다.

5) 한국군 중에서 월남전 당시 무공훈장을 받은 인원은 총 23,000명이지만,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는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이다. 최용호 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7), 45쪽.

6) 2023년 6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에서 ‘태권도’를 키워드로 소장자료를 검색하면 9,841건이 확인된다. 이중 도서 1,182권, 학위논문 4,334건, 잡지와 학술지 64건, 신문 37건, 기사 3,583건, 멀티미디어 205건 등이다. 국회도서관(<https://www.nanet.go.kr>)도 9,902건이 확인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 발간된 태권도 관련 자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자료 중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에 관한 학술논문 및 기고문 2건은 다음과 같다.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국기원 태권도연구』 제8권 제4호(2017); 이용기, “태권도교관단 월남 파병의 역사적 의의,” 『통일로』 제173호(2003).

7) 월남전과 군대 태권도에 관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성원,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서울: 상아기획, 2007); 신성민, 『군 태권도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상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전흥수, 『군 태권도 활성화 방안』(한국체대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석규, 『군 태권도 개선 방안 연구』(한국체대 석사학위 논문, 1995); 최점현, “군 태권도 발전과정 고찰,” 『육군』 제271호(2004), 90~93쪽; 하태은, “광복이후 군 태권도의 발전사연구,” 『육군제3사관학교 논문집』 제49호(1999), 699~726쪽 등이다.

자료 접근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자료의 정리를 통해 연구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는 노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러한 활동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것은 비단 태권도교관단뿐만 아니라 국내의 부족한 월남전 연구 현실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남전 이후 만들어진 태권도교관단의 모임인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전무회(이하 ‘전무회(戰武會)’로 표기)’에서 자체로 통사(通史)를 편찬해 월남전 태권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⁸⁾ 이것은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으로, 참전자 본인들의 시각에서 정리된 것이라 학문적 논의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들은 1차적으로는 태권도교관 또는 교관단의 개인적 역사로 볼 수 있겠지만, 주월 태권도교관단이 지니는 태권도 현대사와 월남전 연구 차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활동과 이들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한 자료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연구의 의미 또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는 태권도교관단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한 자료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 부분은 교관단의 월남 파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태권도교관단이 월남에 파병되게 된 배경과 과정, 현지에서 태권도 보급과정, 전쟁터에서 태권도교관단의 역할과 기여, 월남에 태권도 정착을 위한 협회 창설 및 태권도 대회 개최 등을 다룬다. 그뿐만 아니라 교관단이 파병되기 이전의 한국과 월남 관계, 교관단 파병 이전 한국 태권도의 월남 진출 과정, 교관단 파병 당시 국내 군대 태권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에 대한 검토와 평가이다.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도복, 문서, 책자, 기념패, 감사장, 사진 등 227건이다. 이 중 사진이

8)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서울: 제일, 1996).

186건에 달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증자료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 자료의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등록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 연구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에 대한 기존연구의 공백을 채우고, 기증자료의 내용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실상의 첫 번째 시도로서, 1960~70년대 월남전에서 활약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비록 제한된 수준이지만 입체적인 조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발굴도 함께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한국과 월남의 관계에서 태권도의 역할, 월남전에 태권도교관단이 파병되는 과정, 월남에 한국의 태권도를 전파했던 활동 등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대체로 문헌 자료와 함께 기존에 채록된 참전 교관들의 구술자료,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 자료, 그리고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 및 활용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자료이다. 문헌 자료는 시기적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군대 태권도와 관련된 자료 및 주월 태권도교관단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월남전 관련 자료와 태권도교관단 활동자료,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하여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월남전 당시 태권도 관련 자료로는 태권도교관단의 파병 배경과 과정, 월남에서 교관단의 배치지역과 태권도 보급 활동, 한국군 주둔부대의 태권도 교육 사항, 태권도 교육 인원, 승단 심사 자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 자료, 태권도 교관들의 구술자료 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이밖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월남전 연구자료들은 한국군 파병의 일부로서 태권도교관단의 위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나아가 태권도교관단만의 독보적인 활동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참전 교관들의 구술자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집과 이 연구의 필자가 과거 개별적으로 면담했던 태권도 교관들의 구술자료가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01~2003년 기간 중 『증언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총 3권)을 발간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제4권도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이 중에는 참전 교관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참전 교관들에 대한 구술자료는 2017년 총 4명에 대해 진행되었고, 별도의 자료집이 발간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로,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월남전 태권도 관련 자

료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주로 사진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 자료는 정부 공보처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진에 관해 촬영 시기, 장소,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화질도 양호한 상태이다. 이 밖에 국가기록원에는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 등의 자료도 있지만, 월남전과 직접적인 관계는 낮은 자료들이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운영하는 e-영상역사관(www.ehistory.go.kr)에는 월남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특히 월남전 당시 제작된 ‘대한뉴스’ 자료 중 ‘월남 소식’ 편은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활약상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로서 태권도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동영상 자료로서 당시 태권도 겨루기나 품새 등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당시에 촬영한 다양한 사진 자료도 태권도 역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이다.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된 태권도교관단 자료 227건은 이 연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살펴보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기증자료에 대해 각각의 상태와 특징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227건의 자료는 종류별로 사진, 도복(띠 포함), 기념패, 메달, 책자, 소책자, 문서류, 훈장, 훈장증, 감사장, 자격증 등이며 양적으로는 사진이 18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책자, 소책자 등의 문서류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기증자료에 대한 확인과정에서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류와 비교하고, 국내 박물관의 태권도 관련 유물 현황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상의 문헌 자료, 구술자료, 국가기록원 등의 사진 자료,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등을 토대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 및 전쟁기념관의 학예연구관 등을 통해 문화재 등록의 대상과 절차, 월남전 태권도와 관련된 유사한 문화재 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 현황 등을 참고하여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3. ‘월남전’ 명칭 사용 관련

1964년 7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었던 국군의 해외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한국군이 파병되었던 국가는 인도차이나 지역의 월남(越南)

이었고, 정식 국호는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이었다. 당시 월남은 1954년 7월 21일 제네바 협정을 통해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고, 17도선의 북쪽 지역, 즉 북베트남의 정식 국호는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에 대해 남베트남은 ‘월남’, 북베트남은 ‘월맹(越盟)’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 밖에도 ‘자유월남’, ‘공산 월남’, ‘베트남’ 등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한국군이 파병되었던 전쟁의 명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군이 파병되었던 전쟁에 대해 국내에서는 ‘월남전’ 또는 ‘베트남전쟁’으로 부르고 있다.

전쟁의 명칭은 때론 통일되기도 하지만, 국가마다 각각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이를테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을 현재는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으로 통일되어 부르고 있지만,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일부에서는 ‘6·25사변’, ‘6·25동란’으로 부르기도 한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중국은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으로 부른다.

월남전 또한 베트남전쟁, 인도차이나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항미전쟁’, ‘항미통일전쟁’으로 부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월남전(越南戰)과 베트남전(Vietnam戰)을 각각 수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⁹⁾ 결국, 어떤 용어를 쓰든 같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각종 논문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이 전쟁을 지칭할 때는 ‘베트남전쟁(Vietnam War)’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에서 제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에서도 세계사 분야에서는 ‘월남전’이란 용어 대신 ‘베트남전’이 사용되고 있다.¹⁰⁾

그러나, 국내에서 ‘월남전’이라는 명칭은 여러 곳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참전유공자법)”에서는 ‘월남전’, ‘월남전쟁’의 명칭을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정의에서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법 제18조의 2에서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2023.6.6).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월남-전(越南戰) 「명사」 『정치』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벌인 전쟁.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군 및 이들을 지원하는 미국군과 싸워 이겨 1969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미군 철수 후 1975년에 남베트남 정부가 무너짐으로써 남북이 통일되었다. =베트남 전쟁.”

10)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II』(서울: 교육부, 2023), 192쪽.

의 설립'을 다루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언급하고 "월남전참전자회"로 쓰고 있다.

월남전 명칭 사용과 관련된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월남전 당시 주요 기구나 단체 등의 고유 명칭을 지칭할 때는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써주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남베트남, 베트남 등으로 변경할 때 오는 혼란과 번거로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주월 한국대사관 등과 같은 것은 용어를 사용할 당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남, 월남전, 주월 등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베트남, 베트남전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4.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이 보고서는 총 6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에 관한 사항, ②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현황과 평가, ③문화재 등록에 관한 현황과 이들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방안에 관한 부분이다. 각 장별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이 연구의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의미,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월남전' 용어 사용에 관해 기술하였다.

제2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군 태권도의 월남 진출 배경과 태권도교관단의 파병 과정, 월남 현지에서의 태권도 보급과정, 한국 태권도의 월남 안착을 위한 노력, 크메르군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제3장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 현황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전체 기증자료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227건 개별 기증자료의 사진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증자료 전체의 가치를 한국 태권도의 해외 진출사를 입증하는 측면, 전쟁에 참가한 군사원조 모델로서 태권도 유물, 현재의 한·베트남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자료, 한국군 해외파병과 태권도 교육의 지속 측면 등으로 살펴보고, 기증자료 중 주요한 10가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 추진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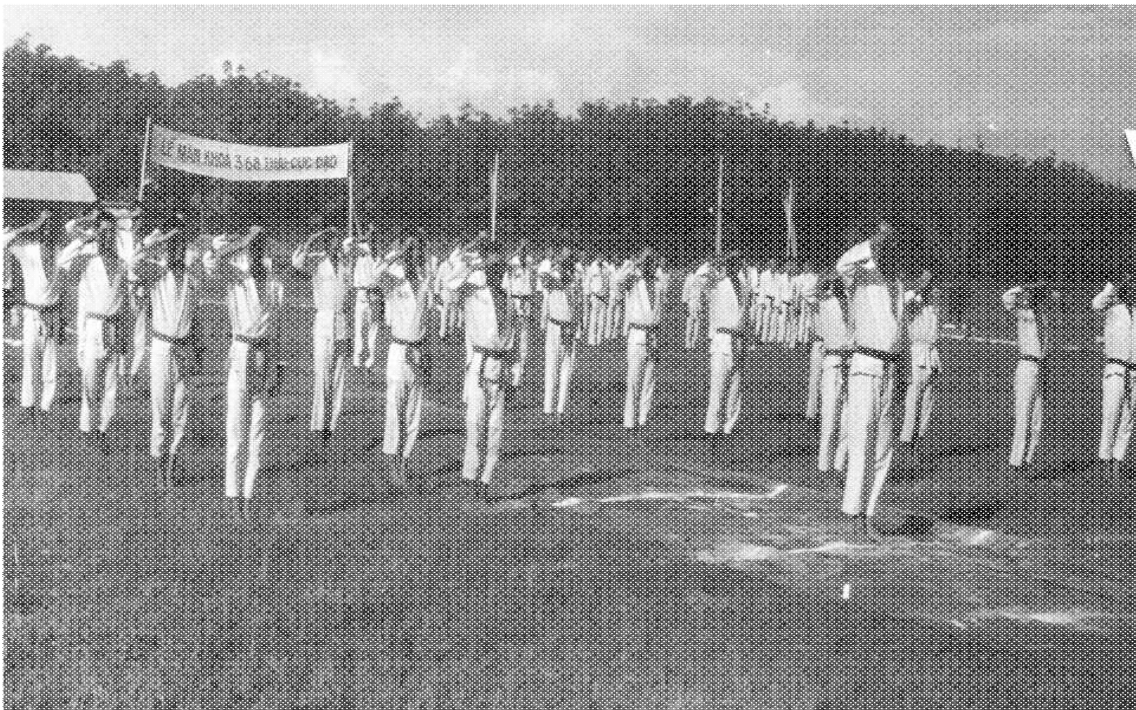
문화재 종류와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를 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가능한 추진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6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주요 연구 결과와 향후 태권도교관단 연구에서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부록 편에는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연표형식으로 정리한 내용과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한국군 태권도 교관 명단을 수록하였다.

제2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



제2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

1. 한국군 태권도의 월남 진출 배경

1) 한국과 월남의 관계, 그리고 태권도

한국과 월남은 1956년 5월 23일 국교를 수립하고, 1958년 3월 1일 대사관을 개설하였다.¹¹⁾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간의 지리적 거리는 있었지만, 양국은 식민지 경험과 분단된 현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치 상황, 그리고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57년과 1958년에 있었던 두 나라 대통령의 상호방문이었다. 1957년 9월 18일 월남의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ệm)¹²⁾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다음 해인 1958년 11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하였다.¹³⁾ 1875년생인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했을 때에는 8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 당시 언론은 월남 대통령이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탄 비행기 내부까지 들어와 노(老) 대통령을 환영했다고 보도하고 있다.¹⁴⁾ 이후 양국의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나가며 더욱 밀접해졌다.

한국군 태권도가 월남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1957년 지엠 대통령의 방한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는 한국군의 월남전 1차 파병이 시작되는 1964년 9월 교관단의 형태로 파견이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2차례의 월남 진출이 있었다. 한국군 태권도와 월남과의 '인연'이 바로 1957년 지엠 대통령의 한국방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한 지엠 대통령의 4박 5일간 일정 중 특히 1957년 9월 20일 일정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지엠 대통령은 한국군 장성들과 월남군 육군 참모총장이 수행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한국군 부대를 시찰하였다. 경기도 연천에 주둔하던 제6군단 예하 제8사단에서 합동 화력 시범을 참관하고,

11) 외교부, 『2015 세계각국편람』(서울: 외교부, 2015), 149쪽.

12) 당시 국내에서는 지엠 대통령을 '고·딘·디엠' 이라고 표기하고 약칭 '고' 대통령이라고 썼다. 그러나 베트남 대통령 이름의 한국어 표기는 '응오 딘 지엠'이다. 베트남어 'Đ'와 'D'는 한글 'ㄷ'과 'ㅌ'으로 표기한다.

13) 애초 이 대통령은 1958년 11월 5일 미 해군의 특별기편으로 한국을 떠났지만, 항공기 엔진의 결함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착륙 후 다시 출발하면서 사이공에는 11월 6일 도착하였다. 이후 11월 7일 자정 무렵 사이공에서 출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14) 『조선일보』, 1958년 11월 7일.

제26사단에서 보병중대의 장비와 편성을 살펴본 뒤, 중부 전선에 있는 586OP(관측소)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지켜보았다.¹⁵⁾



<사진 1> 월남 지엠 대통령의 제6군단 사열 모습(『동아일보』, 1957년 9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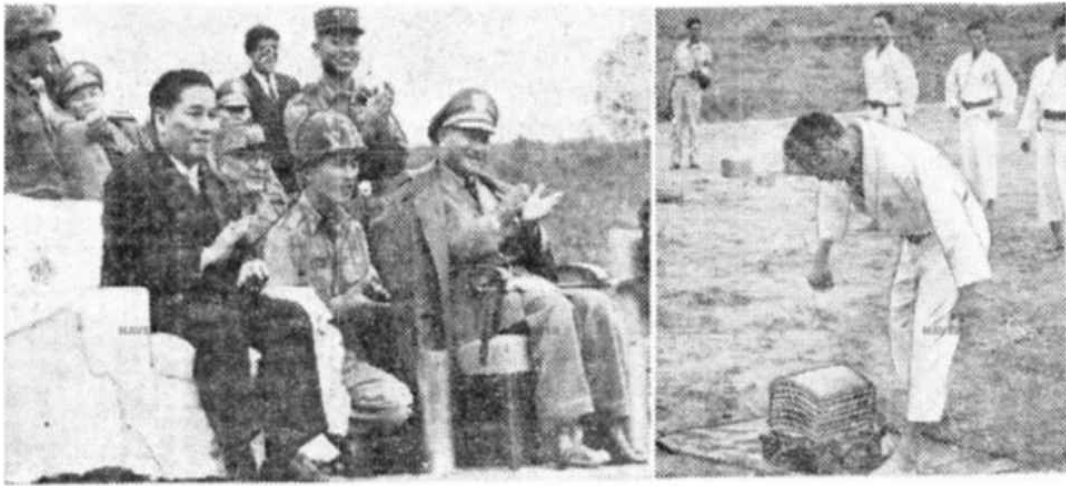
<사진 2> 전방 관측소를 시찰 중인 지엠 대통령¹⁶⁾

이후 지엠 대통령은 한국군 제631포병대대 연병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지켜보았다. 당시 신문에서는 지엠 대통령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벽돌과 기왓장 10매를 단숨에 깨고 10센치 가량의 나무판자 2매를 손꼬락으로 깨는 당수 시범을 눈여겨보고 있던 고 대통령은 당수 대원을 불러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보며 노상 신기로워하는 표정이었다”.¹⁷⁾ 이날 지엠에게 한국군의 태권도 시범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후일 한국군 태권도의 월남 진출로 이어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15) 『동아일보』, 1957년 9월 21일; 『경향신문』, 1957년 9월 21일.

16) e-영상역사관-대통령기록영상(1958) “월남 대통령 방한(8분 38초)”(<https://www.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2308&mediadtl=9178&gbn=DT&quality=M>, 검색일 2023.6.24).

17) 『경향신문』, 1957년 9월 21일.



사진=六軍단사병들의당수(廳手) 시범을관람하는「고」대통령과당수시범장경(李安純記者攝影)

<사진 3> 태권도 시범을 보는 지엠 대통령과 시범 모습 (『경향신문』, 1957년 9월 21일)



<사진 4> 지엠 대통령의 태권도 시범 관람 모습¹⁸⁾

18) e-영상역사관-대통령기록영상(1958) “월남 대통령 방한(8분 38초)”(<https://www.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2308&mediadtl=9178&gbn=DT&quality=M>, 검색일 2023.6.24).

2) 1959년 태권도 시범단과 1962년 태권도교관단의 월남 파견

1957년 지엠 대통령의 방한 이후 1958년 11월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하였다. 당시 대통령의 방문 수행단에는 국방부장관 김정열, 연합참모본부총장 유재홍 등 군 관련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월남 측과 군사 협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대통령 귀국 이후 실무 차원의 구체적 논의로 이어졌다.¹⁹⁾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 이후 약 3개월여 뒤인 1959년 2월 한국군 ‘당수도’ 선수들의 월남 방문계획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육군 당수도 선수 20명이 월남 국방성의 요청으로 현지 월남 국군장병들에게 당수도를 훈련시키게 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당시 육군본부 최홍희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태권도 ‘선수 장병’들이 3월 4일 파견되어 1~2주일가량 월남에 체류하면서 당수도 시범과 월남군에 대한 훈련을 담당한다는 것이다.²⁰⁾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선수단 명단도 보도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선수단 현황을 보면 단장에는 최홍희(육군 소장), 감독 김홍걸(육군 대령), 섭외 김영을(육군 중령), 주무정 준(문관), 지휘 남태희(육군 대위), 연무(演武) 선수 고대천, 우종립, 백균기, 김단호, 백근식, 김동만, 차찬교, 이음삼, 이하석(이상 육군), 윤승걸(해군), 김복남, 김순택, 이용균(이상 공군), 김개용, 하수용(이상 해병)이었다.²¹⁾ 이들 중 상당수는 이후 태권도교관단 소속으로 다시 월남을 찾게 된다.

발표 당시에는 이들이 1~2주일 정도 월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지에서 월남 대통령의 요청으로 체류 기간은 1개월로 연장되었다.²²⁾

19) 『경향신문』, 1958년 11월 5일.

20) 『경향신문』, 1959년 2월 25일; 『동아일보』, 1959년 2월 26일. 이 발표 내용을 보면 태권도 시범단의 방문이 월남 국방성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당시까지 태권도의 명칭이 제정(통일)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수도로 불리고 있었다.

21) 『동아일보』, 1959년 2월 26일.

22) 『동아일보』, 1959년 3월 14일. 이들은 월남 전역을 비행기로 이동하며 하루 평균 2~3회 시범을 보였다.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879쪽.



<사진 5> 1959년 월남에 파견되었던 태권도 시범단 모습(출처: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진 6> 월남을 방문한 태권도 시범단



<사진 7> 지엠 대통령과 최홍희 단장

1959년 태권도 선수단의 월남 방문은 현지에서 한국 태권도에 대한 강인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였다. 당시 월남 측은 한국군의 태권도 시범 모습을 촬영해 교육영화로 활용하였고, 태권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자는 여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또다시 월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태권도의 보급과 한·월 양국의 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육군 소령 남태희 등 4명의 교관이 1962년 12월 23일부터 1년간 월남 육군보병 학교에서 활동하였다.²³⁾ 이들은 1년간 체류한 뒤 1963년 12월 귀국하였다.

1959년 태권도 시범단과 1962년부터 1년간 태권도교관 4명의 월남 방문이 순수하게 태권도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후 1964년부터 파견되는 태권도교관단의 성격은 조금은 변화하였다. 월남에 태권도를 전수한다는 목적은 같았지만,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참전’

23)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상)』(서울: 국방부, 1978), 191쪽.

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군대의 참전이었던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었고, 태권도교관단 이외에 의료부대의 파병도 함께 진행되었다. 1차 파병부대에 태권도교관단이 포함된 것은 이전에 태권도를 월남에 보급한 성과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의 태권도 파견이 단기적인 시범과 교육이었다면 1964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참전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3) 태권도의 군대 보급과 성장 과정

태권도교관단은 1964년 9월 1차로 파병되었다. 이보다 앞선 1962년 월남에 파견된 태권도교관을 첫 번째로 치면 두 번째 파견인 셈이었다. 여기서 한국군 파병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당시 한국군 내부의 태권도 보급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960년대 월남에 교관단을 파견할 만큼 한국군 내부에서는 태권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월남 파병 직전 한국군 태권도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 직전 10만 명 수준이었던 한국군은 1953년 휴전 이후 6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²⁴⁾ 병력 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던 한국군의 운영에는 제약을 주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경험과 경력을 지닌 많은 인제가 군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있었고, 태권도도 그러한 분야 중 하나였다.

이 무렵 한국군대 내에 태권도가 정착한 배경에는 최홍희(崔泓熙)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최홍희는 한국군의 역사에서 ‘태권도 사단’이라고 불렸던 제29사단의 초대 사단장이었고, 1955년 태권도 명칭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태권도(跆拳道)’라는 명칭을 제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²⁵⁾ 이처럼 1950~60년대 한국의 태권도뿐만 아니라 군대 태권도에서 최홍희의 영향력은 지대하였다.²⁶⁾



<사진 8> 최홍희와 그의 업적
(국립태권도박물관)

24) 백기인, 『건군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308쪽;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집』 (서울: 국방부, 1987), 327~330쪽.

25) 최홍희는 1955년 4월 11일 명칭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태권도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최홍희가 태권도의 창시자라거나 그가 명칭을 제정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6) 최홍희(崔泓熙)는 1918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났다. 1930년대 후반 일본 유학 중 가라데를 배웠으며, 광복 이후 군사영어반 과정을 거쳐 장교가 되었다. 1953년 11월 창설된 제29사단의 초대 사단장이었으며, 이후 제3관구사령관, 제6군단장을 거쳐 1961년 육군 소장으로 전역했다. 말레이시아 초대 대사

최흥희는 1953년 11월 26일 제주도에서 창설된 제29사단의 초대 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사단의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에 주력하였다.²⁷⁾ 1930~40년대 일본 유학 시절 당수도 배웠지만, 이후 태권도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던 최흥희는 제29사단의 부대 마크에도 한반도 그림 위에 사람의 주먹을 그려 넣으면서 이 사단이 ‘태권도 사단’이 되기를 희망하고, 태권도 보급에 주력하였다.²⁸⁾



<사진 9>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제29사단 발상탑(2021년 현지 촬영)



<사진 10> 발상탑 옆 안내문 (2021년 현지 촬영)

제주도에서 창설된 제29사단은 1954년 6월 당시 강원도 속초에 주둔하고 있던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²⁹⁾ 그리고 1954년 10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된다.³⁰⁾ 이날은 1군단 창설 4주년 기념일(1950.7.5. 창설)과 제29사단 창설 1주년(1953.11.26. 창설)의 중간쯤 되는 날짜로 엄밀하게 말하면 1군단과 29사단 창설기념일 행사가 공동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이날 행사가 태권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태권도를 소개하고, 태

(1962-64)를 거쳐 제3대 대한태권도협회장(1965.1~1966.1)을 역임했다. 이후 1966년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설해 초대 총재가 되었고, 1972년 캐나다로 망명해 2002년 6월 캐나다에서 사망했다. 현재 그의 시신은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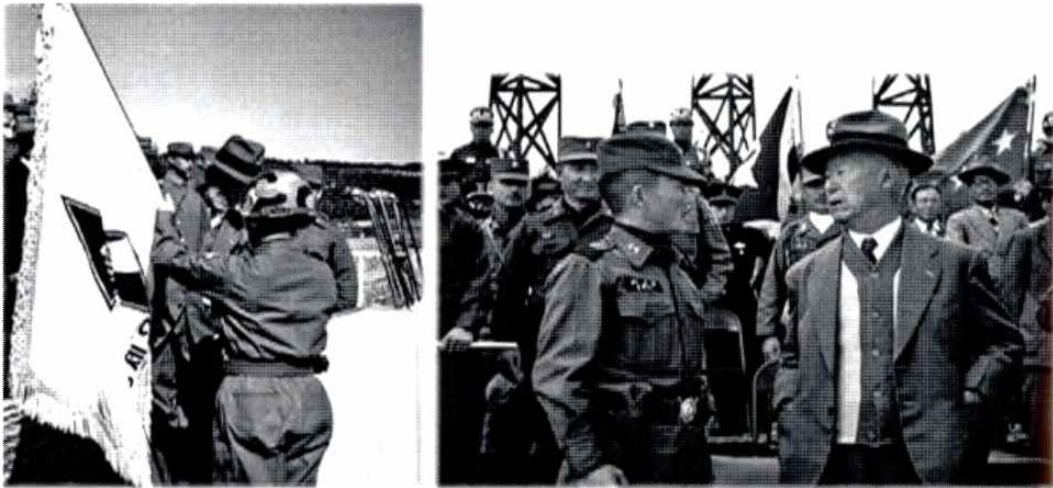
27) 제29사단은 1953년 11월 26일 국일명(육) 제439호에 의거 육군본부 직할로 제주 제1훈련소에서 창설되어 준비과정을 마친 뒤 1954년 6월 28일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강원도 인제, 김화, 경기도 포천으로 주둔지를 이동한 뒤 1958년 국일명(육) 제34호(1958.11.29)에 따라 제20사단의 해체와 더불어 사단 명칭을 제29사단에서 제20사단으로 개칭하였다.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1953-1962)』 (1970), 261쪽.

28) 그의 행적에 논란은 있으나, 2016년 태권도진흥재단은 최흥희의 태권도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그를 27명의 ‘태권도를 빛낸 인물’에 선정했다. 『태권도신문』, 2016년 4월 7일.

29) 1군단은 이곳에 1951년 12월 22일부터 1954년 11월 15일까지 주둔하였다.

30) 최흥희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날짜를 9월 중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최흥희, 『태권도와 나』 1권(서울: 사람다움, 1997), 334쪽. 그러나 육군 1군단사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술되어 있다. 제1군단사령부, 『부대사 제1집』 (1981), 146쪽.

권도 시범을 본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라는 이름을 ‘하사(下賜)’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 시범을 본 이 대통령은 ‘저것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던 택견이야’라는 말을 하며 ‘택견이 좋아. 이것을 전군에 가르쳐야 해’라고 했다는 것이다.³¹⁾ 최홍희는 이승만 대통령의 ‘택견’이라는 말에 착안하여 이전까지 당수도라 불리던 무술의 이름을 ‘택견’의 유사한 한자 발음인 ‘태권도(跆拳道)’로 명명했다고 한다.³²⁾



<사진 11> 대통령으로부터 사단기를 받는 최홍희(좌측), 이승만 대통령과 최홍희(우측)

이후 최홍희의 제29사단은 1954년 11월 7일 당시 강원도 인제에 주둔하던 제3군단에 배속되어 1956년 5월 22일 제5군단으로 배속 전환될 때까지 약 19개월 동안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 주둔하였다.³³⁾ 제29사단이 용대리에 주둔했던 기간은 최홍희와 군대 태권도에서 중요한 시기였다.³⁴⁾ 그것은 최홍희가 군에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최홍희는 인제군 용대리에 군 태권도 보급의 중심지이자 향후 본인이 창설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출발점이라고 자평하는 오도관(吾道館)을 설치 운영하였다. 최홍희의 오도관은 당시 국내 9개 도장 가운데 하나로서, 이곳에서 군 태권도 교관들을 양성한 뒤 전군에 파견 보내는 방식으로 군대 내 태권도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³⁵⁾

31) 최홍희, 『태권도와 나』 1권, 334~335쪽.

32) 이후 최홍희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跆拳道)’라는 휘호를 받고, 1955년 4월 11일 별도의 ‘태권도 명칭제정위원회’를 개최해 ‘태권도’라는 명칭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자가 아닌 한글로 ‘택견’이라고 쓰려고 했다고도 한다. 최홍희, 『태권도와 나』 1권, 347쪽. 그러나 최홍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33) 제3군단사령부, 『산악군단 30년사』(1985), 39~40쪽.

34) 제29사단이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에 주둔한 기간은 총 19개월이지만, 최홍희는 1955년 6월 23일 석주암 소장에게 사단장직을 인계하면서 약 7개월 정도 인제에 머물렀다.

35) 최홍희는 오도관에서 양성한 태권도교관들을 7사단, 9사단 등으로 보내 군 태권도 사범으로 활용하였다. 최홍희, 『태권도와 나』 1권, 338~339쪽

오도관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29사단이 주둔했던 용대리라고만 알려져 있다.³⁶⁾ 그 동안 오도관의 위치를 찾기 위한 시도들이 일부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현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³⁷⁾ 그러나 오도관이 군대 태권도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그 위치와 관련 자료에 대한 발굴과 보존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사진 12> 인제군 용대리에 있던 육군 부대가 이전하고 난 빈 모습. 오도관이 있었던 지역일 수 있다(2017년 촬영).



<사진 13> 1960년 7월 31일 오도관 정기 승단심사 사진(출처: 인터넷 자료)

월남 파견 태권도교관단의 단장이었던 백준기도 군대 태권도 보급에 이바지한 태권도계의 원로 중 한 명이다. 그는 1959년 육군본부 극장을 태권도 수련 중앙도장으로 활용해 매일 점심시간에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교육하기 시작했다. 백준기는 1959년 11월 육군본부 중앙도장을 정식 개관한 이후에는 육군본부 예하 부대에 ‘교육 지시’를 내려보내 태권도 교관 요원을 차출하고, 16주간 태권도 교육과정에 입교시켜 많은 지도요원을 배출하였다. 이들 지도요원들은 수료 후 자기 소속부대로 복귀해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³⁸⁾ 이보다 앞선 1959년 5월 육군은 교육각서 제350호를 통해 태권도를 군의 전형적인 무술로 정하고 각 부대에 태권도 교육대를 설치해 장병 체력 및 정신무장 강화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³⁹⁾ 이 밖에도 남태희, 엄운규 등 많은 태권도계의 원로들이 군대 내 태권도 보급에 힘을 쏟았다.

한국전쟁 이후 징병제 시행과 최흥희, 백준기 등 군 인사들의 태권도에 관한 관심으로 군대 내에 태권도는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공식적인 파병이 이루어지는 1964년 군내 태권도 유단자 현황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36) 최흥희, 『태권도와 나』 1권, 338~339쪽.

37) 필자 또한 오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인제지역을 답사한 바 있었다. 필자는 여러 증언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오도관은 현재 용대리에 주둔하고 있는 12사단 예하 연대본부(2017년 현재 연대본부는 용대리의 예하대대로 신축 이동하여 이 자리는 비어 있음)로 추정하고 있다.

38) 『태권도신문』, 2006년 10월 23일.

39) 이화춘, “군의 정신무장과 태권도,” 『육군』, 135호(1969), 6~11쪽.

를 총망라하여 총 1,413명에 달했다. 특히 사범으로 활용할 수 있는 3단 이상은 23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5단 이상은 17명이었다.⁴⁰⁾ 이에 대한 세부현황은 <표-1>의 ‘태수도’ 유단자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 1964년 7월 기준 군내 태수도 유단자 현황⁴¹⁾

(단위: 명)

단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5단 이상	13	1	3	-	17
3~4단	172	17	25	23	237
1~2단	793	66	171	129	1,159
계	978	84	199	152	1,413

* 출처 : 국방부 인사국, “정책자료(태수도 유단자 통계)”(1964.7.22).

40) 이후 한국군 태권도 유단자 수는 급증하는데, 1971년 3월 31일 기준 육군의 유단자 수는 6,32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이 중 5단 이상은 58명으로 1964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다.

41) 태수도라는 명칭은 태권도 명칭이 통일되기 이전에 태권도, 당수도 등을 합쳐 부른 이름으로 현 대한태권도협회의 초기 명칭도 ‘대한태수도협회’였다.

2. 태권도교관단의 본격적인 월남전 파병

1) 월남 측의 파병 요청과 국회의 동의안 처리

한국군의 건군 이후 첫 해외파병이었던 월남전은 의무부대와 태권도교관단의 파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9월 11일 130명의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태권도교관단이 부산항에서 선박으로 월남을 향해 출발하였다. 비록 140명이라는 작은 규모였지만, 1973년 3월 월남에서 철군하기까지 연인원 324,864명이라는 대병력의 파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태권도교관단을 포함한 1차 파병의 표면적인 진행 과정은 월남 정부의 공식 서한을 접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7월 15일 월남 칸(Nguyen Khan) 수상 명의의 지원요청 공한(公翰)이 한국 정부에 도착하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공한의 글자는 ‘월남이 처한 위험과 이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적시의 지원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⁴²⁾ 구체적인 지원부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간의 공한이 도착하기 전부터 한국과 월남 정부 간에는 내부적으로 파병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64년 5월 9일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자유우방 25개국에게 월남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1964년 5월 12일 국무총리 지시로 월남에 대한 비전투부대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월남주재 국방무관을 통해 구체적인 파병부대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5월 15일 회신된 내용에는 월남 측에서 군인 및 민간인 의료 요원과 태권도 지도 요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태권도 지도 요원에 대해서는 월남의 각 군단에 2~3명씩 배치해 태권도를 지도해 줄 것을 희망해왔다.⁴³⁾ 당시 월남은 북위 17도 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1, 2, 3, 4군단 순으로 4개의 군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단별 2~3명은 모두 8~12명의 태권도 지도 요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월남의 요청을 검토한 국방부는 민간 의료 요원 지원은 불가하고, 130명 규모의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지도 요원 1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지원 방안을 결정하였다.⁴⁴⁾ 한국 측의 태권도 지도 요원 파견 계획에 대해 월남 측에서도 한국군 태권도 교관 10명의 배치 활용계획을 알려왔다. 월남 측 계획은 당초와 달리 각 군단에 배치하는 것이

42) 공한의 전체 내용은 국방부,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1), 796쪽을 참조 바람.

43) 국방부, “월남지원에 관한 연구”(1964.5.21).

44) 국방부, “월남지원에 관한 연구”(1964.5.21).

아니라 3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달랏(Dal Lat)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와 투득(Tu Duc)에 위치한 종합예비사관학교에 각각 3명씩 6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은 사이공(Saigon)에 배치해 청년과 민간인을 지도한다는 잠정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⁴⁵⁾

국방부는 월남 측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국회는 1964년 7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다.⁴⁶⁾

2) 국내 부대편성 및 파병 준비과정

1964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무부대와 태권도교관단 월남 파병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파병부대 편성과 준비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태권도교관단 파병을 위해서는 10명의 교관을 선발하고, 파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회에 파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월남에 파견될 태권도교관단 선발 작업도 시작하였다. 10명의 태권도교관단은 단장인 영관장교 1명과 단원인 위관장교 9명으로 편성되었다. 이렇게 선발된 1차 교관단은 <표-2>와 같았다.

<표-2> 1차 태권도교관단 명단

직책	계급	성명	단급
단장	소령	백준기	7단
단원	대위	박양규	4단
	대위	곽주환	3단
	대위	추고일	3단
	대위	임경환	2단
	중위	이대희	3단
	중위	김봉규	3단
	중위	유형선	4단
	중위	김수련	3단
	중위	임승해	3단

* 출처 : 전사편찬위원회, 『과월한국군전사 1(상)』, 191쪽.

45) VNW-0712 주월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전문(1964.7.4).

46) 국회사무처, 제44회 국회 회의록 제13호(1964.7.31).

단장에는 육군 소령 백준기가 선발되었고, 대위와 중위의 교관 9명이 단원으로 선발되었다. 이들은 최하 2단에서 최고 7단의 실력자들이었다. 태권도교관단 단장이었던 백준기는 당시 교관 선발 과정에 대해 ‘각 부대에서 3단 이상의 사범 중에서 9명을 엄선하고, 단장은 전군의 6단 사범 전원을 대상으로 육군본부 처장급 장성 7명으로 구성된 단장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다.⁴⁷⁾

월남에 파병할 교관 단장과 교관 등 10명의 선발이 끝나자 본격적인 국내에서의 파병 교육이 시작되었다. 육군본부는 1964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파월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1차 교관단으로 선발되어 파병 교육까지 마쳤지만, 일부 사정으로 2차 교관으로 파병되었던 소○○에 따르면, 자신은 전방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육사에 근무하던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원하였다고 한다. 그는 1차 교관단은 육사에서 파병 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을 순회하며 태권도 시범도 보였는데, 이것은 월남에서 하게 될 태권도 시범의 사전 총연습의 성격이었다고 한다.⁴⁸⁾

이후 교관 선발과 국내 파병 전 교육은 변화를 보였다. 1965년 10월부터는 전투부대가 파병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다. 1967년 10월 파병되었던 박○○은 태권도 교관 선발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육군 무도부(부장 김종헌 장군, 화학감)에서 선발을 주관했으며, 선발된 교관들은 파병 전 3개월간 육군본부에서 자체 훈련을 거쳤다고 한다.⁴⁹⁾

한편, 병사로서 1966년 제3진 교관으로 가게 된 안영규(당시 상병)의 증언도 참고할 만하다. 그는 1966년 9월 29일 제21회 국제군인체육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을 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병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것을 계기로 육군본부 태권도 대표로 복무하였다고 한다.⁵⁰⁾ 이후 교관 확대를 위해 실력 있는 병사까지 지원 자격이 확대되자 교관으로 선발되어 1966년 11월 월남에 파병되었다. 파병 전에는 육군본부 체육관에서 파병 전 훈련을 하였다.

월남전 당시 태권도 교관의 월남 파병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1967년 국내 신문의 ‘독자 페이지’에는 태권도 유단자로 선발되어 월남에 갈 수 있는냐는 문의와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경북 상주에 사는 1949년생인 신동각은 태권도 3단으로 파월 교관에 대해 다섯 가지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병무국의 답변은 현역 복무 중이면서 태권도 3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47) 『태권도신문』, 2006년 11월 6일.

48) 소○○ 구술(2017.7.19). 소○○은 육사 재학 당시 청도관에서 나온 사범을 통해 태권도를 배웠고, 졸업할 때는 3단이였다.

49) 박○○ 구술(2017.8.4).

50)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4권』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22). 43~51쪽.

본인의 지원에 따라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일반인은 태권도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하지 않으니, 입대 후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⁵¹⁾

본격적인 태권도교관단 편성과 국내 파병 전 교육이 마무리되자 국방부는 1964년 8월 28일 지령 제2호를 하달하고, 1차로 파병되는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관단에 대한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증강된 1개 육군이동외과병원과 육군 태권도교관단으로 구성된 한국군사지원단을 파월하여 공산 침략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에 대한 의료지원과 태권도 지도를 한다.
2. 군사지원단은 주월 한국대사관 및 월남정부 그리고 파월 미군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3. 군사지원단은 주월 군사원조사령부(US MAC-V)로부터 지원받는다.
4. 군사지원단은 사이공에 도착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방부 지휘하에 두되 주월 한국대사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⁵²⁾

이상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제반 준비를 끝마친 태권도교관단은 이동외과병원과 함께 1964년 9월 11일에 해군수송선(LST)으로 부산항을 출항해 10여 일의 항해 끝에 9월 22일 사이공(Saigon, 현재의 호찌민시)에 도착하였다.⁵³⁾

51) 『조선일보』, 1967년 2월 12일.

52)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상)』(서울: 국방부, 1978), 191~192쪽.

53)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상)』, 192쪽.

3. 태권도교관단의 월남 현지 활동

1) 1차 태권도교관단의 월남 도착과 배치

사이공에 도착한 태권도교관단 10명은 하루 뒤인 9월 23일 환영 행사에 참여한 후 월남군 최고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3개 조로 편성되어 육사(달랏 Dal Lat 소재), 해사(냐짱 Nha Trang 소재, 당시 나트랑으로 불림), 육군보병학교(투득 Tu Duc 소재) 등 3곳의 교육기관에 각각 3명씩 배치되었다. 단장은 사이공에 위치하였다.

이후 2차 파병인 ‘한국 군사원조단(일명 비둘기부대)’이 도착한 이후에는 군사원조단에 소속되어 봉따우(Vung Tau)에 있는 유년사관학교에도 교관을 편성해 총 4개조가 되었다.⁵⁴⁾

태권도교관단은 당초 계획에서 일부 조정을 통해 5개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1차 태권도교관단 배치지역은 <표-3>과 같다. 지역별로는 투득(Tuc Duc), 사이공(Saigon), 냐짱(Nha Trang), 달랏(Dalat), 그리고 봉따우(Vung Tau)였다. 배치기관으로는 육군보병학교, 경찰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유년사관학교였다.⁵⁵⁾ 단장은 사이공지역에 위치하였다.

<표-3> 1차 태권도교관단 배치지역

직책	계급	단급	성명	배치기관	지역
단장	소령	7단	백준기	—	사이공
단원	대위	4단	박양규	육군보병학교	투득
	대위	3단	곽주환	경찰학교	사이공
	대위	3단	추고일		
	대위	2단	임경환		
	중위	3단	이대희	해군사관학교	냐짱
	중위	3단	김봉규		
	중위	4단	유형선	육군사관학교	달랏
	중위	3단	김수련		
	중위	3단	임승해	유년사관학교	봉따우

* 출처 :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상)』, 193쪽.

54) 백준기 단장은 월남에서 태권도의 인기에 대해 자신이 영화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이었던 유명 배우 신영균 씨 이상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880쪽.

55)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상)』,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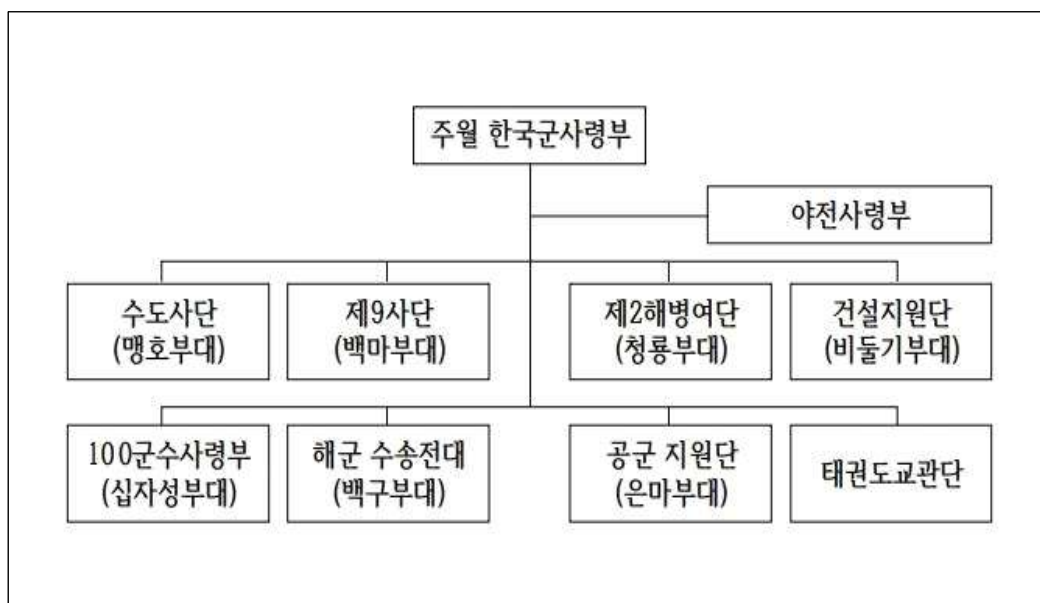
2) 지휘, 편성 및 임무

태권도교관단의 지휘관계는 최초 파병할 당시와 이후 전투부대가 파병되면서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변화를 겪는다. 1964년 9월 월남전에 처음 파병될 당시에는 함께 파병되었던 이동외과병원장의 지휘를 받았다. 당시 병원장은 육군 중령이었고, 태권도교관단장은 소령이었다. 규모도 병원은 130명으로 10명의 태권도교관단 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동외과병원장의 직속 상관은 한국의 합참의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지휘 관계의 의미는 크지 않았다.

이후 1965년 2월 한국군의 2차 파병이었던 비둘기부대가 ‘한국군사원조단(ROK-MAG : Military Assistance Group)’이라는 이름으로 월남에 파병되면서 태권도교관단은 이동외과병원과 함께 군사원조단장(비둘기부대장)의 지휘를 받았다. 당시 군사원조단은 육군 준장이 지휘하였다.

그리고 1965년 10월 수도사단과 해병 제2여단 등 전투부대가 파병되면서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통합·지휘하는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부터는 사령부 직할 태권도교관단으로 편성되어 사령관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되었다.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 부대의 지휘관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주월 한국군사령부와 태권도교관단의 지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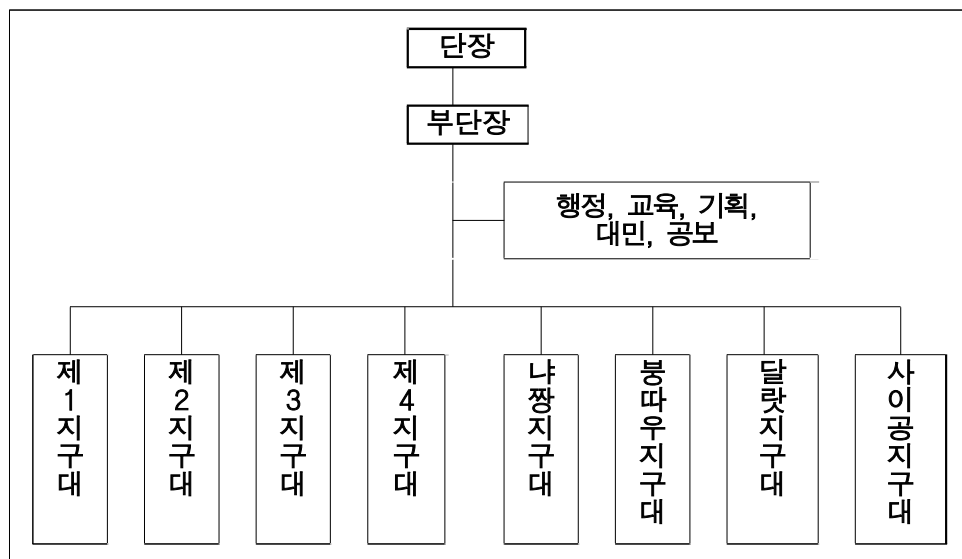


* 출처 :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4), 196쪽.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단장 예하에 부단장 및 참모부와 8개의 지구대로 편성되었다. 단장이 위치한 본부는 사이공에 있었는데, 파병 초기에는 월남군 전쟁정치국 건물을 사용하였고, 2차로 사이공 시내 민간 건물로 이전하였다가 전쟁 후반부에는 주월한국군사령부 건물을 사용하였다.⁵⁶⁾

예하 지구대 중 4개는 월남군의 4개 군단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4개 지구대는 나짱, 붕따우, 달랏, 사이공에 설치되었다. <그림-2>는 태권도교관단의 편성과 8개 지구대 현황을 나타낸다.

<그림-2>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편성 현황



* 출처 :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31쪽.

1964년 10명으로 편성되었던 태권도교관단은 1966년도부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교관단은 1966년 10월 주월 한국군사령부의 직할부대로 편성되면서 70명으로 증가하였다.⁵⁷⁾ 1964년 9월 1차 파병 당시 10명이었던 것에서 7배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증원이 이루어져 1968년부터는 116명이 활동하였고, 이후에도 인원이 계속 증가하여 평균 150~170명이 교관으로 활동하였다.⁵⁸⁾

태권도교관의 증가는 주월한국군사령부 소속의 태권도교관단 이외에도 각 예하 부대에서 태권도 교육대를 운영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 1965년 10월부터 수도사단, 해병 제2여단, 그리고 1966년 제9사단 등 전투부대가 파병되면서 태권도교관단과는 별도로

56) 박○○ 구술(2017.8.4).

57)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881~882쪽; 『동아일보』, 1966년 10월 19일.

58)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1969);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92~95쪽.

각 부대에서도 자체 태권도 교육대를 운영하였다.⁵⁹⁾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의 파병 규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존재한다. 하나는 <표-4>의 주월사 정리단에서 발행한 자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파병 교관단의 모임인 전무회에서 파악한 명단이다. 주월사 정리단에서는 1962년 파병자를 포함해 1973년 한국군이 월남에서 완전히 철군할 때까지 장교 400명, 사병 328명 등 총 728명이 파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⁰⁾



<사진 14> 사이공의 태권도교관단 본부 회의 모습
(출처: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1969))

반면, 전무회는 647명의 실제 파병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⁶¹⁾ 그러나 이것은 2회 파병된 경우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1회만 기록된 것이고, 일부 사병 출신 교관들의 명단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주월사에서 파악한 규모보다는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4> 주월 태권도교관단 교관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장교	4	-	10	10	40	60	59	59	59	59	12
사병	-	-	-	-	30	40	57	57	57	57	10
계	4	-	10	10	70	100	116	116	116	116	22

*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901쪽.

한편, <표-5>는 태권도교관단 이외에 수도사단, 제9사단, 해병 제2여단, 제100군수사령부, 건설지원단 등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 부대들에서 운영하였던 태권도교육대의 교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59)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882쪽.

60)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1079쪽.

61)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92~95쪽.

<표-5> 일반부대 태권도 교육대 교관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65	66	67	68	69	70	71	72
장 교	4	8	8	8	9	9	9	-
사 병	6	22	38	74	80	83	74	-
합 계	10	30	46	82	89	92	83	-

*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901쪽.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 이전인 1962년 파견된 태권도교관단부터 1973년 한국군이 월남에서 완전히 철군할 때까지 태권도교관단장은 총 10명이었다. <표-6>은 시기별 태권도교관단의 단장 현황을 보여준다.

<표-6> 역대 태권도교관단 단장 현황

구분	(당시)계급	성명	기간
파병 이전	소령	남태희	1962.12~1963.12
파병	소령	백준기	1964.9~1965.9
	소령	최동희	1965.9~1966.9
	중령	김석규	1966.10~1967.11
	대령	고재천	1967.11~1969.1
	중령	김봉식	1969.1~1970.7
	중령	정병길	1970.1~1971.8
	중령	김승규	1971.8~1972.8
	중령	유형선	1972.8~1973.1
	소령	홍금식	1973.1~1973.3

* 출처: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109쪽;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1969)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다섯 가지였는데, 월남에 태권도 보급과 월남 태권도협회와의 협력, 월남 내 외국인에 대한 태권도 지원, 주월한국군의 민사심리전 발전 등이었다. 세부적인 태권도교관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⁶²⁾

62)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30~31쪽.

1. 월남군 부대,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태권도를 교육하고 심사하며, 시범 또는 심사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월남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한다.
2. 월남 태권도 협회와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3. 주월 외국인에게 태권도에 관한 사항을 지원, 협조한다.
4. 태권도를 통하여 월남군, 관, 민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양국간의 유대강화와 주월 한국군의 대민 민사심리전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5. 주월한국군의 태권도에 대한 제반사항을 장악하고 현황을 유지한다.

3) 태권도교관단의 배치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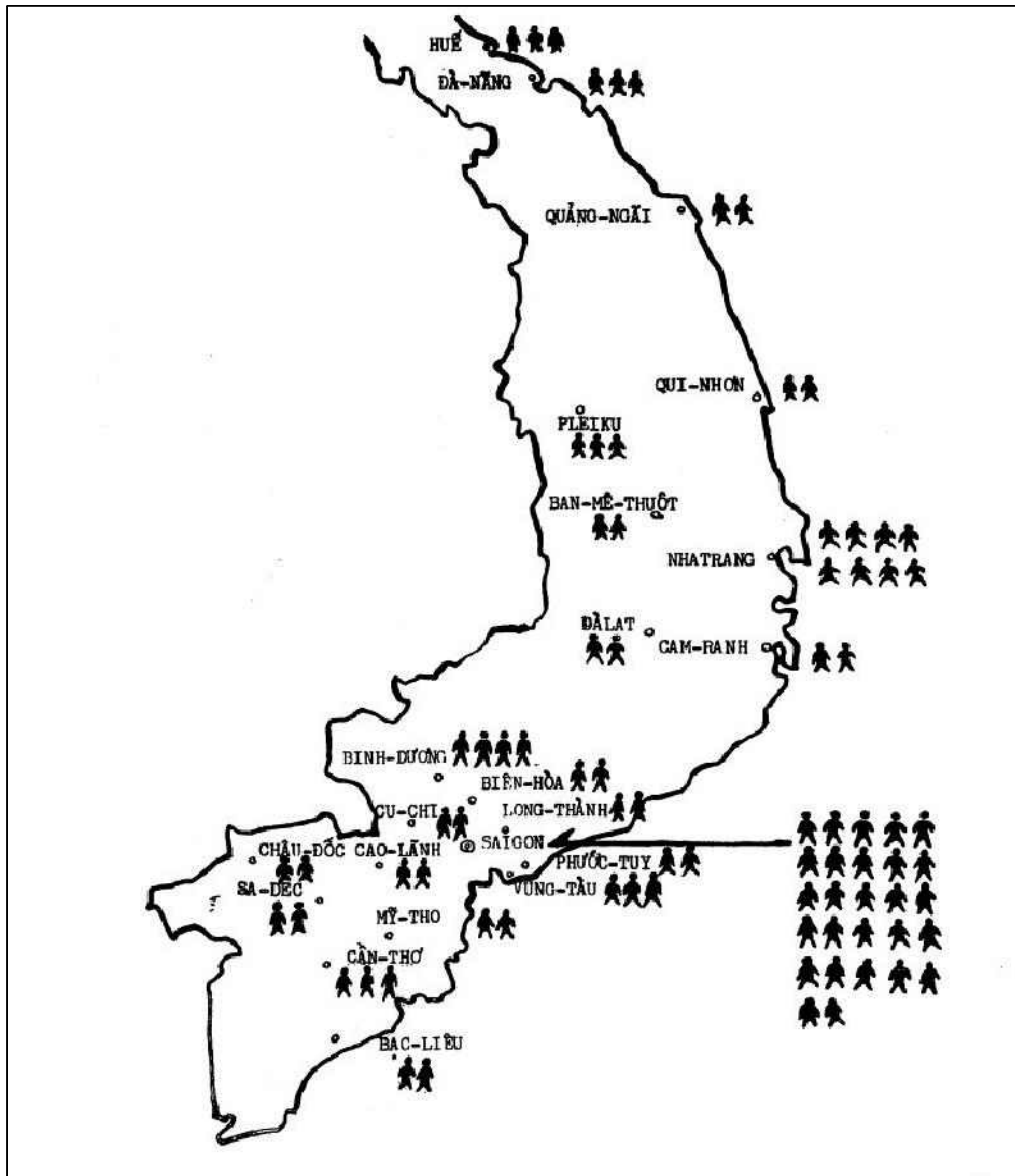
한국군 태권도 교관은 월남 전역에 배치되어 태권도 보급에 힘썼다. 1964년 10명이 파병되었을 당시에는 육사, 해사, 육군보병학교 등 3개 교육기관에 각각 3명씩 배치되었지만, 2차로 파병되었을 때에는 유년사관학교도 포함되어 4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교관의 증가와 태권도 교육 수요의 증가로 배치지역은 월남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배치지역은 월남군 각 군단사령부, 사단사령부, 유년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 통신학교, 헌병학교, 하사관학교, 신병훈련소, 심리전대, 민병대였다. 이뿐만 아니라 군대 이외에도 경찰, 월남정부와 국방의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경호연대, 경호실, 전쟁지도국, 총참모부, 연합사, 군사정보대 등에도 태권도교관이 파견되었다. <그림-3>은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 배치현황을 나타낸다.

월남 전 지역에 배치되었던 태권도 교관들은 파견된 지역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생존해야만 하였다. 연 5만 명의 한국군이 사이공을 비롯해 빈딘성, 푸옌성 등 일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태권도 교관처럼 월남 각 지역에 나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 교관들의 생활은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였다.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 나가 있는 주월 미군 군사고문단과 함께 생활하였다. 이들의 숙소를 함께 사용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이공의 교관단 본부와의 연락하였다. 월남군 부대와 가까운 곳에 한국군이 주둔하는 경우에는 한국군 시설도 함께 이용하였다.⁶³⁾

63) 소○○ 구술(2017.7.19); 전○○ 구술(2017.8.1); 박○○ 구술(2017.8.4).

<그림-3>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 분포도



* 출처 : 월남태권도협회·주월한국군태권도협회, 『월남의 태권도』 .

태권도 교관들은 보통 1일 8시간 동안 태권도를 지도했다. 월남 보병학교의 경우에는 각 예하 부대에서 선발된 체육장교와 하사관을 유단자로 양성해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였다. 이들이 1단 유단자가 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⁶⁴⁾ 수련생의 규모는 보통 200~300명이었으며, 육사의 경우에는 8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은 육사 생도 전원을 의미하는 것이자 태권도가 육사의 정식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

64)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1권』, 882쪽.

문이었다.⁶⁵⁾

지역별로 운영된 도장 규모는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였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67년 9월에는 70명의 교관이 월남 44개 지역에서 48,90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에 대해 6개월 과정으로 태권도를 진행하였다.⁶⁶⁾ 1968년 9월에는 월남 전역에 72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유단자 359명, 유급자 15,771명을 비롯해 총 10만 3,164명을 배출하거나 수련 중이었다.⁶⁷⁾ 1969년 9월에는 187개소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유단자 547명, 유급자 14,799명 등 모두 11만 7,800명을 배출하거나 수련 중이었다.⁶⁸⁾



<사진 15> 1967년 5월 30일 주둔지역에서
백마부대의 태권도 시범 모습

교관 인원은 제한되어, 모든 지역에 전담 교관이 배치되지는 못하고, 부족한 경우는 겸직으로 해결하였다.⁷¹⁾

월남 전역에서 운영되던 태권도장 규모에는 태권도교관단과 한국군 부대 자체 도장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예를 들어 1969년 1월 당시 월남의 149개 태권도장이 운영 중인데, 이중 87개는 태권도교관단, 62개는 부대 자체 운영 중인 도장이었다.⁶⁹⁾ 도장에는 통상 장교와 사병이 2명 1개 조로 파견되었다.⁷⁰⁾ 부대 자체 도장에는 부대원 중 태권도 실력이 뛰어나고 지도 경험이 있는 하사관이나 병사들이 교관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월남 측의 수요가 워낙 많았던데 반해

65)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국기원 태권도연구』 제8권 4호(2017), 54쪽.

66) 『동아일보』, 1967년 9월 26일.

67) 『경향신문』, 1968년 9월 23일.

68) 『동아일보』, 1969년 9월 23일.

69)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제1권』, 881~882쪽.

70) 『동아일보』, 1966년 10월 19일.

71) 당시 태권도교관단에서 파악한 교관 수요는 207명이었지만, 실제로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평균적으로 150~170명이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33~35쪽.

<표-7> 태권도교관단 지역 편성 및 태권도장 운용 현황

▲ 태권도교관단

연도 지역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지부 (다낭)	-	-	-	-	-	5	7	8	8	4	-
2지부 (플레이크)	-	-	-	-	-	4	6	7	7	4	-
3지부 (달랏)	-	-	1	1	1	3	4	4	4	3	-
4지부 (냐짱)	-	-	1	1	1	3	4	5	5	4	1
5지부 (비엔호아)	-	-	1	1	1	4	6	7	7	6	-
6지부 (껀터)	-	-	-	-	-	3	6	7	7	6	-
직할지부 (투득)	1	1	1	1	2	21	23	25	25	16	3
계	1	1	4	4	5	43	56	63	63	43	4

*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902쪽.

▲ 일반부대 교육대

연도 지역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수도사단	1	3	5	11	13	16	17	-
제9사단	-	3	5	11	13	16	17	-
해병 제2여단	1	2	3	5	6	5	-	-
제100군수사	1	3	5	6	6	5	1	-
건설지원단	-	-	-	1	1	1	1	-
해군수송전대	-	-	1	1	1	1	1	-
계	3	11	19	35	40	44	37	-

* 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902쪽.

한편, 주월 태권도교관단은 월남 현지에서 태권도 보급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개최된 국제 군인체육대회에 시범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1971년 11월 20일 태국에서 개최된 국제 군인체육대회(CISM)에 주월사 태권도교관단에서 김승규 단장을 비롯해 대위 이

영목, 중사 정태감, 병장 장을준, 병장 조재훈, 병장 박성천 등이 시범단으로 파견되어 한국군의 태권도를 선보였다.⁷²⁾

월남전에는 태권도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의 유도도 파견되었다. 1967년 9월 8명의 유도교관이 월남에 처음 파견된 이후 1972년까지 장교 28명, 사병 37명의 교관이 파견되었다. 1967~1972년 기간 동안 유도교관들은 월남의 사이공, 투득, 비엔호아, 붕파우, 달랏과 다낭에서 도장을 운영하면서 33,939명을 수련시키고 145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였다.⁷³⁾ 그러나 파견 교관의 숫자나 배치지역, 수련 및 유단자 배출 인원 등 모든 면에서 태권도의 성과와 비교하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월한국군 자료에 따르면, 1964년 파병 이후부터 1973년 철군할 때까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한 인원은 229,913명이었고, 2,916명의 유단자가 배출되었다. 또 351회의 태권도 시범을 통해 1,366,963명의 월남인이 태권도를 관람하였다.⁷⁴⁾ <표-8>은 월남전 기간 중 태권도교관단에서 연도별 수련한 인원과 유단자 등의 현황을 나타낸다.⁷⁵⁾

태권도 수련생들을 직업별로 보면, 군인이 127,614명으로 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민간인 41,865명(18%), 경찰 33,911명(15%), 학생 26,435명(11%), 크메르 군인 88명 순이었다.⁷⁶⁾

<표-8> 주월 태권도교관단 교육 인원

단위 : 명

연도 구분	62~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교관단	4	10	20	100	146	198	205	208	199	22
도 장	2	4	4	16	62	91	103	107	80	4
수련생	139	440	440	5,405	81,648	104,410	137,295	174,083	196,971	210,206
유단자	-	10	10	24	257	491	1,091	1,566	2,017	2,916

* 출처: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901~904쪽;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40쪽.

72)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160쪽

73) 『경향신문』, 1967년 8월 30일;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903쪽, 1080~1081쪽.

74)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1079~1080쪽.

75) 태권도교관단 이외에 한국군 각 부대별로 운영했던 태권도교육대에서의 수련 인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치는 이보다 증가할 것이다. 일반 한국군 부대에서 운영했던 태권도교육대에서 155,163명이 태권도를 수련하였다.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903쪽.

76) 주월사정리단, 『월남전 종합연구』, 903쪽.

4. 태권도의 월남 안착을 위한 노력

태권도교관단의 노력으로 월남인 수련생이 늘어나고, 그 결과 유단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월남인들이 스스로 태권도를 교육하고, 월남에 태권도가 안착할 수 있는 노력도 추진되었다. 한국 태권도를 월남 현지에 안착시키고 태권도를 한국과 월남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시행된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협회 창설과 경연대회 개최였다.

당시 창설된 태권도 관련 협회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주월 한국태권도협회’였고, 다른 하나는 ‘월남 태권도협회’였다. 이 두 협회의 공통점은 월남에서의 태권도 보급과 승단 심사 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차이점은 ‘주월 한국태권도협회’는 한국군 중심의 조직이고, ‘월남 태권도협회’는 월남인이 주축이었다는 점이다. 태권도 경연대회는 주월 한국군사령관 우승기 쟁탈대회를 개최하여 수련생들의 수준을 점검하고, 수련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태권도장을 건립해 월남 측에 이양하는 작업도 계속해서 시행하였다. 태권도장 건립은 한국군 공병부대가 주로 담당하여 월남인들이 지속해서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은 사업이었다.

1)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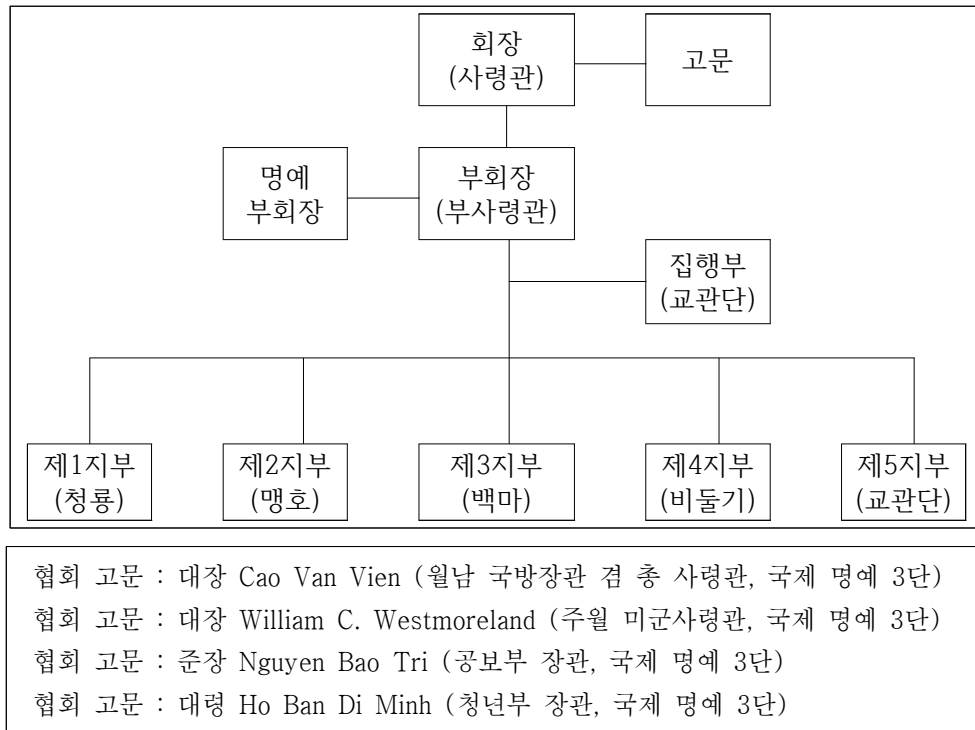
1967년 1월 8일 ‘주월 한국태권도협회(The Korea Tae Kwon Do Association In Vietnam)’가 월남에 설립되었다.⁷⁷⁾ 당시 조직체계는 회장과 부회장, 협회 고문, 그리고 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5개 지부로 구성되었다. 회장은 채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맡고, 부회장은 한국군 부사령관이 맡았다. 여기에 명예 부회장직을 설치해 월남의 전쟁정치 총국장을 위촉하였다.

협회 고문에는 월남주재 한국대사, 월남의 국방부장관, 공보부장관, 참모총장, 청년회장, 그리고 주월미군사령관을 추대해 한국·월남·주월 미군의 혼합된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또 당시 주둔했던 한국군별로 지부를 설치해 제1지부(청룡), 제2지부(맹호), 제3지부(백마), 제4지부(비둘기부대), 제5지부(교관단) 등으로 편성하였다.⁷⁸⁾

77) 『조선일보』, 1967년 1월 20일.

78)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41쪽;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1969).

<그림-4>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조직도



*출처: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41쪽;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 (1969).



<사진 16>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발족 및 래로이 태권도장 개관식 모습(1967.1.8)

2) 월남 태권도협회

주월 한국태권도협회가 설립되기 1년여 전인 1965년 10월 ‘월남 태권도협회 (Vietnam Tae Kwon Do Federation)’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월남인들 스스로 태권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전무회가 발행한 ‘통사’에 따르면 협회의 발족은 백준기 태권도교관단장이 월남 체육학교장에게 권유해 시작되었다. 백준기 단장은 월남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급과 자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당시 체육학교장인 팜반꾸(Pham Van Cu) 중령에게 협회 발족을 권유했고, 백준기 단장이 월남 고위층과 접촉하며 노력한 결과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의 협회 창설 승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협회장에는 체육학교장이 맡고 민간



<사진 17> 월남 태권도협회 마크

도장의 관장을 임원진으로 구성하여 월남 태권도의 조직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한 기구가 출범하였다. 백준기 단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태권도가 월남에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⁷⁹⁾

<표-9> 초대 월남 태권도협회 임원진 현황

직책	성명	비고
회장	Pham Van Cu	체육학교 교장(중령, 4단)
부회장	Vuong Minh Quang	소령
	Nguyen Van Binh	오도관장
임원	Nguyen Muoj Nho	청도관장
	Nguyen Long Van	종합체육관장
	Dang Huy Duc	화랑관
	Dang Thong Phong	송무관장
	Tran Van Rang	래로이 관장
	Nguyen Van Dao	비룡관장
	Le Khac Hoang	-
	Le Van Chau	-

* 출처 :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28쪽; 주월 한국태권도협회·월남 태권도협회, 『월남의 태권도』 (1967).

* 참고 : 임원의 숫자는 표의 내용보다 증가할 수 있음.

79)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28쪽.

월남 태권도협회가 창설되면서 기존에 한국군이 담당하던 태권도 승단 심사를 협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모든 심사는 아니었고, 유급 및 1, 2단 심사권을 월남 측에 이양하여 월남인들 스스로가 태권도 수련생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한국 국제태권도협회는 주월한국군 사령관 명의로 유급 및 유단자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⁸⁰⁾

월남 태권도협회가 설립된 이후 국내 태권도협회와의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1967년 11월 2일 월남 태권도협회 소속 태권도사절단 10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월남 태권도협회 부회장인 ‘봉민광’ 소령 일행은 국내에 체류 기간 중 각 도장을 순회하며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들은 11월 11일 자유센터에서 국내 태권도관계자를 초청하여 리셉션을 가진 후 시범경기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당시 최흥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참여해 월남 태권도사절단에게 공인 단증을 수여하며 태권도를 통한 양국의 유대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월남 태권도관계자들은 자신들이 태권도 유단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욱 친한(親韓)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⁸¹⁾ 이후에도 매년 월남정부, 군 고위층의 자녀들이 포함된 월남 태권도 어린이 방한단을 구성하여 한국 태권도 관련 주요 인사를 방문하고 산업 시찰, 관광 그리고 한국 어린이 태권도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갖는 등 한·월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⁸²⁾

3) 주월 한국군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경연대회

태권도협회의 창설과 함께 월남 현지에서 태권도 경연대회도 개최하였다. 태권도 경연대회는 월남 각 군단 및 지역별로 태권도에 대한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전’으로 명명한 대회는 연 1회 개최되었고, 각 지역 도장에서 수련하던 월남인 수련생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었다.⁸³⁾

또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 선발을 위한 예선전의 성격으로 각 사단장 또는 부대장기 쟁탈 태권도 대회도 개최하였다. 예를 들면 수도사단이 주둔하던 빈딘(Binh Dinh)성 지역의 경우 ‘수도사단장기 월남인 태권도 경연대회’가 개최되었고, 이것은 주

80) 주월사정리단, 『월남전종합연구』, 898쪽

81)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41쪽; 『경향신문』, 1967년 11월 1일; 『조선일보』, 1967년 11월 12일.

82)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41쪽.

83) 주월사정리단, 『월남전종합연구』, 898쪽

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의 예선전 성격이었다.⁸⁴⁾

한국군은 주월한국군 사령관 또는 각 사단장기 쟁탈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며 수련생들의 수준 향상과 수련의 동기를 촉진하였다. 월남의 태권도 수련생들을 한국에 초청해 태권도를 견학시키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며 한·월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갔다.⁸⁵⁾

4) 태권도장 건립과 월남 측 이양

태권도장 건립과 이양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공에 건립된 래로이(Le Loi) 태권도장이다. 1966년 10월 한국군 공병부대가 3개월의 공사 끝에 완공한 이 도장은 1967년 1월 월남 측에 이양되었다.⁸⁶⁾ ‘래로이’는 1428년 중국으로부터 월남 독립을 되찾고, 새 왕조를 열었던 장군인데, 월남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의 이름을 태권도장의 이름으로 명명한 것이었다. 한국군은 이 도장을 건설해 이양하면서 동시에 주월 한국태권도협회의 창립행사도 함께 개최하였다.



<사진 18> 래로이 태권도장 개관식 모습(외관)
(출처 : 대한뉴스 제608호(1967.2.4))



<사진 19>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발족
및 래로이 태권도장 이양식

1971년 1월 14일에는 월남 대통령 경호실 전용 태권도장 이양식도 있었다. 주월한국군사령부가 5백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한 태권도장 이양식에서 이세호 사령관은 대통령 경호실장인 반 중장으로부터 ‘태권도는 하나의 신앙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었소’라는 말을 듣고 태권도 보급의 성과를 실감하였다.⁸⁷⁾

84) 수도사단은 제3회 ‘사단장기 월남인 태권도 경연대회’를 1970년 10월 16일 개최하였다.

85) 『동아일보』, 1967년 11월 1일, 1968년 7월 9일, 1970년 6월 16일, 1970년 6월 27일, 1970년 6월 27일.

86) 대한뉴스 제608호- 월남소식(1967.2.4).

1971년 월남에는 태권도협회에 등록한 인원만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태권도 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3단 유단자가 21명, 2단 165명, 초단 1,500명에 이르렀고, 월남 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체계도 안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승단 심사 등에서 자치권을 요구할 만큼 발전하였다. 월남군은 태권도를 하나의 병과로 채택하고 전군에 보급을 서두르고 있었다. 월남 태권도협회장인 반랑 중령은 ‘태권도를 익힌 단위 부대의 전투 성과는 월등히 좋다’고 평가할 정도였다.⁸⁸⁾

이 같은 월남에서의 태권도 확산 속에서 태권도장을 건립하여 월남 측에 이양하는 것은 월남에 태권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사항이었다. 특히 이것은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월남 태권도의 자립을 위해서 중요하였다.

태권도의 월남 이양에 대한 사항은 전쟁이 후반기로 가고, 한국군의 철군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197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월남주재 외국군의 철군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른바 ‘월남인들에 의한 월남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군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태권도 교육을 월남 측에 점진적으로 이양하기 시작하였다.⁸⁹⁾

87) 『조선일보』, 1971년 1월 30일.

88) 『조선일보』, 1971년 1월 30일.

89) 수도사단 민사처, “태권도 이양식 계획”(1971.11.4); 수도사단 민사처, “태권도 교육 이양(지시)”(1971.10.30.). 수도사단의 경우에는 1966년부터 사단 태권도교관단에 의해서 실시해 온 태권도 교육을 1971년 11월 6일부로 궤년체육관에서 이양식을 하고 월남 측에 이양하였다.

5. 크메르 군대에 대한 지원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은 월남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태권도 보급은 월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크메르 공화국(현재의 캄보디아 지역)에도 이어졌다.⁹⁰⁾ 크메르는 1970년 3월 18일 국왕을 폐위시키고, 같은 해 10월 1일 크메르 공화국(Khmer Republic)을 세우면서 국방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0년 9월 크메르 국방성의 훈련국장이 주월한국군을 방문해 태권도 시범을 참관하고 교관 파견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게 되었다.⁹¹⁾ 그 결과 한국 정부는 ‘민간 체육교류’ 형식으로 1971년 국내의 장교 2명을 파견해 태권도를 교육하였다.⁹²⁾

그러나 이후에는 한국 교관의 파견이 아니라 크메르 군인들을 월남에 주둔하던 한국 군에서 수탁(受託)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 교육은 1971년 7월 주월 크메르군 연락장교단장이 주월한국군사령부에 크메르군에 대한 태권도 교육을 위해 한국군 교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비군사지원’이란 한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생들이 주월한국군에 와서 교육을 받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⁹³⁾

<표-10> 크메르군 태권도 훈련지원 현황

과정	기간	계획	실시	명예 초단	2급	3급	4급	5급	6급
1기	1971.7.12~12.13(24주)	30	30	(3)	14	16	—	—	—
2기	1972.3.27~6.17(12주)	30	30	—	—	—	—	4	26
3기	1972.7.31~10.21(12주)	30	28	—	—	—	—	5	23
계		90	88	(3)	14	16	—	9	49

* 출처 : 주월사정리단, 『월남전종합연구』, 1082쪽.

90) 크메르 공화국은 1970년 10월 1일 현재의 캄보디아 지역에 세워진 공화국이다. 1970년 3월 국왕인 시아누크를 폐위시키고, 그해 10월 론 놀을 대통령에 취임시키며 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상황의 혼란과 공산군의 공격으로 1975년 4월 사라지고, 크메르루주의 민주 캄푸치아가 세워졌다.

91) 외교부, “동남아2과-한국의 대 캄보디아 군사훈련 지원(1970),” 『대한민국외교사료 해제집 VI』 (서울: 외교부, 2012).

92) 합동참모대학, “고문단안(태권도단 포함)”(1971).

93) 주월한국군사령부, “태권도훈련지원-주월사령관이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문건”(1971.6.4).

크메르 군대에 대한 교육은 총 3개 기수 88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1기 교육은 1971년 7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주간 실시되었다. 교육시간의 57%는 태권도였고, 나머지는 전술학과 화기학 등 다른 군사과목으로 이루어졌다.⁹⁴⁾ 크메르군 교육생 1기 30명은 나짱(Nha Trang)에 있던 주월한국군 제100군수사령부 예하의 제2군수관리단에서 교육을 받았다. 한국군은 별도 교육대를 설치해 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숙식을 제공하였다.⁹⁵⁾ 2기, 3기에 대한 교육은 12주간 운영되었고, 교육인원은 각각 30명과 28명이었다. 각 기수별 교육 기간 및 태권도 수련 후 유단, 유급자 현황은 <표-10>과 같다.



<사진 20> 1971년 10월 30일 김종필 국무총리 월남 방문 시 태권도 시범 관람 모습. 뒷배경에 왼쪽부터 크메르기, 태극기, 월남국기가 보인다.(출처 : 국가기록원)



<사진 21> 크메르군 태권도교육에 관한 국내 신문기사(『경향신문』, 1971년 9월 5일)

94) 주월사, “우방군 훈련지원계획”(1971.6.3).

95) 주월사, “태권도훈련지원-주월사령관이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문건”(1971.6.4); 『경향신문』, 1971년 9월 5일.

6.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평가

1) 한국 태권도 현대사 측면 : 조직적, 집단적 해외 진출의 시작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태권도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 주도하에 한국 태권도가 해외로 진출한 사실상의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이다. 1950~60년대 국내에서는 태권도의 초보적인 체계가 갖춰져 가는 시기였지만, 한국군 태권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월남에 진출하였다. 당시 태권도가 외국과의 교류 및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시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단기간 진출한 경우는 있었지만, 월남전 때와 같이 장기간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진출한 경험은 가져보지 못했었다.

한국군 태권도 교관들은 1962년과 1964~1973년까지 약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월남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기간에 월남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인구는 20여만 명이고, 유단자 2,916명, 유급자 63,402명이 양성되었다. 이들이 월남에 설립한 월남 태권도협회,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등은 한국 태권도의 월남 보급과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월 태권도교관단은 태권도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해외 진출의 시초이자 시작으로서 1960~70년도 태권도의 부흥과 조직적인 체계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태권도 세계 진출의 선봉에 섰던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국내에서는 한국군 태권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한국과 한국군 태권도의 해외 진출 역사 또한 간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채명신 (전)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태권도의 본격적인 세계화는 월남전’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⁹⁶⁾ 즉, 월남전을 계기로 태권도는 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거쳐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 세계화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교관들은 그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1969년 3월 5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해외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은 총 19개국 169명이었다.⁹⁷⁾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 태권도가 세계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

96) 『태권도신문』, 2008년 9월 25일.

97) 『경향신문』, 1969년 3월 7일. 국가별 태권도교관 파견 현황은 미국 36명, 독일 8명, 이탈리아 3명, 캐나다 2명, 인도네시아 3명, 말레이시아 5명, 월남 74명, 홍콩 5명, 싱가포르 5명, 태국 9명, 콜롬비아 2명, 자유중국 5명, 인도 2명, 터키 2명, 네덜란드 1명, 스페인 2명, 영국 2명, 브라질 2명, 아르헨티나 1명이었다.

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장 많은 교관이 파견된 국가는 월남으로 74명이었고, 이것은 두 번째로 많았던 미국의 36명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당시 월남이 한국 태권도의 해외 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태권도가 해외로 보급되는 과정에서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들의 역할을 단적으로 보는 주는 것이다.

현재도 한국군 태권도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군은 유엔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태권도는 민사작전의 수단으로서 주민 친화와 한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⁹⁸⁾ 한국군 태권도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가 개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도 참가하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⁹⁹⁾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활약은 전쟁 이후 한국군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태권도 교관이 월남전 동안 월남의 군인과 민간인, 그리고 주월 미군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쳤고, 월남전 이후에는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면서 태권도의 국제적 도약을 이끄는 데 이바지하였다.¹⁰⁰⁾

오늘날 태권도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수련하는 세계인의 태권도로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 등 많은 태권도인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월남의 전쟁터에서 태권도를 전파했던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역할 또한 태권도 세계화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태권도 현대사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2) 전쟁사 측면 : 현대전쟁에 참전한 한국 전통의 무도¹⁰¹⁾

전쟁사 측면에서 태권도교관단은 월남전이라는 현대전쟁에 한국 전통 무도의 참전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월남전은 게릴라전이라는 비정규전과 미국의 첨단 무기가

98) 『태권도신문』, 2006년 12월 18일; 『국방일보』, 2017년 7월 20일.

99) 1948년 2월 18일 프랑스에서 창설된 CISM에 한국은 1957년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00)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국기원 태권도연구』 제8권 4호 (2017), 67쪽.

101) 이 부분은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58~59쪽의 내용을 참조, 요약 인용하였음.

총집결한 정규전이 복합적으로 전개된 전쟁이었다. 이러한 전쟁의 성격을 간파한 한국군은 파병 초기에는 군사작전의 비중을 70%로 삼았지만, 1967년 이후부터는 민사심리전의 비중을 확대해 군사작전과 민사심리전의 비중을 각각 50%로 똑같이 전개하였다.¹⁰²⁾ 이런 전장 상황에서 한국군의 태권도는 총이나 칼 같은 무기는 아니었지만, 무도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태권도교관단의 역할은 민사작전, 심리전, 군사원조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민사작전 측면에서 태권도는 월남인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군사적으로 민사(民事, Civil Affairs)는 ‘군부대가 점령 또는 주둔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민간당국 및 주민 간의 관계에 필요한 군사활동’을 의미하고, 민사작전(民事作戰)은 ‘민사부대가 민군작전과 정부 행정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¹⁰³⁾ 월남인들에 대한 태권도 교육은 민사작전 측면에서 한국과 한국군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켰고, 한국군 작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태권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월남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실제 작전의 성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를 통한 첩보 수집 효과였다. 태권도를 통해 형성된 교관과 수련생 간의 관계는 전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첩보 수집으로 이어졌고, 태권도교관단은 <표-11>과 같이 총 3,225건의 첩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¹⁰⁴⁾ 이러한 기능은 태권도교관단이 비록 소수이기는 했지만, 월남 전역에 이른바 ‘점조직’처럼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강점이기도 하였다.

<표-11> 태권도교관단이 수련생들로부터 획득한 첩보 현황

연도 구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계
적 활동	7	—	9	13	39	88	113	132	111	97	61	670
작전 및 전과	2	—	10	17	24	93	190	230	124	133	118	941
중요 인사동향	1	—	3	7	15	23	39	43	36	61	28	256
낙탄	8	—	9	16	50	73	89	90	80	29	34	478
기타	10	—	35	40	55	80	165	150	129	166	50	880
합계	28	—	66	93	183	357	596	645	480	486	291	3,225

* 출처 : 주월사정리단, 『월남전종합연구』, 904쪽.

102)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868쪽.

103)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128쪽.

104)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897쪽.

다음으로, 월남전의 심리전 측면에서 태권도는 큰 효과를 보였다. 총 같은 무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만큼 상대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한국군 태권도는 월남 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에서 총 351회의 시범을 보였다. 이러한 시범은 월남인들에게 태권도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론 태권도의 강인함을 적에게 ‘공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태권도 시범을 보는 관중 속에 숨어있던 베트콩들에게 한국군의 강인함과 이를 통한 공포감을 유발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효과는 월남에서 노획한 북한군 문서에서 직접 확인된다. 1968년 5월 한국군 제9사단(백마부대) 작전에서 월남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북한군 심리전 부대의 문서가 노획되었다. 이 문서 중에는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포로로 획득하는 데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한국군 태권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제기하고 있다.¹⁰⁵⁾ 당시 베트콩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은 태권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맞아 죽는다는 말들이 유포되고 있었다. 그 내용 중에는 베트콩 중대장이 토로한 심정으로 “그 놈들(한국군을 지칭)은 ‘가라데’를 하기 때문에 생포하기 위하여 접근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꽝아이’ 주(州)에서는 포로를 잡아 전투장을 이탈하여 후송하다가 그놈이 당수로 우리 후송 병사의 옆구리에 타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갈빗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총살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푸옌’ 주에서는 남조선피뢰군 병사 1명을 포로하여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던 중 (중략) 이 포로를 후송하다가 당수 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즉각 총살하고 후퇴하였다고 합니다.(이하 생략)”라는 것이다.¹⁰⁶⁾ 이에 대해 북한군 심리전 부대는 베트콩에게 ‘당수’를 가르치며 태권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였다.¹⁰⁷⁾

끝으로 태권도교관단이 보여준 전장의 자국민 보호 임무였다. 한국군 태권도는 월남에 진출해 있던 최대 2만 명에 가까운 한국 교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태권도 교관들에게 이 임무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이러한 교민 보호 임무의 대표적 사례로 최범섭 중령(추서 계급)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최범섭 소령은 월남 남부 메콩강 부근의 켄터(Can Tho)에 위치한 월남군 제4군단의 태권도 지구대장이었다. 그는 1968년 1월 베트콩의 이른바 구정 공세 당시 이 지역에서 취입 활동 중이던 교민 40명을 월남군과 협조해 보호하고, 추가 인원을 보호하던 중 베트콩과 백병전 끝에 전사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최범섭 소령의 전공을 높이 치하하여 최고 등급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중령으로 추서하였다.¹⁰⁸⁾ 이러

105) 1967년 7월 20일 북한군 사업총화보고서(1968년 5월 30일 노획문서).

106) 1967년 7월 20일 북한군 사업총화보고서(1968년 5월 30일 노획문서).

107) 주월사, “월남전과 북괴의 심리전 활동”(1968), 22쪽.

108)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55쪽; 『동아일보』, 1968년 2월 9일.

한 교민 보호 임무는 구정 공세 당시 채명신 사령관의 지시로 전개된 ‘무궁화 작전’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었다.¹⁰⁹⁾ 이처럼 태권도교관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월남 전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강점을 살려 현지에 진출한 한국 민간인들의 보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월남전 기간 태권도 교관들은 한국의 고유무도를 8년 이상 상대국에 주둔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급하였다. 태권도의 보급대상도 군인을 포함해 경찰, 민간인, 학생 등 그 범위가 대단히 폭넓었다. 지금까지의 세계역사에서 한 나라가 자국의 무도를 전쟁터에 파병한 경우나, 전쟁 시기 다른 나라에 군사원조 차원에서 무도를 보급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 나아가 한국군 교관들은 월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크메르 공화국에까지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한국군 태권도가 월남과 크메르를 지원하면서 반공정신 함양을 강조한 것은 과거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와 유사한 측면도 있었다. 이 점에서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의 월남 보급은 한국형 군사원조의 시초이자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9) 『동아일보』, 1968년 2월 13일.

제3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 현황



제3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현황

1. 기증자료의 현황과 특징

(전)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한 태권도 자료는 총 227건이다. 각 자료를 형태별로 보면 도복류, 책자 및 문서류, 기념패와 상장류, 사진류,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을 각 종류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사진, 태권도 도복과 띠, 기념패와 메달, 책자, 팸플릿 등의 문서류, 훈장, 훈장증, 감사장, 자격증, 그리고 태권도교관단 전체 활동상을 엮은 사진집 등 다양하다. 각각의 기증자료의 종류와 수량을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표-12>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현황

구분	사진	태권도복 /띠	기념패/ 메달	책자, 팸플릿, 문서류	훈장(증), 감사장, 자격증	사진집	계
수량(건)	186	4	11	21	4	1	227
비율(%)	81.9	1.8	4.8	9.2	1.8	0.5	100

기증자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사진이 186건(81.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어서 책자, 팸플릿 등의 문서류가 21건(9.2%)이다. 그 밖에 기념패와 메달이 11건(4.8%)을 차지하고, 태권도 도복과 띠가 4건, 훈장, 감사장, 자격증이 4건을 차지하고, 사진집이 1건이다.

기증자료는 주제와 내용, 발행 또는 제작 시기, 자료의 출처 및 내용에 따라 주요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기증자료의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공식적 기록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들로는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의 팸플릿과 사진,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기념 태권도 시범대회 팸플릿과 사진, 월남 태권도협회와 주월 한국태권도협회에서 발행한 자료집, 월남에서 개최된 태권도 대회와 관련된 규정, 우방국 군인에 대한 태권도 교육 자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어 교재, 도복류 등이 있다.

둘째, 태권도 교관 개인적 차원의 활동 사항에 관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들로는 교관들이 받았던 기념패와 메달류, 엄수방의 봉따우 유년사관학교 교관 시절 사진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감사장, 증명서, 기념패 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한국 태권도 일반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로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하지만, 한국 태권도와 관련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던 책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기증자료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의 태권도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발행(또는 제작) 시기가 전쟁 이후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96년 전무회 단체 설립 20주년 기념패, 채명신 사령관 4주기 추도대회 안내책자 등은 월남전 이후의 자료에 속한다. 그 밖에 『대한민국 태권도 오천년사』, 『수박도대감』, 『정통태권도교범』 등의 책자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은 자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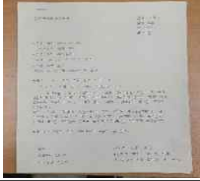
기증자료의 출처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료도 혼재되어 있다. 특히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는 사진 자료의 경우에는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확인이 제한되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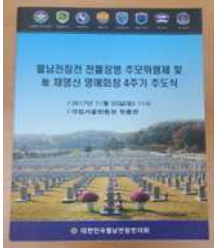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기증자료의 현황은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순으로 정리하였다.
- 순번은 태권도진흥재단(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제시한 자료의 순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추가로 제공된 태권도교관단 사진집은 227번으로 등록하였다.
- 대표 이미지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제공해준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 명칭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제공해 준 내용을 참고하되 역사적 사실일 경우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 특징 부분에는 자료의 개괄적인 특징을 기술하였으며, 기증자료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10건의 자료와 186건의 사진자료에 대한 평가는 제4장에 세부내용을 기술하였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		주월 태권도 교관단 도복	주월 한국 태권도교관이었던 유시황이 착용했던 태권도 도복이다. 총 3점(상의, 하의, 띠)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2		태권도복	왼쪽 가슴에 대한민국 국기가 박음질 되어있고, 오른쪽 가슴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엠블럼이 박음질 되어있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3		태권도복 띠	‘주이란 한국교관단장’, ‘7단 김수련’이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는 검은색 도복 띠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4		태권도복	허리춤 부분이 고무줄이 아닌 끈을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태권도복이다. 천은 하얀색이며 별다른 로고는 없다.
5		기념패	태권도교관단장 김석규 중령 외 81명의 교관이 1967년 12월 유시황 교관의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축하하며 수여한 기념패이다.
6		월남 태권도 간행물	1967년 월남 태권도협회가 발행한 ‘월남의 태권도’라는 제호(題號)의 간행물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7		제3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탈태권도시 합 팸플릿	1968년 개최된 제3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팸플릿(Pamphlet)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8		창설2주년 기념 태권도시범 팸플릿	주월 한국군 사령부 창설 제2주년 기념 태권도 시범 행사의 팸플릿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9		제1회 군사령관 우승기쟁탈 태권도 시합 팸플릿	제1회 주월한국군 사령관 우승기쟁탈 태권도 시합의 팸플릿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10		감사장	1971년 6월 붕파우 유년사관학교장이 엄수방 교관(상사)에게 수여한 감사장이다. 전교생 1,500명의 태권도 교육에 대한 감사의 내용 이 담겨 있다.
11		우방군 교육 특집 간행물	주월한국군 제100군수사 제2군수지원단에서 1972년 3월 27일~6월 17일까지 실시한 크 메르군 훈련을 기념하여 발간한 간행물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12		우방군 교육 특집 간행물	주월한국군 제100군수사 제2군수지원단에서 1972년 7월 31~10월 21일까지 실시한 크메 르군 훈련을 기념하여 발간한 간행물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13		1등 교육 훈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마지막 단장인 홍금식 소령이 월남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이 다.
14		훈장관련 문서	국문과 베트남어로 적힌 문서가 함께 첩되어 있는 문서로 홍금식 소령이 수여 받은 1등 교육 훈장과 관련된 문서이다
15		문서	월남 대통령이 태권도교관 4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문서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16		초청장	1972년 3월 개최된 제6회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 초청장으로 국문과 베트남어로 각각 적혀 있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7		태권도 용어집	국문, 영문, 베트남어로 구성된 태권도 용어집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18		규정집	주월한국군사령부의 태권도 경기대회에 관한 규정(국문본)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19		전무회 창립 20주년 기념패	(前)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들의 모임인 '전무회'(戰武會)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 6월 13일 제작한 기념패이다. 금속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로 23.8cm, 세로 18cm, 두께 1.6cm이다. 동일한 기념패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도 보존되어 있다.
20		주월 한국군 사령부 기념품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의 최고 지휘부였던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제작한 기념품이다. 가운데 주월한국군사령부 마크가 있고, 원형으로 '주월한국군사령부'라는 글자가 한글과 영문으로 새겨져 있다.
21		기념패	엄수방 교관의 태권도 제자들이 제작하여 전달한 기념패이다. 당시 많이 사용되던 기념패 모양이며, 월남 지도를 중심으로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내용을 기재한 철판이 있다.
22		바리아, 봉따우성 태권도 협회기념패	바리아 봉따우성 태권도협회가 제작한 기념패이다. (발행일자 확인이 필요하나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23		한국 프로 태권도협회 제2대 회장 취임 기념 메달	한국 프로태권도협회 제2대 회장 이일성의 이름이 기재된 취임 기념 메달이다. 한국 프로태권도협회는 1980년 설립되었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24		기념패	태권도교관 박영달이 월남군으로부터 받은 기념패이다. 당시 보편적인 형태의 기념패였으며, 방패 모양의 판에 태극기와 월남기, 월남군 부대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25		기념패	태권도교관 박영달이 받은 기념패이다. 당시 보편적인 형태의 기념패였으며, 방패 모양의 판에 태극기와 월남기, 월남군 부대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박영달은 월남군 특수부대와 제18사단에 파견되었다.
26		주월 태권도 교관단 기념패	주월 태권도교관단장 김봉식 중령이 박영달 대위에게 전달한 기념패이다.
27		주월 태권도 교관단 기념패	주월 태권도교관단장 김봉식 중령이 엄수방 상사에게 전달한 기념패이다.
28		사진	최흥희 국제 태권도협회장이 주월 태권도교관단을 방문해 찍은 기념사진이다.
29		리플릿	2017년 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 전몰 장병 추모 위령제 및 채명신 명예회장 4주기 추도식 안내 책자이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물은 아니다.
30		정통 태권도 교범	최영의(崔永宜)가 지은 『정통 태권도 교범』으로 초판은 1969년 출간되었으나, 이것은 1971년 출간본으로 보인다. 제목과 달리 가라데 교본이라는 평가가 있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물은 아니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31		대한민국 태권도 오천년사	2008년 상아기획에서 출간한 최점현 저서 『대한민국 태권도 오천년사』이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물은 아니다.
32		수박도 대감	무덕관을 설립한 황기가 저술한 『수박도 대감』이다. 이 책은 1970년 양장본으로 출간된 바 있으며, 이 책자는 1989년 재판으로 보인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물은 아니다.
33		주월 한국 태권도 교관단 통사	1996년 1월 발간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이다. 표지와 13개 장 189쪽 분량이다. 도서출판 제일에서 기획하고,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에서 발간하였다.
34		사진	채명신 주월한국군 사령관이 월남군 제3군단장(추정)과 찍은 사진이다.
35		사진	주월한국군 창설 제5주년 기념 태권도 시범 후 촬영한 사진이다.
36		Tae Kwon Do new training method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이 영문으로 제작한 태권도 수련 계획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37		월남 태권도협회 소개문서	베트남어로 된 월남 태권도협회 소개 자료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38		규정자료	주월한국군 사령부의 태권도 경기대회에 관한 규정이다. 연번 18번 자료의 베트남어 버전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39		군사용어 교재	주월한국군이 사용한 한글과 베트남어로 된 ‘군사용어’(Danh từ quân sự)집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40		베트남어 듣기용 교재	주월한국군이 사용한 베트남어 듣기연습 (Luyện-âm)용 교재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41		태권도 교본	1966년 육군본부에서 제작한 태권도 교본이다. 약 246쪽 분량으로 태권도 용어, 사진, 그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42		사진	봉파우에 위치한 해군기지에서 엄수방 교관의 발차기 시범 모습이다.
43		사진	봉파우 유년사관학교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엄수방 교관 제공)
44		사진	봉파우 유년사관학교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엄수방 교관 제공)
45		사진	봉파우 유년사관학교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엄수방 교관 제공)
46		사진	엄수방 교관이 주월 미 해군으로 추정되는 그의 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47		사진	엄수방 교관이 주월 미 해군으로 추정되는 그의 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48		사진	엄수방 교관이 주월 미 해군으로 추정되는 그의 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49		사진	엄수방 교관이 주월 미 해군으로 추정되는 그의 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50		사진	월남 봉파우에 위치한 미 해군기지에서 엄수방이 주월미군 제자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찍은 사진이다.
51		사진	연번 50 사진과 같은 인물 및 배경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52		사진	태권도 심사 후 엄수방 교관과 미상의 인물 (여자는 미군 부인)들이 찍은 사진이다.
53		사진	엄수방 교관의 발차기 모습이다.
54		사진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미상의 군인에게 단증 (또는 상장)을 수여하는 모습이다.
55		사진	엄수방 교관과 월남 현지인으로 보이는 태권도 수련생 사진이다.
56		사진	엄수방 교관과 월남 현지인으로 보이는 태권도 수련생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57		사진	붕따우 유년사관학교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58		사진	엄수방 교관과 미상의 미군 사진이다.
59		사진	엄수방 교관과 월남 현지인으로 보이는 태권도 수련생 사진이다.
60		사진	붕따우 유년사관학교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61		사진	태권도를 수련하던 베트남 현지인(린, 탄)의 사진이다.
62		사진	엄수방 교관과 미상의 군인 및 베트남인의 사진이다.
63		사진	엄수방 교관이 베트남인으로 보이는 미상의 태권도 수련생과 찍은 사진이다.
64		사진	엄수방 교관이 미군 자녀로 보이는 미상의 태권도 수련생과 찍은 사진이다.
65		사진	엄수방 교관이 붕따우 교관 시절 제자였던 빈(Binh,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 수상자)이 베트남 태권도 대표로 한국 연수차 방한할 당시 찍은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66		사진	연번 65번 같은 사진이다.
67		문서	엄수방의 1999년 제8회 국제 태권도 토너먼트 증명서이다.
68		사진	봉파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69		사진	봉파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0		사진	봉파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1		사진	봉파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2		사진	봉파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3		사진	봉파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4		사진	봉파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75		사진	붕따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6		사진	붕따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7		사진	붕따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8		사진	붕따우 주월 미 해군비행장에서 열린 엄수방 교관의 귀국 송별회 사진이다.
79		사진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에서 몸통 호구를 착용하고 대련하는 모습이다.
80		사진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 참가 선수들의 시상식 모습이다.
81		사진	지아딘(Gia Dinh)성 승단 심사에서 꾸(Cu) 월남 태권도협회장이 인사하는 모습이다.
82		사진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한국군(헌병)의 모습도 확인된다.
83		사진	월남군 제18사단 태권도 수련생 졸업식에서 태권도 시범을 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84		사진	미상의 인물들이 태권도 겨루기를 준비하고 있다. 심사관 3명이 보이고, 두 명이 겨루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때 태권도 승단 심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85		사진	미상의 인물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 뒷면에는 '해군 ○○○ 어린이 수련 ○○' 이라고 적혀 있다.
86		사진	해군본부 태권도 수련생 심사 모습이다.
87		사진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를 참관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모습이다.
88		사진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에서 선수들이 도열하여 경례를 하고 있다.
89		사진	태권도의 TV 시범 모습이다.
90		사진	월남군 제5사단장 투안 소장과 태권도교관단장이 수련생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사진이다.
91		사진	태권도의 TV 시범 모습이다.
92		사진	태권도의 TV 시범 모습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93		사진	특수부대 졸업생들에게 태권도 띠를 수여하는 사진이다.
94		사진	월남군 제5사단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95		사진	월남 육사에서 최홍희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가 호신술을 시연하는 모습이다.
96		사진	감란에 위치한 월남군 특수부대에서 개최된 태권도 관련 행사 사진이다.
97		사진	1968년 제3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전에서 선수들의 격파 장면이다.
98		사진	1968년 6월 20일 티우 대통령과 신상철 주월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월남 대통령 관저에서 개최된 승급 심사 및 시범 장면이다.
99		사진	제3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추정)에 참여한 선수들의 대련 장면이다.
100		사진	월남군 제5사단 태권도 수련생의 졸업 사진이다.
101		사진	월남 달랏지역을 방문한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를 환영하는 행사 모습이다.
102		사진	월남군 해군본부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03		사진	봉파우 유년사관학교에서 태권도교관과 수련생들의 행사 사진이다.
104		사진	연번 104번과 같은 사진이다.
105		사진	태권도 승단 심사장에서 김승규 태권도교관단 단장의 모습이다.
106		사진	월남 경찰 사령부 태권도 수련생 졸업식 모습이다.
107		사진	달랏지역 태권도 승단 심사 모습이다.
108		사진	월남 경찰 5별단의 태권도 승단 심사 모습이다.
109		사진	봉파우 지구대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110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대회 개인전 입상자 시상식 모습이다.
111		사진	월남군 제18사단 제7기 유급자 졸업생에게 띠를 수여하는 모습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12		사진	월남군 제18사단 7기생 졸업식 모습이다.
113		사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방한한 월남 학생대표단이 한국 고교생과 대련하는 모습이다.
114		사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방한한 월남 학생대표단이 한국 고교생 팀과 인사하고 있다.
115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 태권도 대회에서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다.
116		사진	월남군 제3군단 태권도 수련생의 졸업 시범 모습이다.
117		사진	월남군 광충훈련소 수련생들의 태권도 수련 모습이다.
118		사진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이 월남군 통신학교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모습이다.
119		사진	미상의 인물들이 도열하여 경례를 하고 있다.
120		사진	미상의 인물들이 품새 시범을 보이고 있다.
121		사진	월남군 제4군단의 태권도 수련 모습으로 추정된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22		사진	월남군 제18사단 7기생 태권도 졸업식 모습이다.
123		사진	태권도복을 입은 인원과 미상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
124		사진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지아딘(Gia Dinh) 성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의 주요 인사에게 명예 단증을 수여하고 있다.
125		사진	월남군 제5사단에서 조이랑 교관과 이천우 교관의 모습이다.
126		사진	태권자 유단자 심사를 참관하고 있는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과 꾸(CU) 월남 태권도협회장의 모습이다.
127		사진	붕따우 유년사관학교 교관이 훈장을 받는 사진이다.
128		사진	제1회 동남아시아 국제 태권도 시합에 참가한 교관단 모습이다.
129		사진	사이공에 있던 태권도교관단에서 이임 교관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130		사진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제26사단 태권도교관 일동이 에티오피아 황제 내한기념 태권도 시범 후 촬영한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31		사진	1969년 4월 22일 류창훈 백마사단장(소장)이 월남군 전쟁정치대학을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하는 사진이다.
132		사진	월남군 제5사단 팜꾸억투안(PHAM QUOC THUAN) 소장이 한국 태권도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133		사진	월남군 제15사단 제3기 유급자 졸업생에게 이진영 주월사 부사령관이 띠 수여식을 하고 있다.
134		사진	비둘기부대장 차규현 준장이 월남군 부대를 방문해 경계 근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차규현 준장의 월남 파병 기간은 1969.3~1970. 3월까지이다.
135		사진	주월한국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지아딘 성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는 사진이다.
136		사진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이 제5회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에서 월남군 전쟁정치대학 LINH 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137		사진	이진영 주월사 부사령관과 김봉식 교관단장이 사이공 시경국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모습이다.
138		사진	채명신 주월사령관이 월남군 심리전 사령부를 방문해 수련생들의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
139		사진	사이공의 래로이 체육관에서 도열해 있는 태권도 수련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40		사진	제6회 주월사령관기 쟁탈대회 참가 선수들이 선서하는 모습이다.
141		사진	월남 체육학교 2단, 3단 유단자 과정 심사 후의 모습이다.
142		사진	태권도복을 입은 월남 군인들이 태권도 교육대 입소 선서식을 하는 모습이다.
143		사진	래로이(LELOI)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144		사진	제5회 주월한국군 창설기념 기본동작 시범 모습이다.
145		사진	제5회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기념 시범 신고 장면이다.
146		사진	제5회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시범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다.
147		사진	제5회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기념 시범 사진이다.
148		사진	1970년 11월 21일 월남에 파병된 한국 해군수송전대(일명 백구부대)가 개최한 '월남 어린이 한국 해군 그리기 대회' 모습이다. 함상에서 태권도 시범이 개최되었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49		사진	월남 어린이 한국 해군 그리기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 모습이다.
150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 개회식에서 박노영 참모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51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을 관람하는 이세호 주월사령관과 참모장 박노영 및 월남군 주요 관계자들 모습이다.
152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에서 이세호 사령관을 비롯한 내빈들 모습이다.
153		사진	월남 수상 아들과 어린이들의 심사 및 띠 수여식에서 시범을 마친 뒤 찍은 사진이다.
154		사진	이세호 사령관이 월남 수상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태권도 띠를 수여하고 있다.
155		사진	연번 154, 155번 사진의 내빈석 모습이다.
156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의 입상자에게 수여할 우승 메달 및 방패, 트로피이다.
157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 태권도 대회 개회식 모습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58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 태권도 대회의 폐회식 모습이다.
159		사진	제5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 태권도 대회 시상식 모습이다.
160		사진	월남군 제70의무창에서 찍은 사진이다.
161		사진	월남군 제70의무창 심사 때 찍은 사진이다.
162		사진	월남군 제70의무창 심사 때 찍은 사진이다.
163		사진	주월사 참모장 박노영 소장의 공관에서 찍은 사진이다.
164		사진	주월한국군 부사령관이 월남 어린이 태권도 대표단의 한국 방문 신고 후 찍은 사진이다.
165		사진	주월한국군사령부 창설 기념 태권도 시범 행사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66		사진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이 봉파우 유년사관 학교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사진이다.
167		사진	사이공의 띠선넛(탄손누트) 공항에 도착한 태권도협회 임원을 영접하는 사진이다.
168		사진	친선 방월한 한국 어린이팀 영접 사진이다.
169		사진	월남군 제1군단사령부 태권도교육대 유단자반 수료식 사진이다.
170		사진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이 월남 경찰 5별단 단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사진이다.
171		사진	제6회 주월사령관기 쟁탈전 개최식에서 윤홍정 주월사 부사령관의 모습이다.
172		사진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과 박맹규 대위이다.
173		사진	친선 방월한 한국 어린이팀 영접 사진이다. (연번 168번 사진 관련)
174		사진	월남 미상 지구대의 태권도 승단 심사 모습이다.
175		사진	친선 방월한 한국 어린이팀 영접 사진이다. (연번 168번, 173번 관련 사진)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76		사진	제6회 주월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 우승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177		사진	월남 태권도협회와 태권도교관단의 송년회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178		사진	월남 태권도협회와 태권도교관단의 송년회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179		사진	월남 태권도협회와 태권도교관단의 송년회로 추정되는 사진이다.
180		사진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이 미상의 인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다.
181		사진	미상의 인물이 태권도 띠를 수여하고 있는 사진이다.
182		사진	월남군 제3군단 유단자반 졸업식에 참석한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의 모습이다.
183		사진	월남군 제5사단 태권도 유단자반 졸업식 사진이다.
184		사진	월남군 제5사단 태권도 유단자반 졸업식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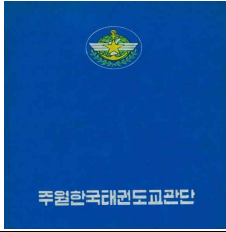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85		사진	사이공 편선넛(탄손누트) 공항에 도착한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환영객과 기념촬영하는 사진이다.
186		사진	이세호 주월사령관이 1971년 1월 월남 대통령 경호실 태권도장 준공식을 마치고 월남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이동하고 있는 사진이다.
187		사진	주월한국군 사령관을 대리하여 한국군 관계자가 월남군 제5사단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188		사진	월남군 제5사단 지역의 승단 심사 후 단증을 수여하는 모습이다.
189		사진	다낭지역 최종 승단 대회에 참석한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 모습이다.
190		사진	장소 미정의 태권도장 기공식 광경이다.
191		사진	유단자 심사 후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 외 다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2		사진	태권도 4단 승단심사와 민영록 교관으로 알려진 사진이다.
193		사진	한국군 관계자가 월남 학생대표단과 환담하는 사진이다. 김양곤 태권도교관이 통역한 것으로 되어있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194		사진	태권도 4단 심사를 하는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과 교관의 모습이다.
195		사진	월남군 제4군단 사령부에서 연무시범 후 광병호 상사가 트로피를 받는 모습이다.
196		사진	월남군 관계자가 한국군 태권도교관에게 훈장을 주는 모습으로 보인다.
197		사진	김승규 태권도교관단장이 훈장을 받는 사진이다.
198		사진	월남군 제4군단 심사 후 한국군 교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199		사진	1968년 4월 채명신 주월사령관이 이임식 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0		사진	채명신 사령관이 환송식에 나온 월남군 고위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		사진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월남의 지아딘성 방문 당시 찍은 사진이다.
202		사진	김용채 대한태권도협회장 방문 일행과 박노영 주월사 참모장, 김봉식 교관단장의 기념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203		사진	주월한국군사령부 참모장이 월남 공군 제33 전투비행단장에게 도복을 증정하고 있다.
204		사진	이진영 주월사 부사령관이 월남군 제5사단 유급자반 제3기 졸업식에 참석해 사단장과 환담하는 모습이다.
205		사진	주월한국군 부사령관 이진영 장군과 김봉식 교관단장이 함께 월남군 부대를 방문하여 사열을 받고 있다.
206		사진	월남군 제5사단 태권도 유단자 졸업식에서 격과 시범이다.
207		사진	1972년 말 유년사관학교에서 철수하는 한국 태권도교관을 위한 이임식에서 학교장이 교관과 인사하는 모습이다.
208		사진	태권도교관단 사진이다.
209		사진	채명신 주월사령관이 월남의 어린이 태권도 수련생을 격려하고 있다.
210		사진	최흥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달랏의 월남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이다.
211		사진	주월한국군의 마지막 태권도교관단장이었던 홍금식 소령의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212		사진	월남 학생대표단과 인사를 나누는 엄운규 국기원장 모습이다.
213		사진	방한 월남 학생대표단의 출국 전송 사진이다.
214		사진	방한 월남 학생대표단이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이다.
215		사진	방한 월남 학생대표단이 국립묘지의 월남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하는 모습이다.
216		사진	친선 방한하는 월남 학생대표단이 사이공의 편선넛(탄손누트) 공항으로 들어가고 있다.
217		사진	월남 학생대표단과 이들의 인솔자인 태권도 교관 김용호 대위와 김양곤 대위의 사진이다.
218		사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월남 양국 어린이 선수단의 선물 교환식 모습이다.
219		사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월남 양국 어린이 선수단의 친선경기에서 상호 간 경례를 하고 있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220		사진	방한한 월남 학생대표단이 친선 시합 후 김운용 협회장에게서 메달을 수여 받고 있다.
221		사진	김운용 협회장이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
222		사진	방한한 월남 학생대표단이 대한체육회를 방문한 사진이다.
223		사진	방한한 월남 학생대표단이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만나는 사진이다.
224		사진	친선경기 차 방한한 월남 학생대표단 일행이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체육회 부회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225		문서	베트남어로 작성된 감사장(Thư cảm ơn)이다. 해상도 제한으로 내용 판독은 제한되나, 월남전 이후의 문서로 보인다.
226		사진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의 사진이다.

순번	대표 이미지	명칭(형태)	특징
227		앨범	1969년 제작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사진집이다. * 세부내용 제4장 참조

제4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평가



제4장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평가

1. 기증자료의 문화재적 가치

1) 개 요

문화재보호법 제2조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호에서 ‘유형문화재’에 대해 “건조물, 전적(典籍 :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 특히 유형문화재의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월남전 태권도는 한국의 태권도 교관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활동한 사항으로서 태권도 현대사 및 전쟁사 측면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기증자료는 한국 태권도 및 한국군 태권도의 해외 진출사를 입증한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 기증자료는 이 분야에 대한 기존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사항에서 월남전과 태권도, 태권도의 전사적(戰史的) 측면에서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현재도 한국군의 해외파병 부대에서는 태권도 교육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의 시작이 월남전이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한국 태권도의 해외 진출 역사를 입증하는 유물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 사항을 보

여주는 의미 있는 유물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군 태권도를 넘어 한국 태권도의 해외 진출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 태권도에서 군대 태권도, 특히 월남전에 파병된 태권도교관단의 위상과 역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주월 태권도교관단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파견했던 첫 번째 태권도 교관이었고, 태권도 세계 진출의 출발점이었다.

이번 기증자료 중에서 당시 사용하던 태권도 교복, 띠, 교범, 태권도 관련 발간물, 주월 미군과 월남군 수련생들이 한국군 교관에게 선물한 감사패, 월남 정부의 훈장과 상장, 감사장 등의 문서류 등은 초기 한국 태권도의 월남 진출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960~70년대 태권도의 세계 진출 측면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료로써 의미를 지닌다.

태권도교관단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월남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태권도 수련생을 교육하는 것 이외에도 각 지역별 태권도장 건립, 주월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 개최, 월남 태권도협회 설립,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한국 태권도 현대사에서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당시 해외에서 전개되었던 것을 월남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곧 태권도가 월남에 매우 적극적으로 전파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역할과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기증자료는 희귀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월남전 당시에는 카메라의 보급과 국가적 차원의 관심으로 인해 많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가 남겨져 있다. 태권도에 관한 사항 또한 국가기록원 등에 적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국내 박물관들에도 태권도에 관한 유물이 양적으로 많이 보관되어 있다. 2023년 6월 현재 전국박물관의 소장품 검색이 가능한 ‘e뮤지엄(<http://www.emuseum.go.kr>)’을 통해 태권도 관련 소장품을 검색하면 총 563건의 유물이 검색된다.¹¹⁰⁾ 태권도 관련 유물의 종류로는 태권도복, 교범, 상장, 페넌트, 포스터, 배지, 단증, 태권도신문, 태권도 잡지 등 다양한 품목이 확인된다.

그러나,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기존의 태권도 관련 자료와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월남전 태권도와 같이 특정한 단체나 주제 및 범주에서 기증한 자료는 기존 태권도 유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에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월

110) e뮤지엄(<http://www.emuseum.go.kr/headerSearch?category=&rows=9&pageNum=1&radioSearchCheck=unifiedSearch&headerSearch=&keywordHistory=%ED%83%9C%EA%B6%8C%EB%8F%84&keyword=%ED%83%9C%EA%B6%8C%EB%8F%84>, 검색일 2023.6.23).

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기증자료들이 희귀성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기증자료가 단순히 태권도 관련 유물의 측면을 뛰어넘어 태권도복이나 사진, 상장, 단증 등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화재 등록의 기본적 평가 기준인 역사성과 사실성, 그리고 희귀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기증자료는 한국 태권도사에서는 태권도의 해외 진출사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유물로서 이 분야의 역사와 계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향후 문화재 등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3) 한국의 첫 군사원조이자 태권도의 월남전 참전을 입증하는 유물

태권도의 월남 보급은 1962년 처음 시작되었고, 1964년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의 참가이자 군사원조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는 단계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태권도가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첫 해외 군사원조의 일환임과 동시에 한국 전통 무도의 참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한국의 첫 해외 군사원조이자 한국 무도의 첫 해외 참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군사원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과거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원조도 군사용 장비 제공 등 하드웨어 측면과 군사고문단(KMAG)을 파견해 군대 운영과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전개되었다.¹¹¹⁾

한국군의 월남에 대한 태권도 보급은 군사원조의 측면에서 볼 때 소프트웨어 측면의 군사원조에 해당된다. 일반 민간인 태권사범이 해외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태권도 보급, 또는 한국 문화의 전파로 볼 수 있지만, 군인 교관의 군인 수련생에 대한 태권도 보급은 단순한 문화전파 이상의 의미가 있고, 군사원조의 성격이 강하다.

111)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국기원 태권도연구』 제8권 4호 (2017), 64~65쪽.

한국은 1962년 5월 14일부터 약 70일간 육군 소장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17명의 대령으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월남에 파견해 월남군대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¹¹²⁾ 1965년 파병된 비둘기부대의 정식 명칭도 ‘한국 군사원조단(ROK-MAG)’이었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1962년 4명의 교관이 파견되었고, 1964년부터는 참전의 한 부분으로 파견되어 1973년 철군할 때까지 20만 명 이상의 월남 군인과 경찰, 민간인에게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1971년부터는 크메르 군인들에 대해서도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월남과 크메르에 대한 군사원조 활동이었다. 이런 점은 당시 국방부에서도 태권도를 순수한 체육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견지에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태권도 파견업무는 국방부 인사국 소관이었지만, 이후부터는 합참의 작전기획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¹¹³⁾

끝으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는 유형문화재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문서류와 별도로 ‘무구(武具)’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무구란 ‘전쟁에 쓰는 무기 등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월남전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쟁사뿐만 아니라 세계전쟁사에서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하며, 그야말로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은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조직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월남전에서 태권도는 민사작전의 중요한 수단이자, 첩보 수집의 수단으로, 또 대적 심리전과 전장의 자국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태권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태권도 교관 최범섭 소령이 최고 훈격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전장에서 만나는 태권도는 매우 특별한 것이다.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 교관들의 활동상과 주요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월남에 태권도 보급이 한국군의 해외 군사원조 제공의 첫 번째 사례였다는 점과 월남전이라는 현대전쟁에 한국의 전통 무도가 참가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자료이다. 따라서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과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12) 대한민국군사사절단, “M-21파견단 대월남정부건의서”(1962.8.15).

113)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66쪽.

4) 한국과 베트남 태권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귀중한 자료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22일 국교를 수립하였다. 1956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단교되었던 것이 1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다만, 과거 한국정부가 국내에서 월남, 또는 남베트남으로 불렸던 베트남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던 것과 달리 1992년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과 수교를 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수교에서 태권도의 역할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이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트남 공산화 이후 한국 태권도가 베트남에 다시 진출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기 전부터 태권도가 먼저 진출한 것이다. 특히, 1991년 양국은 체육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 7월 베트남 무도연맹 창설 3주년 행사에 한국의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을 초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에 태권도의 인기가 매우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월남전 당시 보급된 한국군 태권도의 역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한국 교관들은 베트남을 떠났지만, 한국군 태권도 교관들의 제자들에 의해 호찌민(구 사이공)시에서만 약 30여 곳의 태권도 도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대한태권도협회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1993년 제2회 베트남 오픈 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한 선수단의 감독으로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을 지낸 경남태권도협회 김선규 전무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¹¹⁴⁾

이뿐만 아니라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에 의해 태권도를 배웠던 수련생들이 현재 베트남 내에서 중년의 나이로 현재도 생존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성장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이른바 ‘유지’로 성장해 있다고 한다. 일례로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인 베트남 남부의 휴양도시 봉따우에서는 월남전 당시의 태권도 교관들을 초대하는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 1960~70년대 어린 수련생들이 이제 60대의 중년으로 성장했고, 이들이 과거 태권도 ‘스승’을 찾아 초대한 자리였다. 과거 제자들이 현재 지역의 주요 기관의 책임자 등으로 성장해 있었다.

114) “포화 속 뿌린 태권도 씨앗 베트남서 무럭무럭,” 『한겨레』, 1993년 9월 22일. 한편,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태권도가 유지되었던 이유에는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속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22> 베트남 봉파우 태권도협회의 참전 교관 초청행사 모습(2016.11.24)

이 밖에도 월남전 태권도 교관과 제자의 상봉 사례는 여러 건이 알려져 있다. 안양시 월남전참전자회 소속 최동호 씨는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었었다. 그는 사이공 북동쪽 외곽에 있는 디안(Di An)에 주둔했던 한국군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이랬던 그가 2009년 2월 5일 월남인 태권도 제자와 만나게 된 것이다.

최동호 씨가 1966년 비둘기부대 태권도교관단 소속으로 디안 중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을 때 제자였던 당 티 응옥 성(Dang Thi Ngoc Suong, 52세)씨와 1969년 헤어진 이후 40년 만에 재회한 것이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셨다’라는 옛 제자의 말처럼 한국군 태권도 사범들의 제자 사랑은 베트남인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기억이었을 것이다.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연락들이 끊기긴 했지만, 예전의 사제 간에 쌓였던 정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이어지고 있다.

또, 2017년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한 통의 우편이 도착하였다. 그 속에는 장문의 편지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내용은 월남전 당시 태권도 제자가 한국군 사범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서신의 내용에는 사범이 태권도 지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을 만나게 해 주려고 항공권을 대신 사주는 등 너무도 고마운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이며, 이제 나이가 들어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옛 사범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의 소식을 듣고, 필자가 나서서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던 일이 있었다.¹¹⁵⁾

이렇듯 태권도를 통한 태권도교관단과 월남 및 월남인들 간의 유대관계는 전쟁 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73년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군한 이후에도 태권도를 통해 맺어진 사제지정은 이념을 초월하여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무도로서 태권도가 과거를 뛰어넘어 현재의 한국과 베트남 우호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월남전 당시 태권도 교관과 제자 간에 맺어진 사제의 정이 현재 재개된다는 점에서 태권도와 태권도교관단의 역할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23> 연합뉴스 2009년 2월 5일자.

그리고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이러한 한국과 베트남 관계 속에서 태권도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5) 한국군 해외파병과 태권도 교육은 지속되는 역사

한국군은 1973년 월남에서 완전히 철군하면서 역사상 첫 번째 해외파병을 마무리하였다. 한국군의 해외파병이 다시 시작된 것은 1991년 걸프전 발발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군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되면서 ‘해외파병의 역사’도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부터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되기 시작하였고, 다국적군의 일원 또는 주둔할 국가와의 국방협력 차원에서 파병되기도 하였다.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총 61,044명이 해외에 파병되었으며, 2023년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레바논, 남수단,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까지 4개 부대 900여 명의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다.¹¹⁶⁾ 지금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었던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은 소말리아 내륙(상륙수부대), 소말리아 해역(청해부대), 서부 사하라

115) 필자의 개인적 경험이다.

116) 국방부 홈페이지-세계 속의 한국군(https://www.mnd.go.kr/mbshome/mbis/mnd/subview.jsp?id=mnd_010901010000, 검색일 2023.6.17).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공병대대), 남수단(한빛부대)에 파병되었거나 파병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 및 중동지역은 동티모르(상록수부대), 필리핀(아라우부대), 아프가니스탄(해군, 공군 수송지원단, 동의부대, 오쉬노부대), 이라크(서희부대, 제마부대, 자이툰부대),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에 파병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아이티(단비부대)에 파병되었었다.

해외로 파병된 한국군은 평화 유지를 위한 군사작전 이외에도 해당 국가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흔히, 민사(民事), 또는 민군(民軍) 작전으로 불리는 이 같은 활동은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는 직업학교 운영, 학교 건립, 농장 건립과 농업기술 지도, 한글학교 등 다양한데, 이것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 교육이다. 태권도 교육은 해외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군작전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 파병부대에는 전문 태권도 교관이 포함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대원 중에서 태권도 유단자들이 현지인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파병부대의 태권도 교육은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의 임무와 역할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의 역할과 성과가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동시에 월남전 태권도가 해외 태권도 교육의 출발점이자 현재도 지속하는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방부의 보도 매체인 국방일보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의 태권도 관련 주요 사례를 참고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 자이툰부대, 태권도 대회 개최 (이라크)

이라크에 파병 중이던 한국군 자이툰부대는 2004년 12월부터 아르빌 지역 네 곳에 태권도 교실을 열어 지역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전수하고, 2005년 7월에는 현지인 태권도 사범 16명에게 연수를 시행하였고, 2005년 12월 최초로 자이툰부대 태권도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품세, 겨루기, 격파 등 3개 종목에서 남녀 5개 체급별로 진행되었



<사진 24> 2005년 자이툰부대가 개최한 태권도 대회 모습(국방일보, 2021년 7월 22일)

다. 2006년 개최된 제2회 대회에는 아르빌 지역 정부 청소년 체육부장관, 아르빌 주지사, 체육협회장, 마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자이툰부대가 운영하는 4개 태권도 교실 수료생과 교육생 140여 명이 참가해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었다.¹¹⁷⁾ 한편,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부대의 주선으로 현지 태권도협회장과 사범, 선수 등 22명이 한국의 국기원에서 태권도 연수를 위해 방한했다.¹¹⁸⁾

■ 한빛부대, 남수단에 태권도 보급 공로로 표창 수상 (남수단)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남수단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현지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6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 진흥 유공 부대표창을 수상하였다. 특히 한빛부대는 2013년 1진이 파견되면서 곧바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여 3년이 지난 2016년 당시 수련생만



<사진 25> 한빛부대가 ‘2016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 진흥 유공 부대표창을 수상했다. (국방일보, 2016.9.9)

4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유단자는 1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또한, 한빛부대는 국기원과 협약, 승단 심사 자격이 있는 4단 이상 장병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부대에서 승급·승단 심사를 격월 단위로 진행하고 승단 합격자에게는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공인 단증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한빛부대의 노력으로 남수단 여러 지역에서 수천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고, 올림픽 지역 예선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한빛부대는 ‘태권도 세계화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¹¹⁹⁾

117) “자이툰배 태권도 경연대회 성황,” 『국방일보』 2006년 7월 28일.

118) “쿠르드 주요 인사 ‘태권도에 반했어요,’” 『국방일보』, 2007년 4월 18일.

119) “남수단에 태권도 씨앗을,” 『국방일보』 2016년 9월 9일.

■ 동명부대 태권도 교관, 제자와 8년 만에 재회 (레바논)

레바논 동명부대 17진으로 2016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사관(상사)이 2008년 3진으로 파견되었을 당시 태권도 교실에서 지도했던 제자와 재회하였는데, 이 제자는 8년이 지난 현재는 2단으로 동명부대 태권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사범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다.¹²⁰⁾



<사진 26> 동명부대 태권도 교관과 두 제자
(국방일보 2016.4.4)

■ 상록수부대, 주민 태권도 교육 및 승단 심사 (동티모르)

동티모르에 파견된 상록수부대가 민사작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오куси 지역의 경우 첫날 128명이 참가했으나, 한 달도 채 안 되어 6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¹²¹⁾

상록수부대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태권도 교육 후 승단 심사도 실시 후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승단 심사는 국제태권도연맹 규정에 따라 실시되면, 최종 승단자는 국기원에서 승단 심사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된다. 상록수 부대는 5개 상주 작전 중대별로 태권도 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하루 평균 200~250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동티모르 방위군 사령부에도 태권도 교관 3명을 파견, 하루 2시간씩 방위군들에게 태권도를 교육했다.¹²²⁾

■ 다이만부대, 사막에 부는 태권도 열풍 (쿠웨이트)

다이만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 군사기지의 라켓볼 연습장 안에서 다른 국적의 남녀 20여 명이 태권도를 연습하고 있다. 다이만부대 강현호 중사(4단)가 부대 주둔 이후 미군 헌병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강습을 시작하였고, 이후 소문이 퍼져 20여 명의 외국군이 모이자 매주 화, 목, 토요일에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¹²³⁾

120) “8년 만에 만난 ‘태권도 사제’” 『국방일보』, 2016년 4월 4일

121) “여기는 동티모르-태권도 교육, 주민 ‘인기몰이’,” 『국방일보』, 2002년 2월 26일.

122) “여기는 동티모르-현지 주민 태권도 승단 심사,” 『국방일보』, 2002년 1월 8일.

123) “이역만리 사막에 부는 ‘태권도 열풍’,” 『국방일보』, 2002년 2월 26일.

■ 아크부대 태권도 시범단 공연 (UAE)



<사진 27> 아크부대 태권도 시범단 시범
(국방일보 2018.10.31)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14진 태권도 시범단 63명이 UAE 샤르자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한-UAE 한국대사배 우호 태권도 대회’에 참가해 시범을 선보였다.¹²⁴⁾

■ 육군 태권도 교관 파견 (콜롬비아, 사우디 등)

해외 파병부대의 태권도 교육 같이 부대 단위 파병과는 달리 한국군 태권도교관 1~2명이 외국에 파견되어 현지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육군본부는 2011년 콜롬비아 육군사령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관 1진을 파견해 태권도 교육을 신설하였다.¹²⁵⁾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이진영 소령(6단), 박주희 대위(5단)가 파견되어 태권도를 전수하고 있다. 한국 태권도 교관의 콜롬비아 파견은 2010년 방한한 콜롬비아 육군사령관이 한국군의 태권도 시범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파견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육사에서 태권도 교육이 신설되고, 이전부터 해오던 가라테 교육은 폐지되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월남에 파견했던 주월 태권도교관단 이외에 대만, 이란 등에 태권도 교관을 파견한 바 있다. 2001년 4명의 교관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으로 파견하였고, 이후에도 파키스탄, 레바논 등에서도 요청이 있었다.¹²⁶⁾

124) “UAE 뒤흔든 태권도 함성,” 『국방일보』, 2018년 10월 31일.

125) “[호국보훈의 달에 만난 사람] 6·25참전국 콜롬비아 육사 태권도교관 이진영·박주희 대위,” 『국방일보』, 2022년 6월 21일.

126) “군 태권도교관 4명 파견,” 『국방일보』, 2001년 12월 22일.

2. 주요 자료 평가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로는 ‘월남의 태권도’, ‘주월 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 우방군 태권도 교육을 기념해 제작한 ‘태권도’ 책자, 주월 태권도 관련 각종 규정 자료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자료별 내용과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월남의 태권도 (책자)

이 책자는 1967년 11월 월남 태권도협회와 주월 한국태권도협회가 발행한 ‘월남의 태권도’라는 제호(題號)의 책자이다. 월남 태권도협회는 1965년 10월 설립되었고, 주월 한국태권도협회는 1967년 1월 설립되었다.



이 책자는 두 협회가 설립된 이후 월남에 태권도가 안정적으로 보급되는 상황에서 현지의 한국 태권도 보급과정과 협회 구성, 태권도의 대표적 기술 등 당시 월남의 태권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또, 주월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중장의 인사말, 태권도의 5개 신조, 월남 태권도 연혁, 태권도의 기술, 태권도란 어떤 무도인가, 태권도 교관 분포도, 세계 태권도 현황,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구성, 한국 교관단 파월소개, 교관단의 임무, 교육 장면, 보조 수련, 연무 시범 등에 관한 내용을 약 30쪽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1년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대화의 광장’을 목적으로 계간지 『태권도』를 창간하였다. 4×6배판 크기의 『태권도』 창간호는 총 6천 부가 발행되었다.¹²⁷⁾ 이러한 국내 상황과 비교해보면 『태권도』 창간호 보다 4년이 빠른 1967년 월남에서 태권도에 관한 간행물이 발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⁸⁾

이 책자는 월남에 보급되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가던 한국 태권도에 관한 중요한 사

127) 『조선일보』, 1971년 4월 24일.

128) 다만 ‘월남의 태권도’는 연속 간행물은 아니었기에 계간지와 단순비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항을 포함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료로 평가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매우 소량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희귀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재로 등록되어 계속적 관리와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② 주월 태권도교관단 사진집

이 자료는 1969년 12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에서 제작한 98쪽 분량의 사진집이다. 표지 상단 중앙에는 주월한국군사령부 마크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주월 한국태권도교관단’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내용을 보면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단장 중령 김봉식’의 인사말이 첫 장에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는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이라고 되어있으나, 인사말에는 ‘주월 한국군태권도교관단’이라고 되어있다. 이어서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초대 및 2대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국군 무도부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 대한태권도협회 김용채 회장, 태권도교관단장 김봉식 중령, 태권도교관단 본부에 보직된 인원들의 사진과 직책, 계급, 성명이 순서대로 담겨 있다.

또한, 태권도교관단의 주요 활동사항, 월남의 각 지역별 부대와 교관 파견자 현황, 태권도 수련 지도 모습, 월남에서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전 등 태권도 관련 행사 사진, 심사 및 교육, 민간사범(5명)의 이름과 사진, 역대 교관단장 및 교관들 사진과 계급, 성명, 연도, 파견지역, 월남에서 태권도 연혁, 태권도 도장 수, 연도별 수련생 및 교관현황 자료, 주월 한국 태권도협회 구성도, 월남에서 태권도 교관 분포도(지도), 각국 사범 파견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앨범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통상적 수준의 사진집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 사진집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구체적인 편성과 배치, 활동 사항을 사진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진집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진집은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현재 매우 소량만이 확인되는 희귀성도 있어 문화재 등록을 통한 보존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크메르 군대에 대한 태권도 교육 기록 (책자)

이 책자 2건은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이 크메르 군인에게 태권도를 교육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1972년도에 발행된 자료이며, 표지를 포함해 49쪽과 51쪽 분량이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기본적으로 월남에 파견되어 태권도를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은 월남에 국한되지 않았고, 1971년부터는 크메르 군인들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이 교육은 월남에 주둔하던 한국군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 예하로 당시

냐짱(Nha Trang, 나트랑)에 주둔하고 있던 제2군수지원단에서 이루어졌다. 십자성부대는 제100군수사령부의 별칭으로 육군 준장이 사령관인 제100군수사령부 예하에는 2개의 군수지원단이 있었다. 교육은 크메르 군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제2군수지원단의 교육대에서 숙식을 하며 교육을 받는 일종의 ‘수탁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국내 언론에는 크메르 군인들에 대한 태권도 교육 소식이 보도된 바 있었다. 하지만,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크메르 군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 인원, 내용, 시간, 기간 등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자 2점은 당시 크메르 군인들에 대한 태권도 수탁 교육을 기념하여 발행된 것으로, 주월한국군이 실시했던 크메르군에 대한 수탁 교육 내용이 매우 상세히 담겨 있는 자료이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 자료에 의하면, 주월한국군의 크메르군 교육은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시기별로는 1971년 1회, 1972년 2회 이루어졌고, 교육인원은 3회에 걸쳐 총 88명이었다. 제1기 교육은 1971년 7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주간 30명의 크메르 군인들이냐짱에 주둔하던 제100군수사령부 제2군수지원단에서 이루어졌다. 제2기는 1972년 3월에서 6월, 제3기는 1972년 7월에서 10월까지 교육이 시행되었다. 위 사진의 왼쪽 책자는 1972년 3~6월 실시된 제2기 교육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우측 책자는 1972년 7~10월 실시된 제3기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크메르 군인에 대한 태권도 교육은 크메르 정부의 요청을 1971년 4월 3일 박정희 대

통령이 승인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장교를 파견해 교육하였으나, 1971년 7월부터는 캄보디아 군인들이 주월한국군의 제100군수사령부 예하 제2군수지원단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

두 책자의 내용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이 변했다는 것 이외에 교육과정 등은 같았기 때문이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책자에는 ‘태권도’라는 제목과 주월한국군사령부 마크, [우방군 훈련 기념특집 1972.3.27 ~6.17]이라는 내용과 ‘주월한국군십자성부대 제2군수지원단’이라고 쓰여있다. 표지 중앙에는 태권도 교육 사진이 있고, 각 내용은 한글과 크메르어가 병기되어 있다.

책자 내부에 수록된 내용은 태권도 신조,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 사진, 십자성부대장 사진, 교육생 단체 사진, 제2군수지원단장(교육대장) 사진, 교육대 전경 사진, 교관 및 기간병 개인 사진과 성명, 크메르 군인 훈련생 30명의 개인 사진과 계급, 성명, 단체 사진, 입교식(‘크메르군 제2차 태권도교관 요원 입교식’이라고 적혀 있음), 이들의 하루 일과 소개, 태권도 교육 및 수련 사진, 일반학과 화기 및 전술학 교육 사진, 일상생활 모습, 방문 인사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태권도 교육에 대해서는 정좌, 기본동작 1~6, 일보 대련 1~6, 단도 대련 1~6, 호신술, 자유대련, 종합격파, 장애물 격파, 2단 앞차 부수기 등이 각각의 사진으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모저모’라고 이름 붙여진 코너에는 한국의 전통문화 및 발전상에 대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크메르 교육생 30명의 계급과 성명, 크메르 국내 주소가 있고, 한국군 교관 9명과 기간병 7명의 이름과 국내 주소가 영문으로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수련생 일동이 교육을 마치면서 보낸 인사말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마지막에는 ‘편집후기’ 면인데 1972년 6월 17일 제2군수지원단에서 발행되었고, 예하 제8인쇄중대에서 인쇄하였다는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표지를 제외하고 총 47쪽 분량의 이 책자는 주월한국군이 크메르군에 대한 두 번째 태권도 교육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었다.

사진의 우측 책자는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있으며, 1972.7.31~1972.10.21까지 실시한 우방군 훈련 기념특집 책자이다. 수련생 28명의 개인 사진과 계급 성명도 포함되어 있다. 입교식 행사 사진에는 ‘크메르군 제3차 태권도 교관 요원 입교식’이라고 적혀 있다. 1972년 10월 21일 발행되었고,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49쪽이다.

이 책자는 1970년대 초 한국이 크메르군에 태권도를 교육했음을 입증하는 매우 귀한 자료이다. 특히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과 교육 인원의 세부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귀중하고 희귀한 자료로서 문화재 등록을 통해 보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자료로 평가된다.

④ 주월한국군 태권도 도복과 띠

이 태권도 도복은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이던 유시황 대위가 착용했던 것이다. 도복 상의, 하의, 검정 띠 등 총 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 띠에는 성명과 소속이 자수 놓여 있어 착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8> 유시황의 모습
(주월태권도교관단 사진집)

월남전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태권도복은 국내에서 제공된 것을 착용하였고, 교육생들에게는 국내에서 위문품으로 전달된 것이 주로 제공되었다. 태권도가 주월한국군의 대민작전과 민사작전의 주요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태권도복의 제공은 필요한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월남 현지에서 직접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당시 태권도복의 제작 재료로 사용된 것은 ‘매트리스 커버’가 활용되었다. 특히 월남인 태권도 수련생들의 증가로 도복 수량이 부족한 상황일 때는 해결방안으로 월남 현지에서 백색 매트리스 커버를 이용해 직접 태권도복을 제작해서 보급하였다.¹²⁹⁾

한편, 아래 도복은 바탕과 깃이 모두 하얀색으로 되어있다. 왼쪽 가슴에 대한민국 국기가 박음질 되어있고, 오른쪽 가슴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엠블럼이 박음질 되어있다. 도복 상의의 양쪽은 옆트임이 되어있다. 이 도복이 1960년대 주월 태권도교관단 도복이라면 당시의 모습과 품질, 부착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복의 제작 및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요망된다.

태권도용 검정 도복 띠는 한쪽에는 ‘7단 김수련’, 다른 한쪽에는 ‘주이란 한국교관단장’이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고, 태극기가 박음질 되어있다. ‘김수련’은 1971년 소령(태권도 6단) 계급으로 김정훈 대위(5단)와 함께 이란 정부 초청으로 이란 육군공수특



전단에 체류하며 이란군 간부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던 인물이다.¹³⁰⁾ 월남전 태권도교관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부족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중동지역에 파견된 군 태권도 교관의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29) “태권도복용 매트리스 카바 수령”(수도사단 민사참모부, 1970.6.24).

130) 『동아일보』, 1971년 11월 20일.

⑤ 월남에서 개최된 태권도 대회 관련 자료 (팸플릿, 사진)

한국군 태권도 교관에 의해 월남에 태권도가 보급되고 수련생과 유단자가 증가하면서 현지에 태권도협회가 만들어지고, 각종 태권도 경연대회도 개최되었다. 월남인들을 주축으로 한 월남 태권도협회가 1965년 10월에 만들어지고, 1967년 1월 8일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로 주월 한국태권도협회가 창설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협회가 주축이 되어 태권도 경연대회도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월남전 당시 최대 규모이자 최고의 태권도 경연대회는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였다. 이 대회는 1966년 10월 11일 주월 한국태권도협회가 주관하여 제1회 대회를 시작한 이후 연 1회 개최되었다. 다만, 주월한국군의 1차 철군이 진행된 1971년과 완전 철군이 이루어진 1973년에는 개최되지 못하였다.¹³¹⁾ 그 결과 1972년 대회까지 총 6회가 개최되었다. 연도별 개최현황을 정리해 보면, 1회(1966.10.11), 2회(1967. 개최 일자는 미상), 3회(1968.11.8~10), 4회(1969.11.21~23), 5회(1970.12.1~3), 6회(1972.3.23~25)였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에는 월남에서 개최되었던 태권도 경연대회와 관련된 소책자(Phamplet)와 사진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기증자료에는 6번의 대회 전체에 관한 팸플릿이나 사진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다. 팸플릿의 경우에는 총 6회 대회 중 3개만 있고, 대회 사진은 4개 대회의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연도별 보유자료 현황은 <표-13>과 같다.

<표-13>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팸플릿과 주요 사진

1회(1966)	2회(1967)	3회(1968)	4회(1969)	5회(1970)	6회(1972)
	-			-	
	-				

* 제4회 대회 팸플릿 :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 제1회 대회 사진 : 대한뉴스 / 3~6회 사진 :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에서 선별

131) 주월한국군은 1971년 1만 명이 1단계로 철군하였고, 1973년 1월부터 2단계 철군을 시작해 1973년 3월에는 모든 철군이 완료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팸플릿은 1967년 제2회, 1969년 제4회, 1970년 제5회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1972년 제6회 대회에 대한 것은 대회 팸플릿이 아닌 초청장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회 사진 자료도 1, 2회 대회의 것은 없는 상태이다. <표-13>에서 1969년 제4회 대회의 팸플릿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였고, 사진 자료는 ‘대한뉴스’ 영상자료에서 일부를 채운 것이다.

각 대회의 팸플릿과 사진은 당시 개최된 대회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회마다 제작된 팸플릿에는 주월 사령관의 인사말부터 대회 일정, 개최 장소 등이 소개되어 있다. 각 대회별 주요 내용과 팸플릿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는 1966년 10월 11일 사이공(Saigon) 근교의 월남보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¹³²⁾ 제1회 대회는 주월한국군태권도협회가 주관하였다. 이후부터는 주최를 주월한국군사령부로 기재하고 있다. 주월 한국태권도협회장과 주월한국군사령관은 같은 인물이었다. 첫 대회였던 만큼 신상철 주월 한국대사와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을 비롯해 많은 한·월남 장성들과 월남 시민이 참관하였다. 이 대회가 개최될 당시는 한국의 태권도가 월남에 전파된 지 만 4년이 지난 때였고, 이 기간에 월남인 수련자는 1만여 명에 달했고, 유단자는 120명을 넘는 상태였다. 1회 대회에도 모두 13개 팀과 180여 명의 선수가 예선을 거쳐 참가하였다.

제1회 대회 팸플릿은 2면 접지로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면에는 대회 명칭과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명칭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각각 적혀 있다. 뒷면에는 대회 일정이 소개되어 있고, 속지에는 ‘태권도의 신조’가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적혀 있다.

1968년 개최된 제3회 대회 팸플릿은 격려사, 대회 식순, 대회 설명에 관한 내용이 6쪽에 걸쳐 담겨 있다. 1968년 11월 8~10일까지 개최된 대회의 팸플릿에는 11월 8일 개회식 이후 본격적인 시합(본선, 결승), 시범, 시상, 폐회식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특히 2일 차인 11월 9일은 1일 차 개회식과 본선 예선에 이어 종일 본선 예선이 진행되었고, 3일 차는 결승전과 폐회식이 개최되었다. 팸플릿에는 전년도 단체와 개인 부문별 성적이 수록되었다. 단체적 우승은 ‘화랑관’, 준우승 ‘체육학교’, 개인 종합상은 유단자와 유급자, 여자부, 소년부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해 각 1, 2, 3등이 선발되었다. 개인 부문상은 형, 대련, 격과 3부문으로 선발해 시행하였다. 팸플릿에는 이 대회의 시합장 안내도가 주소와 약도로 안내되어 있다. 이 대회 경기장은 사이공 시내 판딘퐁(Phan Đình Phung)가의 298번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표지포함 16장 분량이다.

132) 『조선일보』, 1966년 10월 18일.

제4회 대회는 1969년 11월 21~23일까지 개최되었다. 제4회 대회에서는 ‘월남 해병 팀’이 우승하여 한국군 사령관기를 획득하였다.¹³³⁾ 제4회 대회는 당시 ‘대한뉴스’의 ‘월남소식’에도 잘 보도되어 있다.¹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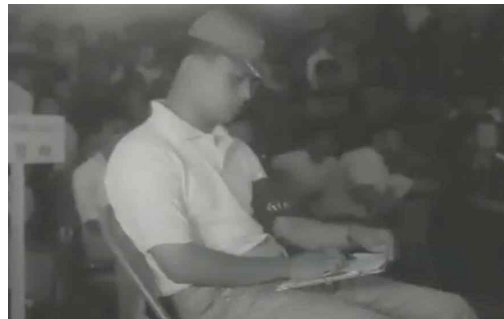
태권도 겨루기 시합을 하는 모습



태권도 품새 경기 모습



한국군 관계자들의 대회 관람 모습



심사위원 모습



한국군 대회 관계자 모습



대회 우승 트로피 및 메달

<사진 29> 제4회 주월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의 대한뉴스 보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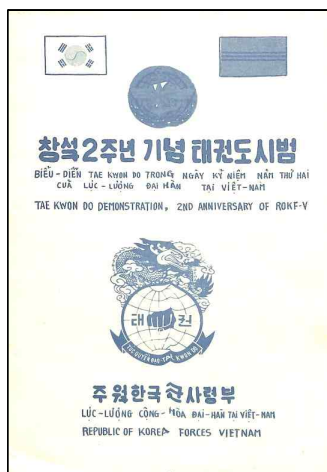
133) 『조선일보』, 1969년 12월 30일.

134) e-영상역사관 대한뉴스-월남 소식(1969.12.6.)<https://www.ehistory.go.kr/page/view/movie.jsp?srcgbn=KV&mediaid=20075400&mediadtl=33928&gbn=DK&quality=M>, 검색일:2023.6.24).

마지막 대회였던 제6회 대회는 1972년 3월 23일 오전 10시 월남 병기국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¹³⁵⁾ 윤홍정 주월사 부사령관과 비엔 월남군 참모총장 등 많은 관중이 모인 가운데 개막한 이 날 경기에는 약 2백 명의 남·여 유단자가 출전하였다. 3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된 이 대회에서 우승팀과 우승자는 제3회 아시아 경기대회의 월남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제6회 대회에서는 월남 태권도협회의 초청으로 대한 태권도협회의 임원 2명과 선수 4명이 참관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는 태권도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주월사령부 창설기념일을 맞아 태권도 시범도 개최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창설기념 행사에 포함된 일부 시범 행사가 아니라 태권도 시범만을 위한 별도의 행사였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1965년 9월 25일 서울에서 창설되어 전투부대 파병과 함께 1965년 10월 중순 월남의 수도 사이공에 주둔하기 시작하였다. 초대 사령관은 채명신 소장(후에 중장 진급)이 주월 사령관과 수도사단장을 한동안 겸직하였고, 제2대 사령관은 이세호 중장이었다. 주월한국군사령부는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최고사령부였으며, 예하에 수도사단, 제9사단, 해병제2여단, 제100군수사령부, 해군수송전대, 공군지원단 등 육·해·공·해병대로 구성된 통합군 사령부였다. 창설 2주년은 1967년 9월 25일이었다.



표지를 포함하여 총 15쪽 분량의 이 팸플릿은 ‘태권도란 어떤 무도인가’로 시작하고 있다. 태권도가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무도이고, 태권도인은 ‘예의와 엄치를 존중’하고, ‘용도는 오직 약자의 보호와 정당방위에만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주요 사진과 함께 태권도 기술도 소개하고 있다. 사이공의 래로이관(태권도장), 델타지역 4군단 교육대, 사이공의 해군본부, 봉파우 유년사관학교 등의 사진과 월남의 태권도 현황자료, 군단별 도장과 교관, 회원 수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이날 2주년 시범의 순서가 소개되어 있는데, 시범에는 한국 교관들의 고난도 격파시범 이

외에 월남의 소년, 소녀, 유단자 등의 시범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태권도 경기대회나 주월사령부 창설기념 태권도 시범대회는 월남 전역에 나가 있던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들이 전파한 태권도 수련생들의 수준을 점검하고, 월남인들 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대회였다. 또한, 한국 태

135) 『경향신문』, 1972년 3월 29일; 『전우신문』, 1972년 3월 20일; 『조선일보』, 1972년 3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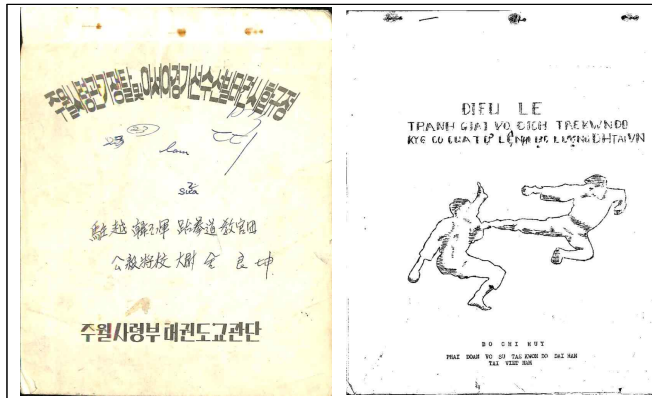
권도의 시범을 통해 월남인들에게 태권도를 뿌리내리게 하였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

특히, 이미 1966년도에 월남에서 제1회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한국 태권도 역사에서 볼 때 해외에서 한국이 주최하여 개최했던 대회 중 가장 앞선 대회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회 주최, 참가자 규모, 대회 규정, 당시 팸플릿과 사진 자료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첫 번째 공식 경기대회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태권도교관단이 기증한 1966년 제1회 대회의 팸플릿과 사진 자료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으며, 계속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문화재 등록의 가치와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추가로 보완을 한다면, 현재 태권도교관단에서 기증한 대회 팸플릿과 사진 자료 중 부분적으로 빠진 대회의 팸플릿과 사진을 추가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다면 더욱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⑥ 주월 태권도 경기 규정(국문, 베트남어 2종)

이 자료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에서 국문과 베트남어로 작성한 ‘태권도 경기 규정’이다. 왼쪽 그림이 국문 규정 표지이고 오른쪽 그림은 베트남어 규정 표지이다.



왼쪽 그림은 표지를 포함해서 총 17장으로 되어있다. 표지에는 ‘주월사령관기쟁탈밋아세아경기선수선발태권시합규정’이라는 문서 제목과 ‘주월사령부태권도교관단’이라는 발행 주체가 띄어쓰기 없이 붙어서 표기되어 있다.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 구성 및 임무, 제3장 시합으로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본 규정은 주월 한국군사령부에서 주최하는 모든 태권도 경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제14조 부칙에서 ‘본 규정은 1971. 10. 1부터 유효하다’라고 적고 있어 이 규정의 제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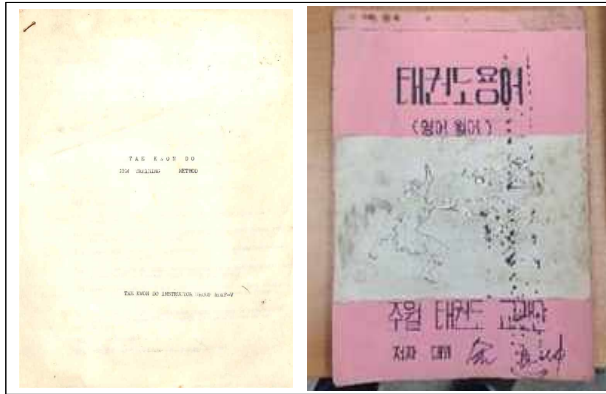
규정의 내용에는 시합장 규격, 경기자 복장, 호구 착용, 시합 출전 선수 자격, 시합 종목, 시합 종류, 시합 방법, 경기 진행 요령, 시상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별지에는 ‘시상’과 관련하여 개인전, 격파, 장려, 참가상, 단체전 등의 각 체급 및 부문별 시상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상품으로는 우승기, 트로피(소, 중, 대), 우승컵(소, 중, 대), 방패, 금·은·동메달, 패넌트, 홀 띠, 라이트, 수건 등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 베트남어로 작성된 것이다. 대회 규정이 베트남어로도 제작되어 현지인들에게도 태권도 대회 규정을 알게 하고, 한국군이 월남에서 철군하더라도 현지인들이 태권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월 태권도 경기 규정은 한국 태권도가 해외에서 경연대회를 개최되었을 때 적용했던 시합 규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적용 범위를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라고 명시함으로써 당시 주월한국군의 태권도 보급과 대회가 매우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어로도 작성하여 태권도가 현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향후 문화재 등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⑦ 주월 태권도 수련 계획 및 용어 관련 문서 (2종)

왼쪽 문서는 상단에 영문으로 ‘TAE KWON DO NEW TRAINING METHOD’, 즉 태권도 신 훈련법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TAE KWON DO INSTRUCTOR GROUP ROKF-V’, 즉 주월 태권도교관단이 발행처로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제목처럼 태권도의 새로운 훈련법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대상별 교육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이 도표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2쪽에는 이 훈련법의 목적으로 과거 훈련법을 평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새 훈련법을 통해 전투력과 태권도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대상에는 교관단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이 훈련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른쪽 문서는 중앙 상단에 ‘태권도 용어(영어, 월어)’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주월 태권도 교관단 저자 대위 金良坤’이라고 적혀 있다. 표지 가운데는 태권도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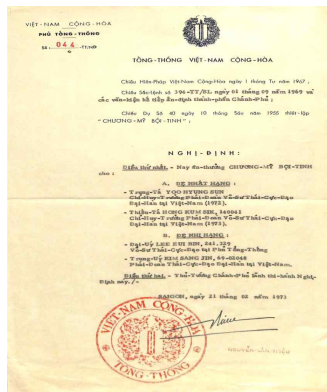
‘태권도용어’ 자료에는 태권도 교육에서 사용할 용어를 한글, 영어, 월어(베트남어)로 비교하여 작성되어 있다. 162개 용어가 한글,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80. 공격/TAN CONG/ATTACK, 150. 허리를 틀어라/QUAY LƯNG/Twist waist, 157. 떨어져/XA NHAU/Break 등이다.

이 책은 주월 태권도교관단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표지 하단에 기재된 것처럼 태권도 교관이던 김양곤 대위가 작성한 것이다. 당시 타자기를 이용해 태권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영어와 베트남어로 만든 것으로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보다 잘 가르치고자 하는 교관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의 두 자료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이 수련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태권도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것으로 태권도 수련 방법과 용어사용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월 태권도 교관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이다.

⑧ 월남 대통령의 태권도 교관에 대한 훈장 수여 문서

이 문서는 월남 대통령이 한국군 태권도 교관 4명에게 월남공화국의 훈장 수여를 결정한 문서이다. 문서의 내용을 보면, 문서 상단 중앙에는 ‘월남공화국 대통령 (TÔNG-THỐNG VIỆT-NAM CỘNG-HÒA)’이라고 적혀 있고, 문서 제일 하단에는 당시 월남 대통령인 응우옌 반 티우(Nguyen Van Thieu)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



다. 다만 서명이 친필인지, 일종의 도장 형식으로 제작된 서명인지는 해상도의 제한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문서의 내용에는 월남의 관계 법령 등에 의해 ‘Chương M y’136) 훈장을 수여하기로 하였고, 총리는 이를 시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에는 훈장을 받을 대상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서에는 1973년 2월 21일부로 한국군 태권도교관 단장 2명에게 1등급 훈장, 교관 2명에게 2등급 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1등급 훈장 대상자는 1972년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장 유형선 중령, 1973년 교관단장 홍금식 소령이고, 2등급 훈장 대상자는 이위빈 대위, 김상진 중위이다.

훈장 수여 시기인 1973년 2월은 시기적으로 주월한국군이 월남에서 완전히 철군하기 직전이었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 중에는 12,926명이 월남 정부의 각종 훈장을 받았다.¹³⁷⁾ 월남정부의 훈장은 국가, 특출근무훈장, 업성, 금성, 은성, 동성, 명예, 기술, 참모명예, 기타 등이었다. 이 훈장을 받은 1973년도에도 국가 8명, 특출근무훈장 2명, 명예훈장 36명, 기타 2명 등 48명이 훈장을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훈장 관련 문서가 특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통상적인 ‘훈장증’과는 달리 훈장 수여를 결정한 문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월남 정부에서 한국 태권도와 교관들의 활동에 대해 월남군 계통 이외의 훈장 수여를 결정한 문서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6) 여기서 “Chương Mỹ”훈장이 어떤 종류의 훈장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월남전 당시 월남정부의 군대와 관련한 훈장 종류에서 이 훈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태권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군 이외의 훈장으로 보인다. 월남전 당시 군대 훈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HUY CHƯƠNG-Ân Thưởng Trong Quân-Lực Việt-Nam Cộng-Hòa,』 (Bộ Tổng Tham-Muru Soạn Thảo, 발행연도 미상).

137) 최용호 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7), 47쪽.

⑨ 주월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재(2종)

이 책자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어를 학습할 때 사용하던 교재이다. 왼쪽 그림은 한글과 베트남어를 함께 수록한 ‘군사용어’(Danh từ quân sự) 집이고, 오른쪽 책



자는 베트남어 듣기연습(Luyện-âm)용 교재이다. 두 책자 표지에는 공통으로 중앙에 주월한국군사령부 마크와 태극기·월남기가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월남어 학교(trường việt ngữ)’라고 적혀 있다. ‘군사용어’ 책자에는 주요 군사용어, 군사 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월남

어 듣기연습’용 교재에는 월남어 성조, 발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남전 당시 한국군은 국내에서 파병 교육기간 동안 간단한 베트남어를 학습하고 현지로 파병되었다. 그러나 월남 현지에서 언어 소통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별도의 어학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민사작전이나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에게는 베트남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하여 교육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베트남어 교육과정은 사이공에 있던 월남군 언어학교에 한국군이 입교하여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12주에 걸쳐 이루어진 월남군 언어학교 과정은 당시 한국군이 실시했던 베트남어 교육과정에서 최고로 전문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베트남어 수요를 맞추기 어려웠으므로 각 한국군 부대에서는 월남의 원어민 교관을 초빙해 ‘월남어 교육대’를 운용하였다.¹³⁸⁾

그러나, 현재까지 월남전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 사용했던 교재에 대한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베트남어 교재가 실물로 확인된 것도 거의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두 자료의 표지에 ‘대위 김양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김양곤은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 명부에서 확인되는 실존 인물이다.

이 교재는 주월한국군 태권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은 자료이다. 그러나, 태권도 교관들이 현지에서 현지 언어를 배워서 수련생과의 소통을 증진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어 교육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계기로 국내에는 1967년 한국외국어대학에 처음으로 ‘월남어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1960~70년대 국내 베트남어 연

138) 월남전 당시 베트남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신재, “파월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과 활용,” 『군사』 제 106호(2018), 171~205쪽을 참고 바람.

구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 등록을 통한 계속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⑩ 육군본부 발행 태권도 교본

이 책자는 1966년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군대 태권도 교본이다. 표지 상단에는 ‘ST 28-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책자의 성격을 나타낸다. ST는 학교 교재(School Textbook)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이고, ‘1966. 7. 1’은 교본의 발행일(또는 시행일)을 의미한다. 중앙에는 ‘태권도’라는 책자의 제목과 발행처인 ‘육군본부’, 그리고 가운데 태권도 동작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246쪽 분량으로 본문에는 태권도 용어 정의 및 설명, 태권도 사진과 그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25전쟁 이후 육군에서는 태권도를 장려되기 시작하였다. 1959년 육군본부는 중앙도장을 정식 개관하고 예하 부대에 ‘교육 지시’를 하달해 태권도 교관 요원을 차출하고, 16주간 태권도 교육과정에 입교시켜 많은 지도 요원을 배출하였다. 또한, 1959년 5월에는 교육각서 제350호를 통해 태권도를 한국군의 전형적인 무술로 정하고 활성화해 나갔다.¹³⁹⁾ 육군본부 중앙도장에서 양성된 태권도 교관들은 교육 수료 후 소속부대로 돌아가 장병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다.¹⁴⁰⁾

현재 남아 있는 육군의 태권도 교본으로는 1948년 육군보병학교에서 발간한 교본과 1959년 육군사관학교에서 발행한 것이 확인된다. 1966년에 나온 이 태권도 교본은 시기상으로는 두 교본보다 늦지만, 1959년 육군의 태권도 교육 지시 이후 시행되어오던 태권도 교육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육군본부에서는 ‘야전교범 21-19’로 ‘태권도’라는 제목의 교범(Filed Manual)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주월 태권도교관단 또한 당시 군의 태권도 교본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하고 지도하였다. 이 교본은 주월 태권도교관단들의 태권도 교육에서 기본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태권도 현대사와 군대 태권도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139) 이화춘, “군의 정신무장과 태권도,” 『육군』, 135호(1969), 6-11쪽.

140) 『태권도신문』, 2006년 10월 23일.

⑪ 사진 자료 (186건)

월남전에서는 카메라와 비디오 등 사진 촬영 장비가 폭넓게 보급되었다. 장병 중 상당수는 현지의 미군 PX 등을 통해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국내의 각 신문 및 방송사에서 특파한 중군기자를 비롯해 한국 정부 공보부의 취재 인력들도 한국군의 소식을 국내로 전하기 위해 월남 현지에서 취재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월남전에 대한 사진과 영상자료는 많은 수량이 남겨져 있다. 특히, 정부 공식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록원 소장자료에서도 ‘월남’과 ‘태권도’를 주제로 검색하면 71건의 기록물이 검색된다. 기록물은 시기적으로 1961~70년이 67건, 1971~1980년 사이가 4건이 나오고, 종류별로는 사진(필름)류 61건, 녹음/동영상류 9건, 일반 문서가 1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월 태권도교관단 사진, 현지에서 태권도 교육 모습, 월남 학생과 군인들의 시범 모습, 태권도장 준공 등이다. 일부 사진은 태권도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 사진은 당시 공보부에서 촬영한 것들로서 화질은 양호하고, 일부는 칼라로 촬영되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이 기증한 자료 중 186건이 사진 자료라는 점은 당시 카메라 보급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권도교관단에게 기증한 사진 자료에는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 등 공식적인 대회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고, 교관 개인의 개인적 일상도 담겨 있다. 특히 주목되는 기증자료의 특징은 월남군 각 지역과 부대에서 활약했던 태권도교관단의 일상적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게 된다. 즉, 월남군 각 부대의 교육 장면, 현지 부대장이 태권도 교관에게 훈장 등을 수여하는 사진 등은 월남전 당시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 사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화질이나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그럼에도 기증 사진들이 지니는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 사진이 주요한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 사진들을 공통되는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새롭게 조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테면, ‘주월 사령관기 태권도 경연대회 사진 목록’이나 ‘최흥희 총재의 월남 방문’, ‘엄수방 교관 기증 사진’, 또는 ‘붕파우 유년사관 학교 태권도 수련 사진’, ‘월남군 군부대 태권도 수련’ 등이다.

제5장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 추진방안



제5장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 추진방안

1. 국내 문화재 종류와 등록 절차

1) 문화재 종류

국내에서 문화재의 보호와 등록에 관한 법률로는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하위체계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¹⁴¹⁾ 문화재보호법은 제2조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각 호’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종류를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나누고 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자료는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다.¹⁴²⁾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중 그 가치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나뉜다. 국가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문화재가 엄격한 원형 보존 원칙하에 관리되는 문화재인데 반해,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완화된 보존조치를 시행하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에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부족하여 지정 혹은 등록되지 않거나 아직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문화재를 말한다.¹⁴³⁾

141) 법률 제18859호 문화재보호법, 대통령령 제3343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4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143)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등록문화재 실무편람』(대전: 문화재청, 2009), 7쪽.

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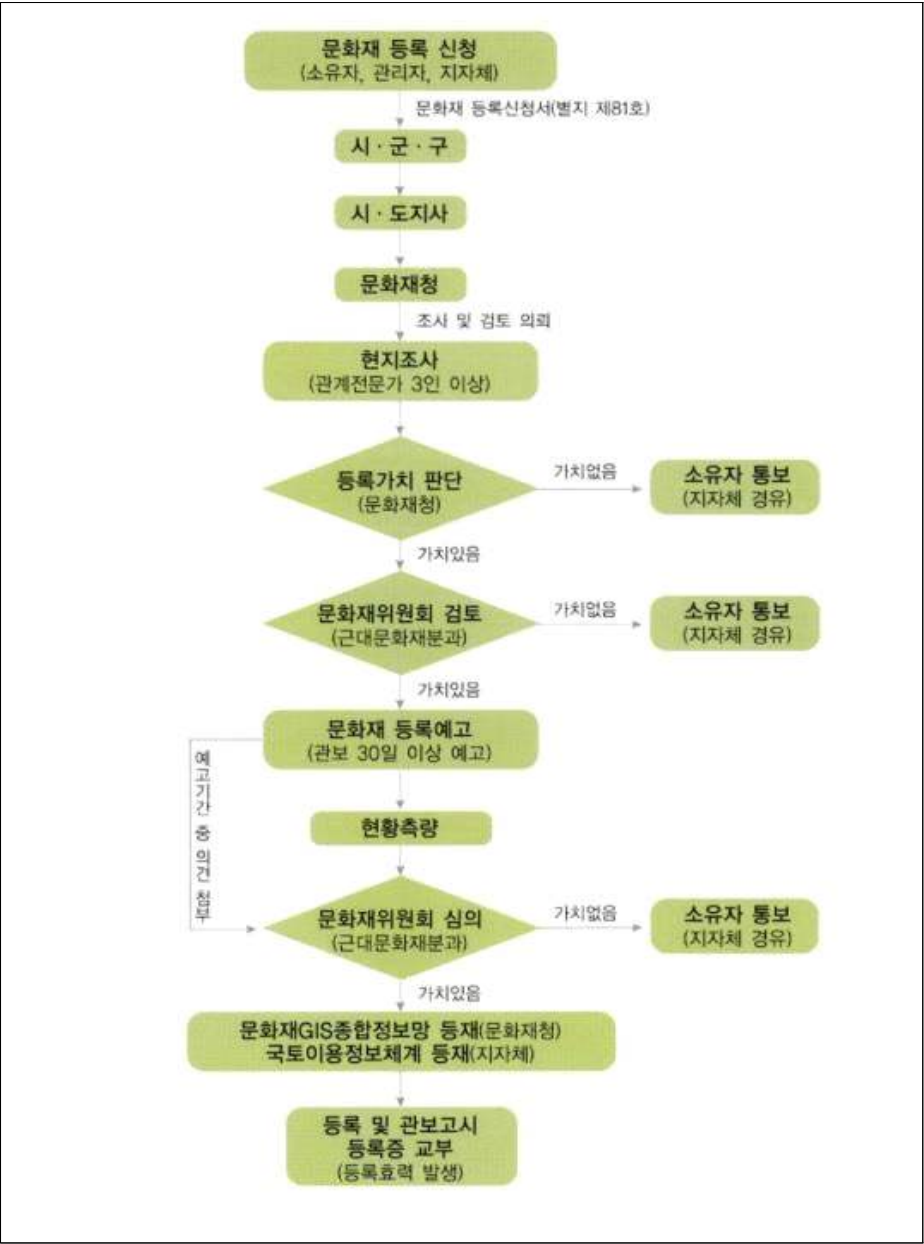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도록 하였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시행규칙 제34조 ②항과 ③항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에 맞는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또는 신청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34조 ④항에서는 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한 뒤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하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출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등록문화재 실무편람』 (대전: 문화재청, 2009), 20쪽.

3) 시·도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9장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70조는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정 및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동 법 제70조 ③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 지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 법 제70조 ④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 및 보호를 권고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동 법 제70조 ⑥항은 시·도 차원의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의 지정, 등록, 해제, 말소 등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71조에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전라북도 조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소장자료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해당 조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및 71조에서는 시·도 차원의 문화재 지정, 등록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도 등록문화재 등록 및 지정문화재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¹⁴⁴⁾

144)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4845호, '20.11.13 시행),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2조는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도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자료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3. 등록문화재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등록문화재를 말한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8조는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되어있다. 별표 1에서 제시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크게 유형문화재 6개, 기념물 13개, 민속문화재 3개 등 22개 항목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면 100개에 이를 만큼 세분되어 있다.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해서는 조례 제35조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제35조(등록문화재의 등록) ①항은 도지사가 문화재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례 제35조(등록문화재의 등록)

-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문화재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③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는 제9조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전라북도 규칙 제299호, '15.12.28 시행).

이 조례에 따르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이어야 하고,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등의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조례 제35조 ③항에서 제9조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조례 제9조는 지정 절차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 절차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 2명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이들 전문가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문화재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첨부할 서류는 다음의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문화재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 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재의 작자·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7. 지적도면의 축적에 맞게 축소한 문화재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면·실측도면 및 배치도·건물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
8. 문화재의 사진·슬라이드·녹음물 및 기록물
9.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도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기증자료의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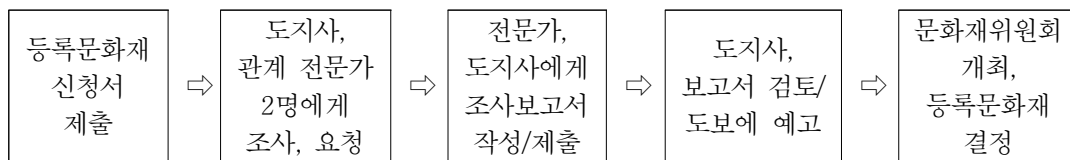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법률, 시행규칙, 조례 및 전라북도의 문화재보호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에 대한 등록문화재 등록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 전라북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전문가 2명에게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도지사는 조사보고서를 검토 후 도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심의할 내용을 도보(道報)에 30일 이상 예고하게 된다.

셋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되어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그림-6>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지정 절차 정리



2. 기증 태권도 자료 문화재 등록 추진방안

1) 개 요

현재 국가 및 시·도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 중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유물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과는 달리 문화재로의 등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에는 현재 국내 문화재를 종류별, 지역별,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다.¹⁴⁵⁾ 2023년 현재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태권도’를 주제로 검색하면 단 1건이 확인된다. 그것은 2016년 10월 14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북 겨루기 태권도’이다. 이외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을 통틀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이트의 운영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문화재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조회가 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태권도 관련 문화재 등록 현황은 빈약한 수준을 넘어 거의 전무 하다시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태권도의 명칭 제정, 협회 설립 등이 195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교적 시기가 늦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간은 50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973년 이전의 것이 해당하는 셈이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태권도가 그동안 국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인의 태권도로 성장하는 데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재 등록 등의 분야에는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무도인자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세계인의 태권도로 성장하였다.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태권도 관련 문화재의 등록 현황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태권도와 관련된 자료들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재 등록을 통해 태권도 유산의 영구적인 관리와 가치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 제2장에서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월남전 파병 배경과 활동을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전체 227점 자료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제4장에서는 기증자료의 문화재로서 가치와 주요한 10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

14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s_kdcd=00&s_ctcd=00&gbn=2®ion=2&pageNo=1_1_2_0, 검색일: 2023.7.2).

보았다. 제5장에서는 현재 법률과 하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 등록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에 대한 문화재 등록 추진방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현행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기증자료의 가치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책자, 문서류, 기념패, 상장류, 사진류, 도복류, 기타 등이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로서 역사성, 희귀성 등의 요소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의 지정기준 등을 살펴보고,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가 이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관련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문서류 중에서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회화·조각 중에서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볼 때 ‘무구(武具: 전쟁에 쓰는 무기 등 도구)’에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증자료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각각의 자료를 문화재로 개별 등록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제4장에서 살펴보았던 주요한 자료 10점을 개별적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 227건 전체를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자료’로 단일화하여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증자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문화재 등록 가능성,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주월 태권도교관단 자료의 수집과 등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 위주의 개별 등록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기증자료를 하나의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도 타당해 보이지만, 향후 자료의 기증과 수집이 추가되어 추가적인 문화재 등록을 고려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새로운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문화재의 일부로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증자료 227건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10점을 우선적으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기증자료 중 문화재 등록 추진 대상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고, 문화재로 등록 가능성이 큰 자료를 선별해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현재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 중에는 태권도 현대사와 한국군의 해외파병사 및 전쟁사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와 자료의 희귀성을 동시에 지닌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증자료로는 제4장에서 주요 개별 자료로 살펴본 것들이 해당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월남의 태권도’(책자),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앨범), 우방군 태권도 교육을 기념해 제작한 태권도 책자,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태권도 경연대회 관련 자료, 주월 태권도 관련 규정, 월남에서 태권도 교육을 위한 영문 자료 및 태권도 용어집, 주월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자료, 주월한국군에 대한 월남 대통령의 훈장 수여 결정서, 태권도 도복류,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태권도 교본 등을 꼽을 수 있다. 각각의 자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재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역사성, 희귀성, 보존 가치 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① ‘월남의 태권도’의 경우는 한국 태권도가 월남에 보급되고, 이곳에서 자체 협회가 발족한 이후 발간된 것으로 태권도의 세계 진출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 각 국가 중에서 전쟁 중이던 월남에 진출하고, 태권도 보급의 종합적 현황이 책자로 발간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음 있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존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은 월남전에서 활동한 태권도교관단의 편성과 인물, 지휘체계, 태권도 교관이 월남에서 활동했던 각 군부대, 대통령 경호실, 경찰기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고, 각계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관들의 활동 모습을 담고 있어 태권도교관단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것은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월한국군 태권도를 연구하는데 결정적 사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추가로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의 희귀성을 저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③크메르 군인들에 대한 태권도 교육을 기념해 제작한 2종의 ‘태권도’ 책자는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월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인접한 크메르 군인들을 수탁받아 태권도와 일반학 및 전술학을 교육했다는 것은 한국군의 **해외** 군사원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크메르 군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기간, 내용을 비롯해 교육생인 크메르 군인들의 계급, 성명, 주소와 당시

한국군 교관과 기간 병사들의 계급, 성명, 국내 주소까지 수록된 점은 이 자료만의 독보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총 세 차례의 수탁 교육이 있었으나, 제1차 교육 때 간행물이 발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집이 가능하면 기록물로서의 완결성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2점의 자료만으로도 보존과 활용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④월남에서 개최된 태권도 경연대회와 시범대회에 관한 팸플릿 자료도 높은 평가를 부여할 수 있다. 1960년대 태권도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월남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 태권도를 해외에 보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체계적으로 개최한 것은 월남지역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66년 개최된 제1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는 태권도 역사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의미 있는 대회일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대회 팸플릿은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다만, 일부 대회의 팸플릿이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수집 작업과 대회별 팸플릿과 대회 사진을 종합하여 하나의 자료로 묶을 수 있다면 이것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⑤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대회와 관련하여 국문과 베트남어로 작성된 경기규정은 대회의 팸플릿 및 사진 자료와 함께 대회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주월사령관기쟁탈및아세아경기선수선발태권시합규정’(띄어쓰기 없음)은 ‘주월사령부태권도교관단’이 발행한 것으로 내용과 발행 주체가 명확한 특징이 있다. 총 14조로 구성된 내용 또한 적용대상과 시기,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해외에서 개최된 태권도 대회의 규정과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태권도 용어집과 영어로 작성된 태권도 수련계획은 월남전 태권도 연구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이다. ‘태권도 용어’는 태권도와 태권도 수련에 필요한 162개의 주요 용어를 한글, 영어, 베트남어로 작성한 것으로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김양곤 대위가 저자이다. 비록 전문 출판사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태권도 교관이 타자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자료이자 태권도 교관 차원에서 태권도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자료일 것으로 평가된다. 영어로 작성된 태권도 수련계획(TAE KWON DO NEW TRAINING METHOD)도 주월 태권도교관단이 작성한 자료로서 태권도에 관한 새로운 훈련법과 대상별 교육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이 도표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상의 두 자료는 월남전 당시 수련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태권도를 교육하기 위한 태권도 교관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주월 태권도 교관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

한 자료로 평가된다.

⑦월남 대통령의 태권도 교관에 대한 훈장 수여 결정 문서는 월남전 당시 월남 정부의 훈장을 받은 한국군이 12,926명이란 점에서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 경우에는 훈장증과 훈장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태권도 교육의 공로가 명시된 문서이자 월남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시 한국군이 받았던 군 관련 훈장과는 다른 훈장이었음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가치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⑧월남전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베트남어 교재(2종)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월남전은 한국군의 첫 해외파병이었고, 이것은 새로운 기후와 언어권 속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현지 언어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비록 이 교재가 태권도교관단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이라는 측면과 당시 국내에 베트남어 보급 및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⑨주월한국군의 태권도 도복은 당시 한국 태권도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기증된 도복은 사용자가 유시황 교관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유시황은 주월 태권도 교관이자, 그가 월남전 당시 태권도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 도복은 1960년대 주월 태권도교관단 도복의 형태, 품질, 부착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⑩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태권도 교본은 1960년대 한국군의 태권도 교육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주월 태권도교관단 또한 이 당시 군의 태권도 교본에 의해 태권도를 수련하고 체계화하였다. 이 교본은 주월 태권도교관단들의 태권도 교육에서 기본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태권도 현대사와 군대 태권도 변천사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의 월남 진출과 태권도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역사적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문화재 등록의 당위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증자료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시된다면 문화재 등록의 요건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 중 앞서 살펴본 대표적 자료 10건은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의 활동상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자료의 희귀성 또한 지니고 있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이상의 10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문화재로 등록을 신청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총 227건에 달한다. 앞서 살펴본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 또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진 자료의 경우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당시 카메라의 대량 보급으로 많은 사진이 남아 있고, 사진의 화질과 선명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진 자료 단독으로 문화재 등록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어서 태권도 교관들이 받았던 각종 기념패의 경우 내용과 디자인 측면에서 이국적이고, 태권도 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기념패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증자료 전체가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들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리하고, 추가 수집되는 자료와 함께 잘 관리한다면 추가적인 문화재 등록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끝으로,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연속성을 지니는 성격의 경우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자료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월 한국군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경연대회에서 빠진 대회의 팸플릿을 보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증자료의 81.9%를 차지하고 있는 사진 자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주제에 따라 그룹화 작업을 한다면 자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지금까지 월남전 당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활동, 그리고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태권도 현대사 측면에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역할은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은 1959년 첫 시범단이 월남에 파견된 이후 1962년 교관 4명의 파견, 그리고 1964년부터 10명으로 편성된 태권도교관단이 국회 동의를 받고 파병되었다. 이들 교관단은 계속해서 규모를 확대하면서 월남에 태권도를 보급하고, 주월한국군의 민사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73년 철수할 때까지 728명이 파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태권도교관단은 월남에 '월남 태권도협회'를 조직하고, '주월 한국태권도협회'도 설립해 월남에 한국 태권도의 안착을 도모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한국 태권도가 국내에서 체계를 잡기 시작할 무렵 국가 주도하에 월남에 태권도를 보급함으로써 태권도 세계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월남전 이후 파병의 경험을 가졌던 태권도 교관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는 계기로 이어지면서 태권도가 전 세계로 보급되는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월남전이라는 현대전쟁에 한국의 무도가 파견되어 전장 속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 또한 주목해볼 부분이었다. 이것은 전쟁에서 민사작전의 한 부분이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군사원조 역사에서도 첫 대외 군사원조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교관단의 성과는 본격적인 태권도 세계화의 출발선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태권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월남에서 시작된 태권도 세계화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둘째,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이 비단 과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군의 해외파병에서 태권도는 대표적인 민사작전의 수단이자 친한화(親韓化)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월남전 당시 월남에서 맺어진 태권도를 통한 사제지정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남전 이후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PKF) 및 안전보장이사

회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고 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에서 태권도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이것은 현재도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군 태권도가 한국의 태권도를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이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월남전 당시 교관단들과 수련생 들 간에 태권도를 통해 맺어진 사제지정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무도를 통해 형성된 친밀감과 존경심, 애정 등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현재의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점은 현재 시점에서 당시 태권도교관단과 태권도 수련 제자들과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태권도와 베트남 태권도 사회를 이어주는 인연의 고리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록 교관 개인의 역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한국군의 태권도 역사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문화재 등록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월남전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들의 성과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것은 국내의 월남전에 관한 부족한 연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관한 자료 부족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월남에서 교관단의 활동과 성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이 틀림없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진 이외에 ‘월남의 태권도’, ‘주월 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 우방국 지원 기록물,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 관련 자료, 주월한국군 사령부 창설기념 태권도 시범자료,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및 월남 태권도협회 설립자료, 주월 사령관기 태권도 대회 규정자료, 당시 태권도복 등의 자료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 자료는 그동안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사료(史料)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 이것은 한국 및 한국군 태권도의 역사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역사성과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는 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할 타당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태권도교관단 연구의 과제

이번 태권도교관단의 기증자료를 통해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이 비교적 입체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태권도 현대사와 월남전쟁사에서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월 태권도교관단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새로운 자료 확보를 통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교관단의 기증자료처럼 새로운 자료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연구성과를 도출한다면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더욱 풍성한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교관단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역사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도 태권도의 차원과 관점에서 새롭게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의 베트남 태권도협회의 구성원과 내용, 이것과 월남 태권도협회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월남전 당시 보급된 태권도와 현재의 태권도 간의 상이점과 유사성을 규명하는 것도 태권도 역사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베트남의 공산화 이전과 이후에 각각 베트남에서 태권도를 보급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향후 남북한 태권도 통합의 매개체로서 월남의 태권도가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월 태권도교관단과 유사하게 다른 국가에 파견되었던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월남 이외에도 과거 대만(당시 자유중국), 이란 등에도 군 태권도교관을 파병하였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크메르에도 교관을 파견한 이후 주월한국군이 수탁 교육으로 진행한 사례였다.

그러나, 월남 이외의 다른 국가에 파견되었던 한국군 태권도 교관 또는 교관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실상은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월남전 당시 태권도교관단이 기증한 자료 이외에도 군대 태권도의 해외 진출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에 대한 독립적인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월남전 태권도교관단과 관련된 교관 개인의 비망록이나, 일기, 서신, 봉급표 등 추가적인 사료들, 현재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대회의 팸플릿 자료, 월남 태권도교관들의 전쟁 이후 해외 진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계속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대만이나 이란, 콜롬비아 등 타국에 진출했던 태권도교관의 자료를 확보해 통합 관리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권도 현대사에서 군대 태권도 인물에 관한 연구도 관심을 가져볼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 현대사에서 한국군 태권도와 주월 태권도교관단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여러 명 확인할 수 있다. 태권도원의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헌액자 공간에는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이 헌액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채명신, 최홍희, 남태희 등 군대 태권도와 관계된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원에는 각 인물별 공적에 대해 채명신은 대한태수도협회(현 대한태권도협회) 창립회장을 역임하였으며, 9개 관의 승단 심사를 통합하여 공인단을 확립하고, 태권도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시키는 등 태권도 스포츠화의 길을 열게 하고, 한국군의 월남전 사령관으로서 국제 전장에서 군 간부들을 활용한 태권도 시범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태권도 세계화의 초석을 다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홍희에 대해서는 1955년 태권도 명칭 작명, 오도관을 창설하고 군 태권도 활성화에 기여, 대한태수도협회(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국제태권도연맹을 만들어 태권도 세계화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태희는 태권도 명칭 작업에 기여, 오도관 창설의 주역으로 국군태권도시범단 지휘를 맡는 등 군 태권도 보급에 공헌, 1960년 초 월남 태권도교관단장을 역임하는 등 태권도 세계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적고 있다.



<사진 30> 왼쪽부터 태권도원에 헌액된 채명신, 최홍희, 남태희의 모습

현재도 한국군 태권도는 한국의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 한국군 태권도의 역할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월남전을 비롯하여 시기 국내외에서 전개되었던 한국군의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역할과 대표적 인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여 한국 태권도 현대사에서 한국군 태권도에 대한 제대로 된 평

가를 하는 과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월남전과 주월 태권도교관단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다. 2024년은 본격적인 태권도교관단이 월남에 파병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1959년 시범단 파견과 1962년 첫 교관단 4명의 파견까지 고려하면 이미 60년이 넘는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은 월남에 태권도가 전파된 지 60년이 넘었다는 점도 된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과거 전쟁의 상흔을 딛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 되었고, 국방교류 측면에서도 한국 해군이 사용하던 군함이 양도되고, 베트남의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 관계 요원을 교육하는 등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양국 관계 속에서 태권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 ‘무도’이자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한국군의 태권도교관단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자, 현재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월남전 속의 또 다른 역사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기록, 그리고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 록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관련 연표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 명단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관련 연표

일 자	내 용
1954. 7. 21	제네바 협정 체결, 북위 17도 기준으로 남북 베트남 분단
1956. 5. 23	한국과 월남 국교 수립
1957. 9. 20	월남 응우옌 지엠 대통령 한국군 태권도 시범 관람 (육군 제631포병대대 연병장)
1958. 11. 6	이승만 대통령 월남 방문
1959. 2. 25	한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월남 방문 계획 보도
1959. 3. 4	한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월남 출발
1962. 12. 23	육군 소령 남태희 등 태권도교관 4명, 월남 파견 (1963년 12월까지 체류)
1964. 5. 15	주월남 국방무관, 월남 측의 태권도 지도요원 지원 요청 확인
1964. 7. 15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월남 수상의 공한 도착
1964. 7. 31	태권도교관단·이동외과병원 월남 파견 계획 국회 동의안 가결
1964. 7. 20~8. 8	태권도교관단 편성, 파병 준비 돌입
1964. 8. 28	국방부, 지령 제2호 하달(태권도교관단 임무 부여)
1964. 9. 11	태권도교관단 부산항에서 해군 수송함으로 월남 출발
1964. 9. 22	월남 사이공에 도착
1964. 9. 23	월남 환영 행사 개최 / 3개 기관에 태권도교관 배치
1965. 2.	지휘관계 변경 (이동외과병원장 → 비둘기부대장 예하)
1965. 6. 6	대한태수도협회 '태권도'로 명칭 개칭 결정
1965. 10.	월남 태권도협회 설립
1966. 10.	주월한국군사령부 직할부대로 태권도교관단 편성 (교관 10명 → 70명으로 증가)

일 자	내 용
1966. 10. 11	제1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개최
1966. 10.	사이공에 래로이 태권도장 공사 착공
1966. 10. 18	월남 외무성, 한국군 태권도교관 60명 증원 발표
1966. 11. 26	태권도교관 3명 베트남 폭발물 사고로 전사
1966. 12.	사이공에 래로이 태권도장 준공
1966. 12. 28	한국 국방부, 대만의 요청에 따라 태권도교관 5명 첫 파견
1967. 1. 8	래로이 도장 월남에 이양 / 주월 한국태권도협회 창설
1967. 7.	태권도 교관 82명으로 증가
1967. 8. 30	한국 국방부, 월남 요청으로 군인 유도 교관 8명 9월 파월 발표
1967. 일자 미상	제2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개최
1967. 11. 2	월남 태권도협회 임원과 선수단 12명 한국 방문
1968. 2. 4	태권도교관 박정환 소위 실종(베트남에 피랍, 이후 캄보디아 억류)
1968. 2. 6	태권도 교관 최범섭 소령, 윤청길 중사, 베트남의 구정공세 시 교민 40여 명 보호하고 백병전 끝에 전사(태극 무궁화장 수훈)
1968. 2. 10	주월한국군사령부, 태권도교관단에 교민보호 임무(무궁화작전) 지시
1968. 5. 27	태권도가 국제군인체육대회(CISM) 정식 종목으로 채택
1968. 6. 20	월남 대통령 관저에서 태권도 승단 심사 및 시범 실시
1968. 11. 8~10	제3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개최
1969. 3. 11	월남 육군사관학교장(람 쿠앙 타이 소장) 방한, 국제태권도연맹 방문 태권도 시범 실시(태권도 2단, 월남군 장군 중 최고단자)
1969. 3. 14	월남 육군사관학교장, 방한 중 대한체육회를 방문, 월남 육사에 태권도를 정식 교과로 포함하는 방침을 밝힘

일 자	내 용
1969. 3.	미 육군기관지 '아미다이제스트'(1969년 3월호), 주월한국군 태권도 기사 게재
1969. 5.	주월 태권도교관단장 김봉식 중령 외 3명, 월남 심리전 훈장 수훈
1969. 6. 18	태권도 교관 박정환 소위 국내로 귀환 (베트콩에 피랍되어 캄보디아 억류 중 석방/귀국)
1969. 7.	차지철 의원, 월남 대통령 경호연대 방문 태권도 수련 격려
1969. 8. 25	한국정부, 이란 육군의 태권도 교육을 위해 9명 규모의 태권도 교관단 파견 계획 발표(중동지역 첫 파견)
1969. 11. 21~23	제4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개최
1970. 6. 27	대한 태권도협회 초청으로 월남 소년 태권도 대표단 방한 (인솔 : 월남 태권도협회 부회장)
1970. 6. 30	월남 육사 파견 태권도교관 4명, 월남군과 함께 총을 들고 작전 참가, 베트콩의 공격을 막아내고 전과 수립
1970. 9.	크메르 국방성 훈련국장, 주월한국군 방문, 태권도 시범 참관/ 교관 지원을 요청 (한국정부, 국내 교관 2명 지원)
1970. 12. 1~3	제5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개최
1971. 1. 14	월남 대통령 경호실 전용 태권도장 이양식
1971. 7.	주월 크메르군 연락장교단장, 크메르군 태권도 교육 요청
1971. 7. 12	크메르군 제1차 태권도 교관 요원 입교식 (주월한국군 제100군수사령부 제2군수관리단)
1971. 7. 21	월남 어린이 태권도 선수단 초청, 한·월 어린이 태권도 대회 개최
1971. 10. 19	대한 태권도협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요청에 따라 경기용 호구 200벌을 월남에 보내기로 결정
1971. 11. 6	수도사단 태권도 교육 이양식 개최(꾸년 체육관)
1971. 11. 20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군인체육대회에 주월 태권도교관단 시범단으로 참여
1971. 12. 4	주월한국군 1차 철군 개시(해병 제2여단 등 1만여 명)
1971. 12. 24	크메르군 제1차 태권도 교관 요원 수료

일 자	내 용
1972. 3. 4	한월 친선 어린이 태권도 시합에 참가할 한국 대표 선발대회 개최 (장소 : 서울 한성여고)
1972. 3. 8	대한체육회, 한월 태권도 대회 선수단 7명 파견 승인
1972. 3. 23~25	제6회 주월한국군 사령관기 쟁탈 태권도 시합 개최
1972. 3. 27	크메르군 제2차 태권도 교관 요원 입교식
1972. 4. 6	주월한국군 1차 철군 완료
1972. 6. 17	크메르군 제2차 태권도 교관 요원 수료
1972. 7. 31	크메르군 제3차 태권도 교관 요원 입교식
1972. 10. 21	크메르군 제3차 태권도 교관 요원 수료
1973. 1. 27	파리평화협정 체결(월남전 종결, 모든 외국군 60일 이내 철군)
1973. 1. 30	주월 한국군 2단계 철군 개시
1973. 3. 23	주월한국군(태권도교관단 포함) 철군 완료
1973. 5. 25~27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서울 개최
1975. 4. 30	베트남 공산화
1976. 6. 13	(전)주월 태권도교관단 모임 ‘전무회’ 설립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 명단(650명)

구분	성 명								
㉠ 176명	강광남	강국원	강대만	강동길	강만석	강무훈	강석원	강성배	강순재
	강영중	강용식	강원구	강정도	강종만	강진원	강창진	강태호	강형국
	강호천	강홍근	고경옥	고국환	고재덕	고재천	고재평	고창호	고학근
	곽병호	곽장섭	곽주황	구명현	권동식	권세규	권순대	권순생	권용대
	권인웅	권충현	권태석	길봉근	길원복	김 삼	김 연	김 홍	김강원
	김경기	김경모	김경진	김경환	김관중	김광언	김광원	김광일	김군수
	김귀만	김기동	김기슬	김기홍	김길래	김길성	김남술	김남용	김남웅
	김남준	김달준	김대웅	김덕수	김동배	김동현	김명열	김명희	김무규
	김무영	김무인	김문경	김병세	김병용	김병운	김병윤	김병희	김보국
	김복생	김복연	김봉규	김봉빈	김봉수	김봉식	김봉은	김봉채	김상만
	김상수	김상진	김상철	김석규	김석태	김석호	김성빈	김성일	김성일
	김성준	김성진	김성채	김성태	김성한	김수련	김수훈	김순환	김승규
	김승준	김신재	김양곤	김영광	김영래	김영웅	김영차	김영호	김영환
	김용기	김용대	김용운	김용현	김용호	김용희	김우균	김용길	김용배
	김원영	김원찬	김유식	김유영	김은배	김일석	김재춘	김정래	김정재
	김정환	김정흠	김정홍	김종만	김종섭	김종성	김종수	김종식	김종태
	김종환	김주련	김주병	김준호	김중섭	김찬수	김창명	김창수	김창순
	김창호	김춘섭	김충남	김태섭	김태식	김택식	김해곤	김현구	김형규
	김형동	김형열	김형주	김형태	김호상	김호제	김홍남	김화경	김효정
	김홍관	김홍태	김희국	김휘국	김희중				
㉡ 11명	나국태	나승남	나종천	남광신	남상준	남성복	남태희	노상봉	노연웅
	노인용	노효영							
㉢ 3명	도우현	도준호	동순영						
㉣ 5명	라영호	라용경	라진호	라현영	류봉현				
㉤ 11명	명화선	모상희	문명주	문명진	문송원	문순창	문용구	문종수	문한선
	민성찬	민영록							
㉥ 68명	박 용	박강원	박경수	박광조	박금용	박기수	박대병	박대치	박덕성
	박동벽	박동수	박만귀	박맹규	박문철	박병환	박상선	박성기	박성기
	박성명	박성운	박성천	박승길	박양규	박연갑	박영기	박영달	박영만
	박영배	박영우	박영철	박영희	박용규	박용근	박용호	박운철	박원갑
	박원상	박윤식	박인도	박정구	박정환	박정희	박종대	박종두	박종좌
	박종천	박종훈	박진만	박찬경	박창휘	박해봉	박현영	박현호	박홍식
	박희열	박희중	방덕수	방석우	배기문	배문기	배성실	백성개	백성국
	백성기	백운대	백준기	범기철	봉태복				

구분	성 명									
㉠ 56명	서광석 서영순 석호세 손복근 송선태 신상근 심원섭	서동호 서영주 설인호 손복규 송의인 신성호 심창수	서명석 서영철 소명선 손영우 송재일 신영억	서문치 서정길 소병모 손장계 송중윤 신윤길	서병수 서정도 소병민 손창근 송현재 신윤열	서상달 서정학 소종호 송덕선 송현재 신재일	서상학 서준석 손 황 송복근 송현태 신진호	서소식 서철수 손덕선 송상근 송호섭 신희철	서석청 석용성 손만석 송석창 신남열 심신재	
㉡ 163명	안 보 안재순 양해찬 오현덕 유승렬 유형선 이건옥 이규훈 이남용 이명환 이상학 이영길 이운세 이정술 이종재 이창황 이형주 임양섭 임해수	안건수 안재석 엄수방 오홍섭 유시황 유효일 이계천 이근수 이남일 이백수 이석봉 이영환 이원강 이정열 이종철 이천우 이희승 임양섭	안건순 안종후 오 현 우기수 유양근 윤경준 이고범 이근태 이남희 이범식 이성구 이용국 이은준 이정원 이주서 이춘규 임명수 임영식	안광웅 안주호 오두석 우동진 유연수 윤일남 이곤수 이근환 이대희 이범석 이성수 이용기 이의빈 이정호 이주섭 이춘섭 임병열 임영진	안근휘 양 휘 오명근 우성수 유영길 윤재만 이광열 이기남 이동근 이범철 이수웅 이용목 이장근 이정환 이주연 이충웅 임병택 임용인	안상달 양경석 오영열 우종립 유영재 윤창욱 이광우 이기룡 이득찬 이병원 이수정 이용수 이재철 이진백 이평팔 임복길 임원섭	안영규 양원철 오윤근 우중학 유재호 윤청길 이광희 이기영 이명우 이보녕 이순조 이용순 이재환 이찬호 이현교 임창규	안용연 양응석 오태환 원유홍 유진규 윤태동 이규수 이기종 이명우 이상명 이승욱 이용해 이정남 이종원 이창배 이현성 임창수	안용인 양해룡 오판철 유기훈 유창식 윤희남 이규정 이기해 이명직 이상진 이연우 이용호 이정무 이종윤 이창호 이현진 임승해 임태수	
㉢ 70명	장구일 전용상 정병길 정원택 정태갑 조길원 조성택 조준식	장사남 전일수 정병호 정이동 정태민 조동은 조연경 조준탁	장석창 전종만 정상춘 정재규 정한홍 조만형 조용일 조진기	장용무 전진효 정성호 정재수 정현가 조무신 조원효 조판동	장을준 전희택 정순희 정재호 정홍도 조병철 조이랑 주재명	장종일 정경환 정엽우 정정규 제성용 조장영 지주섭	전성배 정광작 정영선 정정우 조경수 조병환 조재득 지희룡	전세곤 정덕화 정영휘 정중민 조규일 조성달 조재휴	전승철 정문길 정용택 정창규 조규호 조성래 조정길	

구분	성 명									
㉔ 50명	차석현	차영호	차은석	차재익	채규항	채대석	채승화	채종승	채준석	
	채희열	천광식	천상철	최 학	최경훈	최광진	최대응	최덕용	최동식	
	최동희	최동희	최범섭	최병렬	최복성	최봉학	최상균	최석규	최석길	
	최성규	최성연	최세익	최순기	최순도	최영욱	최영종	최완섭	최원규	
	최은교	최재연	최재현	최중승	최종위	최준환	최지원	최창덕	최창산	
	최춘호	최한기	최현채	추광호	추교일					
㉕ ㉖ 2명	탁재용	표재원								
㉗ 35명	하연호	한경표	한광수	한봉석	한성래	한성래	한예돈	한정수	허 만	
	허 송	허 영	허종술	허준행	현명순	홍 도	홍금식	홍성기	홍성대	
	홍성무	홍성인	홍순철	홍태수	황광덕	황광선	황명복	황성희	황소정	
	황승규	황영갑	황일휴	황재연	황정환	황종국	황주하	황찬석		

- * 참고 : 여기 수록된 주월한국군 태권도 교관 명단(650명)은 태권도 교관들의 모임인 전무회에서 자체 파악한 명단(647명)과 1969년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에서 발간한 '사진집'에 수록된 명단(139명) 중에서 중복 및 오기 등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명단이다.
주월한국군의 공식 자료에는 태권도교관단의 파병 규모를 728명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병 교관 명단은 2회 이상 파병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 출처 :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서울: 도서출판 제일, 1996), 92~95쪽.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1969).

참고문헌

1. 1차 사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월남파병철수록 4(1972-1973) 2-1~2-2』 (관리번호 DA1417418, DA1417419).

공보부, “국기 태권도 친선사절단 단장 승인에 관한 건”(1965).

<국립태권도박물관>

월남태권도협회·주월한국군태권도협회, 『월남의 태권도』 (1967).

주월한국태권도교관단, 『사진집』 (1969).

<군사편찬연구소>

VNW-0712 “주월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한 전문”(1964.7.4).

국방부 인사국, “정책자료(태수도 유단자 통계)”(1964).

국방부 인사국, “협조전-유격훈련 교관요원 인선 의뢰”(1971).

국방부 재정국장, “협조전-군인 교관요원 해외파견”(1971).

국방부, “월남지원에 관한 연구”(1964).

국방부, “태권도교관 요청”(1971).

대통령비서실, “크메르국군에 대한 훈련지원 보고”(1971).

대통령비서실, “크메르국에 대한 고문단 파견문제 검토결과 보고”(1972).

대통령비서실, “크메르의 군사훈련요원 지원요청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1973).

대한민국군사사절단, “M-21 파견단 대월남정부건의서”(1962).

수도사단 민사처, “1968-69년도 태권도철”(1969).

수도사단 민사처, “1970년도 태권도철”(1970).

주월사 민사처, “태권도철”(1972).

주월사 태권도교관단, “태권도분석(초안)”(1970).

주월사, “우방군 태권도 훈련지원”(1971).

주월사, “월남전과 북괴의 심리전”(1968).

주월한국군사령부, “태권도훈련지원(1971년 6월 4일 주월사령관이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문건)”(1971).

주중무관, “주재국 태권도교관 요청”(1971).

주중태권도교관단, “활동보고서”(1972).

합동참모대학, “고문단안(태권도단 포함)”(1971).

합동참모대학, “참모연구서-크메르공화국 군사원조를 위한 해외파병”(1971).

합참 작전기획국, “해외파견(교관요원) 업무 체계의 일원화 연구서”(1971).

수도사단 민사참모부, “태권도복용 매트레스 카바 수령”(1970).

<외교사료관>

외교부, “동남아2과-한국의 대 캄보디아 군사훈련 지원(1970),” 『대한민국외교사료 해제집 VI』
(서울: 외교부, 2012).

<국회>

국회사무처, “제44회 국회의원회의록 제13호”(1964.7.31).

2. 단행본

강원식, 이경명 공저, 『태권도현대사』 (서울: 보경문화사, 1999).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자료 II』 (서울: 교육부, 2023).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40년사』 (서울: 국기원, 2012).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4권』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22).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등록문화재 실무편람』 (대전: 문화재청, 2009).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 KMA G』 (서울: 한양대출판부, 2016).

박정환, 『느시 1·2』 (서울: 문예당, 2000).

백기인, 『진군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보병 제20사단, 『올빼미약사 제1집』 (1974).

서성원, 『태권도 현대사와 길동무하다』 (서울: 상아기획, 2007).

오홍국,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 사령부·직할부대편』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외교부, 『2015 세계각국편람』 (서울: 외교부, 2015).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제2권(1953-1962)』 (1970).

전무회,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통사』 (서울: 도서출판 제일, 1996).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집』 (서울: 국방부, 1987).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서울: 국방부, 1981).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상)』 (서울: 국방부, 1978).

- 제1군단사령부, 『부대사 제1집』 (1981).
- 제3군단사령부, 『산악군단 30년사』 (1985).
- 주월사 정리단, 『월남전종합연구』 (주월한국군사령부, 1973).
-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서울: 팔복원, 2013).
- 최용호 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7).
-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최집현, 『대한민국 태권도 오천년사』 (서울: 상아기획, 2008).
- 최홍희, 『태권도와 나 1』 (서울: 사람다움, 1997).
- 최홍희, 『태권도와 나 2』 (서울: 사람다움, 1998).
- 편찬위원회, 『국기원 50년사』 (서울: 국기원, 2022).
- 한국체육사편찬위원회, 『태권도: 태권도 반세기 인물과 역사』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2001).
- 합동참모대학 합동교리발전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3. 논문

- 신성민, 『군 태권도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상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군 태권도교관단의 파병과 역할,” 『국기원 태권도연구』 제8권 제4호(2017).
- 이신재, “과월한국군의 베트남어 교육과 활용,” 『군사』 제106호(2018).
- 이용기, “태권도교관단 월남 파병의 역사적 의의,” 『통일로』 제173호(2003).
- 이화춘, “군의 정신무장과 태권도 1,” 『육군』 제135호(1969).
- 전홍수, 『군 태권도 활성화 방안』 (한국체대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조성균, 남도희, 차명환, “이승만의 태권도인식과 최홍희의 태권도 명칭에 관련된 역사적 개연성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제12권 2호(2010).
- 최석규, 『군 태권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체대 석사학위 논문, 1995).
- 최집현, “군 태권도 발전과정 고찰,” 『육군』 제271호(2004).
- 하태은, “광복이후 군 태권도의 발전사연구,” 『육군제3사관학교 논문집』 제49호(1999).

4. 잡지, 신문,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 .
- 『국방일보』 .

『대한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전우신문』.

『조선일보』.

『태권도신문』.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국기원 홈페이지(<https://www.kukkiwon.or.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http://archives.history.go.kr>).

국회도서관(<https://www.nanet.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세계태권도연맹(<http://www.worldtaekwondo.org>).

전쟁기념관(<https://www.warmemo.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영상자료원(<https://www.kmdb.or.kr>).

현대한국구술자료관(<https://mkoha.aks.ac.kr>).

e-영상역사관(<https://www.ehistory.go.kr>).

5. 파병 태권도 교관 구술

성 명	직 책	파병 시기	구술일자
박○○	전)맹호부대 중대장	1966~1969	2017.8.8
박○○	전)주월사태권도교관	1967~1969, 1970~1972	2017.8.4
소○○	전)주월사태권도교관	1965~1966, 1968	2017.7.19
전○○	전)주월사태권도교관	1966~1969	2017.8.1

